금주의 법구-〈잡아함경〉
교만한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떠오르는 잡념은 풀보다 많다.
계율의 덕은 땅보다 무겁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86호 2016년 3월 2일 수요일

근대 문화재 발굴·연구 항일 인사 조명 첫 걸음

올해로 3.1운동은 97주년을 맞는다. 3년 후에는 100년을 앞두고 있지만, 불교계 항일 운동가 발굴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최근 경허 · 만공선양회가 구성돼 만공 스님의 독립운동가 서훈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만당 결사를 결성 · 활동한 우봉 스님의 자손도 서훈을 위해 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 많은 스님들의 항일 활동과 유적들이 있지만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것은 근대 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중적으로 인지된 불교계의 항일 운동 인사는 3.1 독립선언 당시 민족대표로 참석한 만해 한용운 스님과 백용성 스님, 진관사에 비장됐던 태극기가 발굴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백초월 스님 정도다.

근대문화재 등록도 3명의 스님에 집중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근대문화재 등록 건수는 600여 건. 이중 불교 관련 근대문화재는 30건이다. 이중 불교계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등록문화재 지정 상황은 열악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진관사 소장 태극기 및 독립신문류' (458호), 구리 한용운 묘소(519호), 백용성 역 조선글화엄경(629호), 백용성 역 대방광불화엄경원고(630호), 백용성 역 〈조선어능엄경〉(632호),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637호), 백용성 역 한글본〈신역대장경〉(646호) 등 8건이다. 이는 전체 등록 근대문화재의 2%에 불과하다.

이 같은 근대 문화재 발굴은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 백초월 스님은 진관사 태극기와 함께 이미지 메이킹되면서 대중들의 주목받고 있다. 은평구는 3월 1일까지 통일로를 비롯해 은평로, 수색로, 연서로, 서오릉로 등 5개 도로에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 1360여 기를 게양하기도 했다.



은평구 보건소에 계양된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 은평구는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주요 도로에 진관사 태극기 1300여 기를 계양했다.

용성 스님 조선어 화엄경 등 서울시 문화재 등록 추진돼
진관사 백초월 스님 태극기 3.1절 은평구 곳곳서 게양
유산 발굴 · 활용 모범 사례

근대문화재 內 항일 유산은 전체 2% 수준… 발굴 절실
"문중 · 교단적 관심 필요해"

서울시는 동국대 도서관이 소장한 백용성 스님 〈조선글화엄경〉 〈조선어능엄경〉을 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 우리말과 글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던 일제강점기에 민족 독립의식의 고취와 불교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지정하는 유 · 무형 문화재가 상당하지만 백용성 스님의 〈조선어 능엄경〉과 같은 근대 문화유산이 발굴 · 등록되는 경우는 드문 사례"라면서 "지자체에서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은 인력 등의 이유로 어려움이 많다. 불교 문중이나 교단 차원에서 문화재를 조사 · 발굴해서 제안을 준다면 검토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근대 문화재 발굴을 위해 범교단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근대 고승과 관련한 기록 자료는 각 문중별로 전수되는 경우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과 연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용민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실 팀장은 논문 '근대 불교문화유산 발굴 및 정리방향(전자불전 16집)'에서 "근대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범불교적 차원의 관심과 정밀학술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여러 종파, 사찰, 스님들과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근대 불교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는 "불교계 항일 인사 발굴은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근대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관리 책임과 함께 여러 이점이 있다는 것을 불교계가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종단적인 사업이다. 종단 문화부와 문화재 기관 등이 조사 · 연구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외국인 불자들 봉사 전진기지 탄생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자들의 봉사 · 수행 전문 단체가 결성됐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2월 23일 외국인 불자들을 주축으로 한 '국제자비실천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미국, 영국, 인도, 티베트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외국인 불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자비실천봉사단은 앞으로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의 가르침 아래서 수행하며 외국인 법회를 진행해 국제포교 및 봉사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산=하성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화 가속화

대중공사 상반기 중점의제…자승 스님 "변화 필요" 피력

2017년 10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1년 여 앞두고 총무원장 선출제도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조계종이 종단 대소사에 대한 대중공의를 수렴하기 위해 만든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2월 24일 서울 인사동 지리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총무원장 선출제도를 중점의제로 삼아 대중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중공사추진위는 3월 31일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2016년 출범식을 갖고 1차 대중공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대중공사에서는 △현행 총무원장 선출제도 △직선제 △염화미소법 △종단 혁신특위 개선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검토하게 된다.

이어 4월에서 5월 사이 지역별로 대중공사를 통해 입장을 모으고 5월 18일 전체 대중공사에서 논의결과를 채택할 계획이다. 지역별 대중공사는 교구본사를 기본으로 지역불교회관 등 지역거점 개최가 논의되고 있다. 전체 대중공사에서의 채택안은 중앙종회 총무원장선거제도혁신특위에 제출되며 6월 경 열리는 임시종회에 안건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대중공사추진위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1994년 종단개혁을 통해 도입된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참종권 확대라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아 제도보완이 지속 요청됐던 상황"이라며 "추첨제인 염화미소법을 비롯해 직선제 등 제도 혁신에 대한 다양한 대중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3월 31일 중앙 · 지역서 대중공사
교구본사주지협도 제도개선 회의
종회혁신특위 6월 개선안 발의

이에 앞서 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총무원장 선거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현 총무원장의 선출제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이례적이다.

자승 스님은 특히 "현행 총무원장선출제도가 좋은 방안이지만 우리의 의식이 받쳐주지 못해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더 크다"면서 "추첨이든 뭐든 차선책으로라도 현시점에서는 감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종회 총무원장선출제도특위는 당초 염화미소법을 3월 임시종회에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연기한 상태다. 총무원장선출제도특위는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교구본사주지회의 등의 안건을 수렴해 6월 임시종회에서 다루기로 뜻을 모았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도 6월까지 최소 2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올해 봉축 표어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4월 20일 점등식 시작… 5월 7~8일 연등회 개최

부처님오신날봉축위(위원장 자승)는 2월 24일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과 주요 일정을 공개했다.

올해 봉축행사는 4월 20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의 점등식부터 시작된다. 5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청계천과 봉은사, 조계사 일대에서 전통등전시회가 열려 봉축 분위기를 한껏 달군다.

이어 5월 7일 오후 4시 동국대 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 오후 7시 제등행렬, 오후 10시 종각일대에서 회향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5월 8일 낮 12시부터는 조계사 앞길에서 전통문화마당과 외국인 등만들기대회 등이 펼쳐지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연등놀이가 진행된다. 봉축 법요식은 5월 14일 오전 10시 전국사찰서 일제히 봉행된다.

봉축위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에게 지혜와 자비를 일깨워주시기 위함"이라며 "특히 불안한 국내외 정치상황과 날로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과 무연대비(無緣大悲) 자비심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표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86호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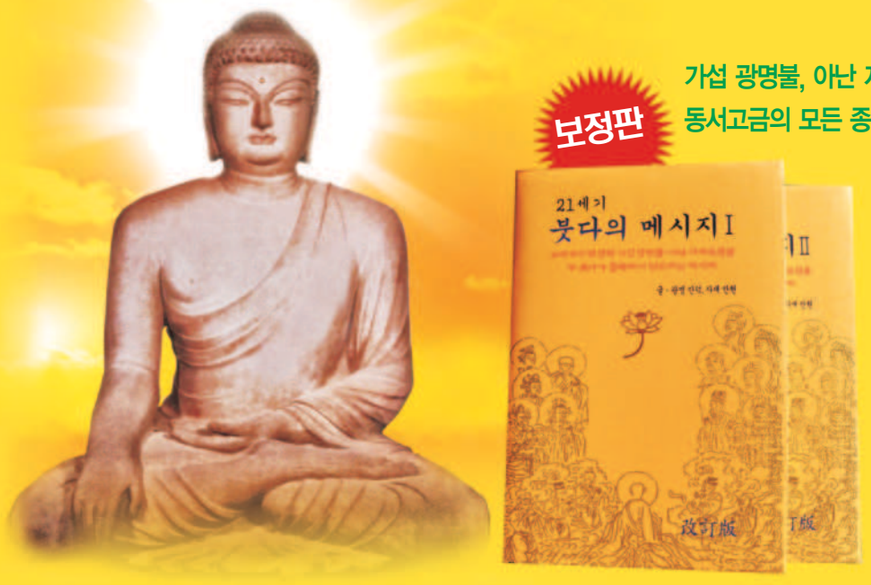
시방세계
전국 사찰 · 복지관 대보름 행사 '다채' 5



산문 밖의 禪
육명심 사진가 14·15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가섭 광명불, 아난 자재통왕불 두 붓다가 전하는 21세기 부처님의 메시지!
동서고금의 모든 종교 · 철학서를 뛰어넘는 우주적 진리 신불교의 메시지!

나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어
부처님 계율 잘 지키고
대승경전 읽고 염불공부 잘 하면
금생도 다음생도 행복할 것이며
윤회생사도 벗어나고 왕생극락까지
하리라'고 가르치고 싶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보정판 발행
대승불교를 완성한 영산불교의 만자 가르침을 펼치다

1. 부처님의 실존에 대한 불교사상 최초의 생생한 체험적 증언!
부처님께서 대반열반 하신 후 2600여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도 우리 부처님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불과를 이룬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께서 불교사상 처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절대계에 있는 당신의 불신으로 돌아가 여여히 계심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 사후 윤회세계와 해탈세계의 존재를 증언, 올바른 생사관 정립!
영산불교 큰스님께서 사후의 지옥 · 축생 등 육도윤회세계와 극락 등 해탈세계를 직접 보고 그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명부에 못 들어간 중음계의 귀신세계도 있습니다.

3. 불보살이 되는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정립, 올바른 깨달음으로 인도!
불보살이 되는 유일한 정통수행법인 팔정도 칭명염불법을 새롭게 정립, 부처님의 가피로 선정 · 삼매에 들어 눈이 열리고 지혜와 힘이 생겨 해탈열반하는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4. 무아와 윤회주체간 논란에 종지부-영혼체가 윤회주체임을 선언!
기존불교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토대로 윤회의 주체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 잡고 인간본체인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고 선언하여 2000년 이상 불교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무아와 윤회주체간의 모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5. 인간과 우주만물의 지고한 탄생 비밀 처음으로 밝혀!
어떠한 종교 · 철학에서도 몰랐던 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비밀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겁이 되면 공의 힘과 창조 원리,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공에 내재되어 있던 인간종자(공아자)와 물질종자(질료인)가 중중무진연기를 통해 인간이 되고 우주만물로 탄생하게 됩니다.

한일불교교류協 이사장에 회정 정사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정기총회서 선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에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가 선출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는 2월 23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임과 2015년 결산 및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이사장직 임기 만료에 따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회정 정사는 취임사를 통해 "뛰어다니는 이사장으로서 회원 스님들의 활동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이사장에 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후임으로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이 선출됐다.

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2016년 사업계획으로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6월 17일 일본 진언종 총본산인 가와사키 평간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회 주제는 '불교신앙의 다양성'으로 세계평화기원법회 및 학술강연회,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한국전통문화체험'을 주제로 제11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10월 중 충남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총림 본사 주지 후보 추천 · 임명 이어져

동화사 효광 스님, 범어사 경선 스님, 쌍계사 원정 스님


효광 스님


경선 스님


원정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로 효광 스님이 임명됐으며,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후보로 경선 스님이,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후보로 원정 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4일 동화사 주지에 효광 스님을 임명했다.

효광 스님은 도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6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1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백양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전국 선원에서 52안거를 성만했다. 봉암사 주지, 동화사 금당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종정예경실장 소임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범어사는 2월 23일 임회에서 방장 지유 스님이 주지 후보로 경선 스님을 추천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경선 스님을 주지후보로 결정했다.

또한 쌍계사도 2월 23일 방장 고산 스님이 주지 후보로 원정 스님을 추천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제16대 중앙종회 보궐선거 마무리


성효 스님


일화 스님


혜수 스님


성조 스님


이암 스님

제16대 중앙종회 보궐선거가 마무리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자승)는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교육분야에 성효 스님, 강원 분야 일화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또 비구니 재선거와 관련해 단독후보로 출마한 혜수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종훈)는 2월 22일 제312차 회의를 열어 당선을 확정했다.

이어 쌍계사 교구선관위는 2월 25일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조 · 이암 스님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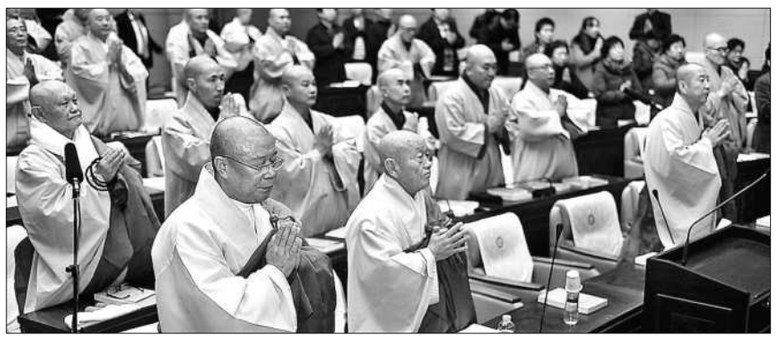
"불교 살려면 비구중심 프레임서 벗어나야"

2월 25일 '1983비상종단 재조명' 세미나서 한목소리

정화불사 후 종단 운영 검토

1983년 전법사 · 교무금제 조명

"전법 · 운영 · 구조 새 판 짜야"


비상종단종책연구회(대표 이희선)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983년 비상종단 기억과 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줄어드는 출가자와 불교신자 등 한국불교의 미래에 대한 위기신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구승 중심의 정화불사 이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1983년 비상종단이 추진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비상종단종책연구회(대표 이희선)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983년 비상종단 기억과 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은 "불교 안으로만 보면 미래가 없다"며 "광복 이후 제헌국회만 보아도 기독교 국회의원이 20여명에 불과하고 불자 국회의원이 120여명에 달했다. 비구 · 대처간 정화불사 후 불교계가 많은 인재를 잃었고, 또 재가자들의 능력이 발휘되기도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암도 스님은 이어 "1983년 비상종단은 젊은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법난 이후 쇠퇴해가는 불교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며 "당시의 다양한 혁신안을 다시금 살펴, 조계종이 살고, 한국과 세계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상종단종책연구회 고문 성문 스님(종회의장)은 "비상종단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출재가 청년 불교도들이 한국불교 위기극복에 나선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의 '비상종단의 의미와 한계', 박부영 불교신문 영남본부장의 '1983비상종단 개혁과 1994개혁 비교'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정승석 불교학술원장은 "비상종단은 민주화운동기의 선구적인 결집체였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특히 비상종단의 전법사 제도에 대해 주목했다.

정 원장은 "비상종단 관계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현재 출가자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중간단계 직책에 기존 승려들이 담당한 포교, 교화, 사찰종무행정 역할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종단의 전법사 제도 등은 대안을 승가 내부보다 출가와 재가의 연합에서 찾은 것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법응 스님은 "비상종단과 94년 개혁의 배경은 인사문제가 주원인이었다. 당시에도 종단운영이 참회와 감사기능에 충실했다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종단운영에서 인사 및 형벌권 행사의 독주를 막는 제도개선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은 "비상종단의 좌초가 급진적인 개혁에 의한 것도 있지만, 비구중심의 정화불사이념이 작용한 것이 컸다"며 "정화불사의 틀 외에도 새로운 불교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주요 발제 요약 27면〉 노덕현 기자

"'화쟁' 알린 성과" vs "분명한 입장 밝혔어야"

조계종 화쟁위원회, '한상균 위원장 체류 24일-화쟁위 활동' 토론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한 24일 동안 중재에 나선 화쟁위원회 활동을 평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2월 23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 체류 24일, 화쟁위 활동 이렇게 봤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협동 사무처장, 이광호 레디앙 대표,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 김한수 조선일보 기자, 방준호 한겨레신문 기자가 나섰다.

평화적 해결 · 화쟁사상 확산 '성과'

토론자들은 화쟁위가 12.5민중궐기대회의 평화적 성사에 크게 일조했단 점에 한 목소리를 냈다. 화쟁위는 한 위원장이 요청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12.5궐기대회에서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주최한 바 있다.

김한수 기자는 "12.5집회가 비폭력 · 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던 것은 종교인들이 앞장선 것이 컸다"면서 "또한 조계종단의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 화쟁위와 조계사가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문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화쟁위 활동이 사회적으로 '화쟁(和諍)'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시켰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방준영 기자는 "한 위원장 사태를 통해 화쟁사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저변이 넓어지고, 화쟁위의 힘이 세졌다.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화쟁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제대로 고민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안진걸 사무처장은 "타협과 화합 등의 가치가 무참히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서 '화쟁'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방해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집단이 있다면 누군가는 나서 꾸짖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화쟁위가 시민사회계와 함께 해 나가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애매모호한 입장표명 오해 부추겨"

반면, 한 위원장 중재에 나선 화쟁위가 불분명한 입장표명, 태도 등으로 명확한 역할을 정립하지 못했단 비판도 제기됐다. 유지원 운영위원장은 "화쟁위가 '중립'을 강조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모두 드는 것이 화쟁'이라 오해하고 있다"며 "화쟁위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화쟁의 개념과 가치를 폭넓게 홍보 ·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한수 기자는 화쟁위 향후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며 "화쟁위가 한 위원장 사태 직후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똑같이 중재에 나설 것'이라 밝혔는데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갈등해결에 앞서 중재 기준과 전문적인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화쟁위는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한 향후 중재 방안을 내놓았다. 화쟁위는 한 위원장 피신 당시 노동법관련 노사정 간 원탁회의를 구성코자 노력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위원장 도법 스님은 "노동 '개혁'이냐 '개악'이냐는 중요치 않다. 미래세대에 희망적인 노동의 길을 열기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1차적으로 종교계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교육원 〈승가생활계본〉 발간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 스님들에게 현대적 계목을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재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산하 불학연구소는 2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가대학 교재 〈조계종 승가생활 계본 · 사진〉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의 승가로서 계목을 정착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교재는 총 5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먼저, 근본율장의 핵심적 계목과 〈범망경〉, '삼취정계' 등 대승계의 여러 실천 덕목을 제시했다. 또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종헌 · 종법의 중요한 조문, 〈조계종 선원청규(2011)〉 〈조계종 승가청규(2015)〉까지 총망라했다.

이와 함께 평소 학인 스님들이 수지독송을 할 수 있게 글씨 크기를 크게 편집 · 제작하기도 했다.

승가대학 교재 〈조계종 승가생활 계본〉은 사찰승가대학 필수과목인 〈계율 Ⅰ · Ⅱ〉의 보조 자료로 활용되며, 기본교육기관의 생활 및 포살용 청규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2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붕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 2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③ 고급 : 전통의식 (시련 ~ 49재 회향까지)
특별의식 (점안식 外 기타의식)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 2년 졸업)

- 개 강 : 2016년 양력 3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붕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6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수강료 1년 60만원(1학기 30만원)

※ 특 혜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5352-4692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붕선원 교무처

30주년 맞은 KCRP… '이웃종교' 개념 확산

'2016 정기총회' 24일 개최
사업계획 · 신임대표 승인

1965년 평화사회 건설 취지로 출범
'30년史' 발간 등 기념사업 추진
7대 종단대표, 대중 토크콘서트도
신임대표 회장에 김영주 목사 선출



KCRP는 2015년 2월 25일 건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인들의 자성과 참회를 촉구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KCRP는 종교간 화합과 일반 국민정서 순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KCRP는 우리 사회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모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1965년 출범했다. 현재 한국 7대 종단(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 한국민족종교협의회)이 소속돼 있으며, 산하단체 ICRP 및 지역KCRP(부산 · 광주 · 대구 · 충북청주 · 대전충남 · 경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월 2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개최된 '2016 정기총회'에서는 30주년 기념사업을 비롯한 2016사업계획안이 상정 · 결의됐다. 아울러 KCRP 신임대표회장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이어 김영주 한국기독교회협의회총무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KCRP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 △세미나 △30년사 발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KCRP의 30년사 발간은 연중기획으로 이뤄지며, 발간 후엔 KCRP 공동회장단 및 문화체육관광부, 유관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웃종교스테이'를 지난해 이어 7~8월 중 총 7회 개최하는 한편, 7대 종단 대표 성직자 및 종교계 유명인사들과 함께하는 '이웃종교화합대회 토크콘서트'를 기획 중이다. '종교에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대중 토크콘서트는 10월 중에 예정돼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KCRP가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발굴 · 기획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화합뿐만 아니라 이웃종교들을 경험함으로써 일반 국민정서 화합도 도모하겠단 취지다.

KCRP 중앙위원 법현 스님은 "종교간 평화와 화합을 위해선 현 지도자들의 노력 이외에도 미래의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KCRP는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현재 예비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이웃종교이해강좌' 또한 같은 취지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현 스님은 KCRP의 가장 큰 성과로 '이웃종교' 개념을 한국사회에 확산시킨 것을 꼽았다. 법현 스님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other religion(다른 종교)'란 개념이 있을 뿐 'neighbor religion(이웃종교)'란 개념이 없다. KCRP지도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면서 "역사적으로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변선환 목사 등 이웃종교와 화합을 강조한 종교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했다.

아울러 이날 KCRP 신임 대표회장 자리에 김영주 목사가 선출됐다. 김 목사는 "한국 종교가 더불어 상생하는 길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2년 간 대표회장을 맡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이임식도 진행됐다. 자승 스님은 "30년 간 KCRP는 이웃종교 간 대화,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현실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임 대표회장과 함께 KCRP가 더 큰 발전을 이루고, 이 사회에 평화와 상생의 기운을 꽃피우길 바란다"고 당부를 남겼다.

한편, 이날 총회는 대의원 총원 88명 중 참석 47명 · 위임 25명 총 72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큰 일꾼 될 꿈나무들 울타리 되길"

제11회 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학생 38명 수혜



안양 한마음선원은 2월 21일 대행장학회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행 장학 증서 수여식'을 열고 3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안양 한마음선원은 2월 21일 대행장학회서 주관하는 '제11회 대행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은 대행장학회는 "세상의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라"는 대행 선사의 후학 양성에 대한 유지를 받들어 매년 전달하고 있다.

선발 대상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신행 활동에 적극적인 청년, 학생 불자들이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경인교대에 재학 중인 신심 돈독한 대학생 불자 5명을 포함해 총 38명의 학생들에게 8,1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실천승가회 신임 대표 시공 스님 선출

2월 24일 '19차 정기총회'서… 2016사업계획 발표도



6년 간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이끌어 온 퇴휴 스님이 자리서 물러나고, 신임 대표에 시공 스님이 선출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 이하 실승회)는 2월 24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 3층서 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선 실승회 신임 상임대표 및 임원 선출, 2016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 안건이 처리됐다.

실승회 상임대표는 제19차 총회준비위원회가 발의한 '대표단 및 집행위원 구성안'에 따라 시공 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시공 스님은 "정토승가회 출범부터 실승회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 제대로 한 일이 없어 상임대표를 맡는 것 자체가 누가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면서 "그러나 종단 및 사회, 정치계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회초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 앞으로 젊은 스님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명예대표에는 前 상임대표 퇴휴 스님을 비롯해 성관 스님, 법안 스님이 선임됐다. 퇴휴 스님은 "6년 간 상임대표로서 우리 시대를 향해 무거운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항상 어려웠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종단과 사회에 실승회 역할이 필요하단 것이다. 앞으로 실승회가 새롭게 재탄생하여 시대에 맞는 역할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공동대표에는 일문 스님과 재범 스님이 임명됐다.

아울러 이날 실승회는 2016년 사업계획안을 승인 · 발표했다. 실승회는 올해 INGO단체로서 견고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외 사업 저변 확대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베트남 평화인권 기행 △캄보디아 법인 사업 확대 △미얀마 지부 INGO 등록 등이

공동대표에 일문 · 재범 스님 임명
'종교지형변화 분석' 사업 예정

다. 특히 실승회는 연구 ·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종교지형변화 분석'에 나선다. 이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종교 트렌드 및 불교 위상의 변화 양상을 분석, 한국불교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단 취지로 기획됐다. 이밖에도 출가자 수 감소의 원인 및 대책을 연구함으로써 출가자 확보방안을 모색,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삼은 종단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종단협, 유사협의체 참여 제재키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가 회원 종단의 유사협의체 참여를 제재하기로 했다.

종단협은 2월 23일 제52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유사 종단협의체에 대한 회원종단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종단협 내 법우회 활동에 대한 제재 등이 논의됐다. 법우회는 지난 회기에 사무총장 선출을 두고 군소종단과 대형종단 간의 갈등이 발생한 이후 출범한 종단협 내 친목모임이다.

또 종단협은 올해 1월 29~30일 진행한 죠세이탄광 수몰희생자 위령제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내리고, 관음종이 지속 참여의사를 밝힌데 따라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크로드 지역에서 불교지도자 성지순례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5년 세입세출은 일반회계 9억 3189만원, 특별회계 5억 4010만원으로 결산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적극적 출가 정책 탄력 받는다

조계종, 출가 상담 전화 '1566-7936' 개통

상담사 스님 1:1 통화 면담
5일 만에 100명 상담 요청
은퇴자 출가제도 관심 높아
홈피 리뉴얼 후 상담 확대

'출가 진흥의 원년'을 선언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추진하는 출가 진흥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은 "2월 19일 출가상담을 위한 상담 전화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가 예비군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직접 사찰에 전화하거나 교육원으로 문의해야 했다.

상담 전화번호는 '1566-7936'이며, 운영시간은 오후 2~5시이다.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현재 활동 중인 출가상담사 가섭 스님과 직접 상담 할 수 있다. 출가상담사 스님은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추가적인 상담 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이뤄진다.

정식 개통이 이뤄진지 5일 가량(2월 25일 현재)이 지난 상황에서 반응은 폭발적이다. 1일평균 상담 건수는 15~20명으로 5일 동안 100명 가까이 출가 상담을 했다. 특히 은퇴자 · 고령자 출가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 가섭 스님은 "3시간의 운영 시간에는 다른 일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면서 "종단에서 은퇴자 출가 계획을 밝혔던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 상담을 받았던 사람 중에는 지역을 기반한 전문가도 상당 수"라고 밝혔다.

이어 "출가상담 전화에는 행자와 사미(니) 스님들도 전화를 해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한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출가 전반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전화의 성공적 개통과 함께 조계종의 출가 홈페이지도 새롭게 리뉴얼 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간 출가 홈페이지는 관리 부족으로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리뉴얼 이후 출가 상담사 승찬 스님이 직접 홈페이지 상담을 담당하면서 출가 문의도 확대되고 있다.

김영주 교육원 교육차장은 "현재 출가 포스터 제작 · 배포와 더불어 적극적인 출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출가 상담전화 개통으로 직접 1:1로 상담이 이뤄져 양질의 출가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출가 콘서트와 동영상 공모전도 추진되면 종단 출가 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교육원과 BBS불교방송은 협약을 맺고 '출가 공익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편저자
독각~ 진귀 (獨覺~ 眞歸)
화엄경 강원 강주

수행자라면 한 번은 참고해 볼만한 화두집 드디어 출판되다..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선(禪)삼매를
통한 선교쌍수(禪敎雙修)의
안목으로 쓴
화두집(석가를 품은 53見)이
드디어 출판되다!

이렇게 괴짜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제 1 見 석가를 품다
제 2 見 평온 초대장
제 3 見 법(法)을 버리다
제 4 見 차 한 잔
제 5 見 해인 삼매
제 6 見 창조와 표절
제 7 見 야부선사 웃다
제 8 見 요지경
제 9 見 말 많은 석가?
제10見 히말라야 영화
제11見 동시구족
제12見 법맥?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14見 윈드서핑
제15見 발효식품
제16見 한 맛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19見 참새집
제20見 병(病)든 부처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22見 직거래 ?
제23見 묘혜(妙慧)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25見 천도(遷度)란?
제26見 고구마 부쳐?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31見 다음생
제32見 종(鐘)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36見 종교와 현실
제37見 자식인연
제38見 형제 인연
제39見 도반인연
제40見 부부인연
제41見 대방광불 화엄경..
제42見 왕(대통령)
제43見 독각(獨覺)은?
제44見 〈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48見 보시(기부)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52見 화엄경_7행詩
제53見 평온 축제

도서출판 왕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 주 문



군불총 창립 16주년

정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3월 25일 오후 6시 국방컨벤션에서 국군불교총신도회 창립 16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보름미타 지장기도법회

일관 남양주 봉선사 주지 스님은 2월 22일 경내 청풍루에서 '보름미타 지장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생명산림 방생법회

원명 강남 봉은사 주지 스님은 4월 9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생명산림 방생(放生) 대법회'를 봉행한다.



선지식 초청법회

법안 서울 금선사 주지 스님은 3월 6일 오전 11시 반야전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 초청 '선지식 법회'를 봉행한다.



연등 디자인 공모

탄웅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 스님은 3월 16일까지 '국제선센터 연등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의료봉사 제2도약 기회 삼겠다"

류재환
(사)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허가 받아
회원 참여 유도 역량 결집 나서
의료불자 활동 적극 확대할 것

"1999년부터 시작된 불자의료인들의 모임이 17년이란 세월을 거쳐 사단법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단체의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의 새 출발을 다짐하고, 회원들의 역량을 한 데 집중시키겠습니다."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사진〉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데 대해 '제2의 도약'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지난 1월말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전국병원불자연합회(이하 병불련)는 2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류재환 회장은 새로 거듭나는 병불련의 목표로 의료진 확충 ·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 회원 참여 유도 등을 꼽았다.

류 회장은 "현재 연합회에 안과 · 내과 · 소아과 · 한의사 · 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이 있지만 이비인후과나 외과계 의료진은 없는 상황이다. 봉사분야를 넓히기 위해 새로운 불자의료인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그간 회원들의 회비로 단체를 운영해왔는데 사단법인으로 변모한 만큼 재정적 후원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병불련은 약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사단법인으로 발전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우선적으로 단체명에서 '불자'가 종교를 표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17년간 사용해온 단체명이었기에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했다. 다행히 법인 설립과 관련해 기독교계의 유사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류 회장은 "실무진이 법인 설립을 위해 세종시에 여러 번 다녀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법인을 위한 사무실을 구하는 데 애를 먹은 부분은 아쉽다. 포교원 · 중앙신도회와의 조율이 잘 되지 않아 고생하다 연화사에서 도움을 주셔서 성공적으로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병불련은 앞으로 대덕스님들을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발전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첫 지도법사로는 서울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을 추대할 예정이다.

류 회장은 "연합회가 법인으로서 기존의 의료봉사를 더욱 확대하겠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총동림동문회, 동국대에 1천만원

무문 스님 "동문회 창립 이후 처음"



동국대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회장 혜정) 제11대 임원진은 2월 2일 동국대에 불교대학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제11대 회장 무문 스님은 "학명, 지담 스님 등 11대 임원진들의 십시일반 모연으로 총동림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현지사 제주분원, 대웅전 점안봉불

대적광전 · 약사성전에 이어



현지사 제주분원 대웅보전 점안봉불식이 2월 21일 1000여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현지사 제2본산인 제주분원은 지난해 대적광전, 약사성전 점안식을 연 데 이어 올해 대웅보전 점안봉불식으로 3년간의 대작불사를 회향했다. **윤호섭 기자**

고엽제전우회 자매결연 기념식

국사암, 옥천명가서 위문품 전달



태고종 옥천 국사암(주지 해정)은 2월 23일 옥천 명가에서 고엽제전우회 옥천지회(지회장 이종선)와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만 옥천군수, 민경술 옥천군의회 의장, 김영년 고엽제 충북지부장, 국사암 주지 해정 스님과 옥천지회 회원이 참석했다.

자매결연 기념식에서 국사암 주지 해정 스님과 신도들은 고엽제전우회 측에 위문품으로 현금 130만원과 라면 200개 등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성장과 변화, 더 나은 미래로"

조계종복지재단, '창립21주년 기념법회'

"조계종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 복지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2016년을 만들겠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창립2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아래〉 조계종복지재단은 이날 2016년 사업기조 '행림회춘, forward 20'을 발표하고, 재단 산하시설 및 시설장들에게 함께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올해 불교사회복지의 성장과 변화, 나아가 미래를 위한 공덕의 씨앗을 심겠다"면서 "재단 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산하시설 모두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복지재단은 이날 20년 이상 꾸준하게 근무한 장기 근속자를 선발, 치하했다. 수상자는 풍기어린이집 원장 해득 스님, 오재원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서윤주 금호청소년독서실 관장, 연제만 창삼청소년독서실 관장, 강점연 합동마을어린이집 원장 등 5명이다. **박아름 기자**





불교 종립대 학위 수여식 잇달아

불교 종립대 학위 수여식이 잇달아 개최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2월 18일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2016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위〉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2,061명, 석사 503명, 박사 110명 등 총 2,674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고난이 닥쳐올 때 모교는 기꺼이 여러분들의 등대와 나침판이 되어 주겠다. 평생 AS를 제공할 테니 힘을 내어 과감하게 도전하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는 19일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봄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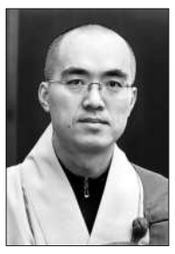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334명, 석사 55명, 박사 9명 등 총 1,398명이 졸업했으며, 경주캠퍼스 경영학과 재학 중 유명을 달리한 故안희진 씨에게 명예학사학위가 수여됐다.

조계종립 중앙승가대(총장 원행)는 26일 자비관 강당에서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석사학위 15명(불교학과 11, 사회복지학과 4), 학부 56명(불교학 16, 역경학 9, 포교사회학 16, 사회복지학 15)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이밖에도 천태종립 금강대는 27일 학위수여식을 개최했으며, 진각종립 위덕대는 24일 졸업식을 열었다. **신성민 기자**

"1대1 아동 결연사업에 중점"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 관장 해공 스님



"스리랑카 복지타운 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현지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에도 힘쓰겠습니다."

스리랑카 현지에서 한-스리랑카 문화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조계종복지타운 관장에 해공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한 · 스리랑카 문화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집무실에서 해공 스님을 신임 관장으로 임명했다.

해공 스님은 이날 "스리랑카 복지타운 내 어린이들에 대한 국내 후원자들과의 1대1 결연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현지에서 협력업체 등을 모아 교육 · 취업에도 신경 쓰겠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조계종에서도 현재 후원을 하고 있는 만큼 스리랑카 불교계와 조계종과의 불교교류의 가교역할도 하겠다. 불교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임명식에서 "해외 복지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데 잘 이겨내고, 관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스리랑카 조계종복지타운은 조계종 최초의 해외복지시설로 2008년 7월에 완공됐다. 현재 서울 도선사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가사소송 |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滿月처럼 둥글고 풍요로운 한 해 되길”

정월 대보름, 지역민과 함께한 불교계
사찰·복지관서 민속놀이·부럼깨기 등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

이 속담은 객지에 나간 사람이 설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 오지 못하더라도 보름에는 꼭 돌아와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이때마저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농사)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따돌림 당하기 십상이었다. 그만큼 한 해의 첫 달 보름인 정월 대보름은 1년 농사를 준비하며 풍년을 소망하는 중요한 날이다.

비록 농경사회에서 현대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 비해 약화됐지만 불교계는 정월 대보름을 기념해 다양한 자비행을 펼치며, 온누리를 밝히는 달빛처럼 사회 곳곳에 따뜻한 관음보살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은 2월 22일 남구장애인복지관과 사회공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동명불원은 남구장애인복지관에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및 후원성품을 지원키로 했다.

동명불원 주지 화랑 스님은 “불교 공부 회향은 곧 나눔이다. 육바라밀 실천하는 보살행의 일환으로 가까이에 있는 복지관을 선정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화랑 스님은 “이번 협약은 용호종합복지관에 이어 두 번째이며 앞으로 3월 중 복지관을 추가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하고 나눔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식에 이어 동명불원은 정월대보름을 기념해 윷놀이와 탑돌이,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대보름 축제를 마련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다.

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는 같은 날 부산 당리동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30여 명의 학생에게 총 장학금 3천여만원을 전달했다.

1991년에 출범한 관음선행장학회는 자산 1억 원으로 설립해 운영하던 중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2003년 12월 관음사로 정식 이관돼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05년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은 법인 자산을 2억여 원으로 증액하며 관음선행장학회를 이끌었다. 더불어 평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스피스교육, 교양강좌, 불교교리강좌 등을 개설하고 받은 강의료를 전액 장학회 후원금으로 희사했다. 매년 3~4천만원을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각 100만원씩을 지원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454명에게 총 4억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온고지신’ 정신 담긴 각종 행사
지역사회 하나 된 화합의 장 거듭나
청소년 장학금 등 소외계층 지원도

지현 스님은 “인재불사가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도 장학금으로 인재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고 신도 및 지역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통놀이를 재현하는 시간을 보냈다.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민속놀이 한마당서 대형윷을 던지고 있다.


부산불교문화원의 소원지 태우기.


은평노인복지관서 펼쳐진 윷놀이.



강북노인복지관 투호놀이서 어르신들이 화살을 넣고 즐거워 한다.

이날 주지 무원 스님은 대형 윷을 던지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삼광사 지관 전에는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윷놀이, 부럼 깨기, 더위 팔기, 귀밝이술 마시기, 복쌈 먹기 등을 진행했다. 이번 삼광사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은 전통민속놀이를 재현해 조상들의 얼을 되새기고 각 단체의 단합과 화합을 통해 다가오는 삼광사 연등축제 만등불사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주지 무원 스님은 “달과 같이 마음을 환하게 가득 채워서 항상 넉넉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문화원(원장 김광호)은 초등학생을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불교문화원 초등학생 및 학부모 50여 명은 먼저 떡만두국 공양으로 화합을 다졌으며 학생들은 직접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지신밟기를 따라했다. 이어 소원지를 적고 108배한 학생들은 직접 자신들의 소원지를 태우며 소원이 이뤄지길 기원했다. 초등학생의 눈높이 맞게 진행된 특별한 정월대보름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은 연등을 직접 들고 춤을 추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김광호 부산불교문화원장은 “아이들

전 세대 아울러 서로 소원 빌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박웃음’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정진해요”

이 소원지에 적은 모든 소원이 다 이뤄지길 바란다”며 “전통문화를 통해 하나가 되는 이 시간에 졸업생과 학부모 모두가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정월 대보름을 기념하는 불교계 행사는 사찰뿐만 아니라 지역복지관에서도 열렸다.

서울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소지)은 2월 22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및 지역주민 약 450명을 대상으로 ‘2016 정월 대보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이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윷놀이, 투호, 딱지치기, 다트, 알까기 등의 놀이를 즐겼다.

관장 소지 스님은 “매일 정월대보름처럼 어르신들이 올 한 해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우내은빛복지관(관장 이수경)은 ‘더불어 삶’ 행사를 개최했다. ‘더불어 사는 삶’을 주제로 부럼을 나누고, 민속놀이를 함께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여한 황진란 어르신은 “오곡밥, 부럼 등 정월대보름 음식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재밌게 즐길 수 있었고, 올해도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원장 손지영)는 지역민과 함께 정월 대보름 행사 ‘휘영청’을 개최했다. 행사는 문정1동주민센터 풍물반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소원지 작성, 부럼 및 귀밝이차 나눔, 윷놀이 등 옛 것을 되새기고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센터 로비에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16호 화혜장 황해봉 선생의 전통꽃신 작품 전시 및 체험도 진행됐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함께 연을 만들고, 서로 준비해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눴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승자)은 2월 19일 서울 진관동 폭포동4단지 제2경로당에서 정월대보름 민속잔치를 열었다. 경로당 어르신을 비롯해 고등학생, 대학생, 폭포동 부녀회 등 전 세대를 아우른 이날 행사는 부럼 나누기, 윷놀이, 정월대보름 음식 나눔 등이 진행됐다.

은평노인복지관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르신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자 했다”며 “특히 폭포동 입주상가회 찬조금과 인근 어린이집의 과일 후원 등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복지를 실천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성미·박아름 기자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정월 대보름 행사에서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016년도 1학기 수강생모집

명리실전전공 - 김동현 교수
동양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사주명리학을 비롯한 명리, 구성,관상학,성명학, 궁합,택일 등을 초보과정부터 실전응용까지 적중률 높은 최고의 강의를 하는 전문특별과정입니다.
□ 교육과정 : 사주명리, 구성, 관상, 성명 및 기타강의
□ 교육기간 : 1년 2학기 (32주 과정)
□ 개 강 일 : 2016년 3월 8일 (화) 10시 ~ 13시
□ 모집정원 : 30명 □ 수 업 료 : 30만원 (1학기)

실전성명학 - 서범륜 교수
신생아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 주어서 본인의 명예는 물론 사회에 이바지하게 함과 개명을 통해 인생의 희망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해 행복한 삶을 영위함을 목표로 한다.
□ 교육기간 : 1년 2학기 (32주 과정)
□ 모집정원 : 30명
□ 개 강 일 : 2016년 3월 8일 (화) 10:30 ~ 13:30
□ 수 업 료 : 30만원 (1학기)

구성사주전공 - 이남옥 교수
대우주권이 존재하고 있는 기류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받은 무궁무진한 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판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개운의 학문으로서 태어난 사람의 생년, 생월, 생일의 간지로 숙명기력을 찾아내어 사업, 재난, 결혼, 재물, 질병 지로 상태를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비법을 활용하여 불행요소를 개운으로 운명을 개척하는데 목적을 두고 강의한다.
□ 교육과정 : 교육기간 : 1년 2학기 (32주 과정)
□ 개 강 일 : 2016년 3월 8일(화) 13:30 ~ 16:30
□ 모집정원 : 30명 □ 수 업 료 : 30만원 (1학기)

2016학년도 현장풍수 관산 전문가 과정 - 능안
모든 대학의 교과과정은 풍수지리의 핵심인 현장풍수에 대한 학습과정과 시간이 적게 배정되어, 강단에서 이론위주의 교육이 되어 과정을 수료해도 실제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최초로 현장위주의 풍수학습을 지도하여 실제 컨설팅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 교육기간 : 1년 2학기 (32주 과정)
□ 개 강 일 : 2016년 3월 13일 (일) 오후 2시
□ 교육시간 : 현장학습 - 일요일 (오전 09:00-17:00) / 이론학습 - 일요일 (오후 14:00-17:00)
□ 모집정원 : 30명 □ 수 업 료 : 1년 100만원 ※ 현장학습 시 별도 : 3만원

한자이름(한자점술) - 최대환 교수
한자타로는 명리에서 쓰는 한자 77자를 뿌리로 한 순간에 ○와 ×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단시점으로 기존의 타로보다 단순하며 빠르고 정확하다.. 또한 한자는 스스로의 사고를 갖고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문자로 겉모습과 달리 속으로는 여러 가지 뜻을 숨기고 있기에 한자의 내력과 근원을 확실히 익혀서 진정한 명품이름을 자신 있게 만드는데 있다.
□ 교 재 : 거북이 한자점, 이름글자대로 산다. □ 모집정원 : 30명
□ 개 강 일 : 2016년 3월 8일 (화) 14:00 ~ 17:00
□ 수 업 료 : 30만원 (1학기)

풍수지리 전문가 과정 - 류호기 교수
풍수지리의 체(體)에 해당되는 형기풍수와 용(用)에 해당되는 이기풍수를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심도 있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며, 이가론의 백미인 현공풍수로 길흉화복을 밝혀 학기 중 음택과 양택의 현장 답산을 통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할 수 있는 최고의 풍수지리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 특전 : 본 과정 수료 후 자격 기본법에 의한 풍수지리사 1급~2급 자격증 수여
(단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1급자격증은 2급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자에 한함)
□ 교육기간 : 1년(2학기 32주) □ 강의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저녁 7시(6시간)
□ 개강일 : 3월 5일 □ 수강료 : 140만원(1년) □ 모집정원 : 20명

장례지도사 - 유재철 교수
故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최규하 대통령의 국가장,국장을 진행하고 법정스님.무진장스님의 다비식을 봉행한 교수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및 동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국가자격증으로 2012년 8월 5일부로 국가자격증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어져 불안한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30 ~ 40대 경우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기에 적합한 자격증이며, 퇴직을 맞이하는 50 ~ 60대도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시간	수강료
신규 표준교육반	300	115만원
수료 기준		
이론150 실기100 / 교육후 장례식장 50시간(실습비 포함)		

- 접수 기간 : 2016년 2월 29일 ~ 3월 12일
- 교육 기간 : 2016년 3월 19일 ~ 2016년 7월 10일
  ① 장례이론 및 실습 : 250시간 ② 장례식장 실습 : 50시간
- 수업 시간 : 매주 토 · 일요일 (10:00 ~ 18:30)

● 문의전화 : (02)3668-9890,9871~2
www.dongbang.ac.kr

간절한 발원, 특별한 殿閣서 올려볼까

〈전각〉

봉은사, 2월 22일 '판전 100일 기도' 입재

올해 '전각별 특화기도' 순차 진행
시험합격 기원 '판전기도' 첫 출발
오후 개방 및 하루 3번 축원기도
"4월 경 '북극보전' 기도 계획 중"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2월 22일 '자녀들의 지혜증장을 위한 판전 100일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전각기도 활성화를 통해 2016년 기도 수행 · 포교 중심도량으로 우뚝 설 것을 다짐한 봉은사가 '판전 기도'를 그 첫 주자로 내세웠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2월 22일 '자녀들의 지혜증장을 위한 판전 100일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오전에만 개방해 온 판전을 오후 4시까지 연장 개방하는 한편, 판전 기도만 전담하는 스님을 모시고 새벽 · 저녁 예불을 올리며 전각기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1856년(조선 철종 7년) 9월 남호 영기 스님, 호봉 응규 스님(당시 봉은사 주지), 초의선사, 추사 김정희 선생이 함께 조성한 봉은사 판전(板殿)은 〈화엄경〉 81권을 비롯해 총 3,438점의 경판을 보관 중이다. 그중 〈화엄경〉은 판전의 대표적인 경판으로, 신중단엔 39위 화엄성중 탱화가 자리한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해인삼매에 든 채 사자좌에 앉아 '하나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란 화엄의 진리를 설한 내용이라 하여, '진리 구도(求道)'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특히 '사자좌'는 부처님이 상주하는 장소를 의미함과 동시에 사자의 용맹한 기운으로 기도 · 신행에 임해 진리를 깨닫는 곳이란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판전은 '부처님이 상주하는 사자좌'로 널리 알려져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사법고시 · 행정고시 등 중요한 시험 등을 앞둔 사람들은 판전에서 기도를 올리며 진리를 구하고 시험합격을 기원했다.

봉은사 신도 조명숙(서울 동작구)씨는 두 자녀의 사법고시 및 로스쿨 합격을 기원하며 판전기도에 임했다. 거의 매일을 판전에서 사시예불을 올리고 다라니경 108독 했단 조 씨는 "일상기도를 하면서도 시험일이 가까워지면 21일 간 강도 높은 집중기도에 들어갔다. 정오에 판전 문이 닫히면 오후에는 법왕루서 매일 500배씩 절을 했다"면서 "그렇게 절을 하며 시험당일까지 21일 간 모두 1만 배를 채웠다"고 말했다. 조 씨의 간절한 염원이 닿았을까, 2010년 아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딸은 로스쿨을 졸업,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판전 100일 기도'는 2월 22일~5월 31일 진행된다. 매일 새벽 · 사시 · 저녁기도 마다 축원을 올리며 자녀들의 지혜증장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참비는 1인당 100만원이며, 떡 · 과일 등 회향 설판은 별도로 접수받는다.

아울러 봉은사는 사법 · 행정 · 외무고시별 각 시험일정에 따라 '판전 고시기도'를 실시한다. 각 시험별 세부 기도일정은 △사법고시 1차(2월 7~27일), 2차(6월 5~25일), 3차(10월 14일~11월 3일) △행정고시 1차(2월 14일~3월 5일), 2차(6월 12일~7월 2일), 3차(10월 2~22일) △외무고시 1차(2월 14일~3월 5일), 2차(4월 23일~5월 13일), 3차(8월 21일~9월 10일)이다. 동참금 3만원.

한편 22일 진행된 입재법회에는 100여 신도들이 참여했다. 이날 주지 원명 스님은 "지극정성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은 아이들이 학업에 매진하는 데 큰 귀감이 된다"며 "기도는 바라는 만큼 멀어지는 것이다. 오늘 입재를 기해 100일 동안 마음을 비우고 기도에만 열중해 판전기도에 동참하는 모두가 기도 성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은사는 올 한해 '전각기도 활성화'를 위해 주력할 예정이다. 전각별 특성화를 살린 다양한 기도 프로그램을 마련, 기도수행 중심도량으로 거듭나겠단 포부다. 봉은사 측은 "판전에 이어 4월 중에는 북극보전(北極寶殿) 기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한해 사찰기조가 '가족과 함께하는 수행도량'인 만큼 부모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박아름 기자

탄자니아 농업학교, 올해 문 연다

아름다운동행, 2월 26일 '2016 중점사업' 발표
9월 5일 개교 예정… "네팔 학교 건립 추진도"


(재)아름다운동행이 2014년부터 보리가람농업학교 건립을 추진해 온 동행은 9월 5일 개교를 앞두고 있다.

"물품 · 자금 등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 그 지역의 미래를 더욱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아름다운동행의 역점 사업은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학교(이하 보리가람농업학교)' 개교와 네팔 학교 건립이다. 일반적인 지원 보다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단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재)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자승, 이하 동행)은 2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동행은 올해 △정기기부자 및 모금액 확대 △보리가람농업학교 개교 △네팔 학교 건립 △새터민 지원 기금마련 '염주전' 등을 실시한다.

2014년부터 보리가람농업학교 건립을 추진해 온 동행은 9월 5일 개교를 앞두고 있다. 공사는 현재 약 80% 마무리 됐으며, 5월 완공이 목표다. 학교 규모는 고등학생 120명 수용할 수 있으며, 본관(교실 6동, 교무실, 행정실, 도서관, 강당, 화장실), 주방 및 식당, 농업 실습장, 기숙사 2동, 교사 관사 8채 등으로 구성된다.

동행 측은 "종교 및 NGO단체가 건립하는 학교 중 보리가람농업학교는 최대 규모에 속한다"며 "특히 기업 후원은 거의 받지 않고 오직 불자 및 사찰 등의 순수한 동참으로 이뤄낸 성과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행은 개교 후에도 1:1 아동결연, 빈곤아동 급식지원, 도서 및 교재 지원 등을 통해 보리가람농업학교의 자립 운영을 원조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네팔 지진피해 지역 긴급구호 활동에 이어, 올해는 2차 사업으로 네팔 학교 건립을 추진한다. 현재 네팔 정부와 협력을 통해 학교 부지를 선정 중이며, 부지 확정 후엔 위성도시 어난따링게솔 지역에 기술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다. 건립 기금은 지난해 모연한 네팔구호기금 22억 중 긴급구호에 사용한 2억을 제외한 나머지 20억으로 진행한다.

이밖에도 새터민 지원 기금마련을 위한 '염주전'은 전국 큰스님 및 주지스님들에게 후원받은 염주 300여 점으로 바자회를 2회 실시, 새터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한다. 염주 300여 점은 남지심 작가가 동행 측에 기부했다.

한편 동행은 탈북자 아동을 위한 방과후 학교 '삼정학교' 운영 및 탈북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박아름 기자

최전방 해병대에 '독서카페' 들어서

군종교구, 해병2사단에 기증


군종교구 스님들과 해병2사단 관계자들이 독서카페 현판제막을 하고 있다.

최전방 해병대에 '독서카페'가 들어섰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2월 18일 경기도 김포 해병2사단 최전방 부대에 독서카페를 기증했다. 기증식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해병대사령도 도공 한관희 군승, 청룡부대 사단장 전진구 소장 등이 참석했다.

독서카페는 장병들의 인성함양과 병영 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넓이 27㎡ 규모의 컨테이너다. 장병 14명이 동시에 차를 마시며 독서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군종교구는 지난해 육군부대 8곳 전방 GOP초소에 독서카페를 기증한 바 있다.

이날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해병대 전방부대에 아늑한 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독서카페를 이용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 따뜻한 병영생활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진구 사단장은 "해병대 장병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독서하고 소통하는 꿈과 희망의 산실이 마련됐다. 긍정적인 효과를 전투력으로 승화시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정진 통해 바로 이곳서 깨달음 찾으라"

2월 20일, 조계종부산연합회 재가안거 회향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2월 20일 재가자 동안거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2월 20일 재가자 동안거 회향 법회를 봉행하며 쉼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회향 법회는 천수경 독경△ 108배 △법문 및 발원문 낭독△안거증 수여 순서로 진행됐다.

부산 동명대학교 국제선센터에서 열린 이번 재가 안거 회향 법회에는 회장 수진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혜성 스님, 사무총장 목종 스님 및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진 스님은 "진리는 눈 뜨고 보면 바로 여기 있고 눈 감으면 대천세계 다 찾아봐도 없는 이치를 알지 못함이니 결제라고 해서 결제하는 것이 아니며 해제 때도 영원히 결제해야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열심히 정진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이 바로 여기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고 법문했다. 3회를 맞는 재가안거에는 포교사단 및 26개 사찰에서 2000여명이 참여했다. 하성미 기자

자비명상 교육과정 3월 본격 개강

마인드힐링지도사 · 인성교육지도사 과정

지난 2010년부터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중장년층의 취업과 제2의 인생설계를 돕기 위한 국가등록 민간자격 교육과정을 운영해오고 있는 (사)자비명상 강의가 3월 본격 개강한다.

자격증 과정은 마인드힐링지도사와 인성교육지도사로 나뉜다. 마인드힐링지도사는 1학기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3월 3일 오후 2시 · 7시, 5일 오전 10시 각각 개강한다. 총 12주 과정인 인성지도교육지도사는 3월 5일 오후 2시, 8일 오후 2시 개강한다.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은 자비명상에서 발급하는 국가등록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명상지도사협회 교육과정 이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인 '자비명상지도사(스님전문반)'과 차명상지도사, 승무 · 북 특별과정도 자비명상이 주관한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은 "명상지도교육과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서 꼭 필요하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우수졸업생에게는 복지관이나 템플스테이, 문화센터 등에서 실습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2의 인생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02)2682-0260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연수 과정 인증

에니어그램에 기초한 고집멸도 명상심리상담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특징 | 불교 명상법 + 서구 심리학 | 소수의 인원으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 | 전문 상담가로서의 자질 향상 | 상담의 기술 훈련 | 자기 성찰과 영적 성장

세부 안내

▶ 일 시 : 2016년 3월 28일(월) ~ 3월 30일(수) 2박 3일
▶ 장 소 : 명상상담센터 쉼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동암길 29-18 봉불사)
▶ 동 참 금 : 25만원 (숙식 제공)
▶ 모집인원 : 20명 이내
▶ 신청방법 : 연수비 입금 후 전화 접수 061)454-2303, 010-4115-2303 (지오스님)
농협 302-1027-7971-31 (예금주 : 서미자)
▶ 특전사항 :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인경스님) 자격연수 인정
조계종 승려 연수 교육 인정서 발급

일 정 표

3월 28일 (월요일)	3월 29일 (화요일)	3월 30일 (수요일)
• 입제식 (오후 1시)	• 오전 9시 - 호흡과 느낌 명상하기 (4) 나의 자아 개념 탐색하기 • 점심공양 (12:00 ~ 14:00)	• 오전 9시 - 호흡과 느낌 명상 (8) 고집멸도와 실천 계획 세우기 설문조사와 수료증 배부
(1) 성격유형 검사와 에니어그램이란? (2) 불편한 경험 나누기 경청과 되돌려주기 • 휴식과 저녁 공양 (17:00 ~ 19:00)	(5) 에니어그램의 불교적 이해 (6) 동기 - 원인 탐색하기 • 휴식과 저녁 공양 (17:00 ~ 19:00)	.
(3) 나의 대인관계 방식 이해하기	(7) 그림 그리기와 스토리텔링	.

• 주최 : 한국 명상심리상담교육원 • 주관 : 명상심리상담센터 쉼
•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동암길 29-18 봉불사 • 전화 : ☎ 061-454-2303

범패 · 작법무 · 의식과정 학인모집

▼ 아래와 같이 제 13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

■ 범패 · 소리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오후 2시 ~ 3시 10분)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작법 · 무용과정(6개월 과정 - 매주 목요일) : (오후 3시 30분 ~ 5시)
나비춤 -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일초스님 직강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
● 모집인원 : 00명 (FAX 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접수기간 : 2016년 2월 ~ 2016년 3월 9일 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원으로서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전수생으로 선정합니다. (수료증 포함)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부설 한 국 불 교 예 술 대 학

인천 남구 매소홀로 599(문학동 349-6)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02호
전화 : 032) 529-6708 FAX : 032) 529-6709
홈페이지 : http://www.bumpae.org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독립선언서 '공약삼장'에 불교정신 담겨

조계종 종무원 특강 '3 · 1운동 정신과 불교의 가르침'

박남수 천도교 교령

1919년 3월 1일, 경술국치로 인해 침탈된 민족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이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당시 불교와 천도교, 개신교로 구성된 민족대표 33인은 기미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운동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불교는 민족대표에 2명만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독립운동 역할에 있어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특강 '3 · 1운동 정신과 불교의 가르침'에서 "독립선언서에 용성 · 만해 스님만 이름을 올린 것은 타종교에 대한 배려였다"며 "이 때문에 독립선언이 가능했다. 특히 후손들이 공약삼장에 담긴 불교정신을 잘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박남수 교령은 … 천도교 종무원장, 천도교 종의원 의장,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천도교 교령과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천도교와 불교의 인연

3 · 1운동 100주년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도교 교령이기 이전에 천도교를 신앙하는 교인입니다. 오늘은 천도교와 불교는 어떤 인연이 있고 그 인연 속 가르침은 무엇인지, 또 3 · 1운동 준비과정과 불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3 · 1운동 정신을 이어갈 것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 · 1운동과 불교적 가르침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천도교와 불교의 인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도교와 불교의 만남이라면 보통 3 · 1운동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훨씬 오래됐습니다. 우리 사회를 두고 흔히 '다종교사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종교사회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불교의 '포용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넓게 안고 가는 것이 불교가 갖고 있는 큰 힘 중 하나죠.

근대에 천도교민이 300만 명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가 아니었다면 천도교는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천도교를 창도한 수운 최제우 대신사께서 조선팔도를 유람하고, 깨달음의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겪은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수운 대신사께서 한창 구도행각으로 주유를 하고 계시던 1855년, 이름을 알 수 없는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금강산에는 큰 절이 많이 자리 잡고 있을 때였는데요. 금강산 유점사에 있다고 소개한 그 스님은 100일 기도 끝에 우연히 얻게 된 책을 해석할 수 없어 수소문 끝에 수운 선생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책을 한 권 얻었는데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으나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선생께서 한번 봐주십시오."

수운 선생은 스님이 주신 책을 받아 읽고 보통 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책은 하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세상 소리만 듣고 다녀서 되겠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사는 그 책을 다 읽고 스님에게 돌려드리려 했으나 스님은 홀연히 사라졌다고 동학 역사책에는 기록돼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 동학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계기입니다. 동학에서는 이 일이 을묘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을묘천서(乙卯天書)'라고 부릅니다. 이후 대신사는 통도사 내원암 인근에 있는 적멸굴에 들어가 한울님의 말을 듣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동학과 불교의 인연은 이미 창도 이전에 펼쳐졌습니다. 또한 불교는 조선의 억불숭유책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 일어나는 동학에 은거할 공간을 내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천도교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독립선언 과정서 빛난 배려

이제 이야기를 바꿔 3 · 1운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 · 1운동을 왜 세계 역사에 빛날 위대한 독립운동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적혀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사건을 보더라도 전 민족이 하나 된 운동은 3 · 1운동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독립운동의 대중화와 일원화, 비폭력은 3 · 1운동의 3대 원칙입니다.

1910년 경술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의 문화 · 경제 · 윤리도덕 등이 일제에 의하여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10여 년간 고통을 겪다가 1919년 기미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을 대표로 일치단결하여 조국광복운동을 일으켰습니다.

3 · 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이 중심이 된 항일독립운동으로 운동 주체가 특정단체나 종단이 아닌 여러 종교가 함께 참여한 민족운동입니다. 또한 민족대표 전원이 종교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민족운동으로 일원화 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비롯해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경성의대 학생대표 등이 독자적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으며, 대중적으로 알려진 인사를 대표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천도교와 개신교만 참여해 3 · 1운동이 일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민족대표는 당시 개신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불교의 영향력이 적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것은 역사를 왜곡한 겁니다. 3 · 1운동은 준비기간이 매우 짧았고 비밀리에 추진돼야 했습니다. 불교계 큰스님들은 대부분 심산유곡에 계셨기 때문에 그 시절을 감안하면 참여가 어려웠을 겁니다. 독립선언서 인쇄 시간은 다가오고, 그런 가운데 개신교는 장로교와 감리교로 갈려 서로 민족대표로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구성서 불거진 갈등
불교계 양보로 원만하게 해결돼
"민족대표 인원 적어도 제 몫 다했다"

원래 불교, 개신교, 천도교 각기 11명씩 참여해 33인을 민족대표로 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각각 11명씩 참여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만해 스님의 주선으로 다툼을 멈추고 8명씩 나눠 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는 2명만 서명한 것입니다. 불교계의 양보와 희생으로 독립선언서는 무사히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보면 민족대표 천도교 손병희 · 장로교 길선주 · 감리교 이필주 · 불교 백용성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민족대표로서 3분의1 역할을 맡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는 바로 오늘날의 조계사 대웅전 앞 회나무가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잘 알려진 만해 스님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용성 스님의 업적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용성 스님은 일제에 나라를 잃고 일본 조동종이 강요되는 순간에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임제종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3 · 1운동을 앞두고 41살이던 만해 스님이 가장 먼저 찾아가 논의를 드린 분이 56세의 용성 스님이셨습니다.

만해 스님의 얘기를 들은 용성 스님은 동참의 뜻을 표하고 주변 제자들에게도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3 · 1운동 당시 선학원의 많은 젊은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일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용성 스님의 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용성 스님은 체포된 뒤 법정심문에도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독립운동을 할 생각"이라고 말해 독립운동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족대표들의 구금 소식은 곧바로 전국에 퍼졌고 3 · 1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되어 민족의 독립은 염원하는 소리가 전국 방방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대과제 풀어내는 정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민족대표 33인이 앞장서 전개한 3 · 1운동 정신을 계승하려는 이유는 그것이 과거의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신에 인류의 미래를 위한 비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신은 독립선언서에 집대성 돼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만해 스님은 독립선언서를 좀 더 강하게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공약삼장'으로 선언서의 끝맺음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공약삼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일 오인(吾人)의 차거(此擧)는 정의 · 인도 · 생존 ·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즉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야,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야금 어대까지던지 광명정대하게 하라.

한국사를 전공한 박노자 박사는 〈기미독립선언서 '공약삼장' 집필자에 대한 고찰〉(불교평론 8호, 2001)에서 "자유 · 비폭력을 골자로 하는 공약삼장은 불교의 해탈, 불살생, 보편 도덕주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같은 공약삼장의 필자는 만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선언은 선언의 의미만 있지만 공약삼장은 행동강령입니다. 결국 독립선언의 내용을 실천적 강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독립선언의 효과도 없었을 겁니다. 저도 공약삼장을 만해 스님이 썼다는 얘기를 반신반의 했는데 이제는 인정합니다. 공약삼장 안에 불교적 정신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어떤 모습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까요? 자유 · 평등 · 평화사상과 개척정신, 세계화 사상, 상생정신, 양심의 등장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겁니다.

이처럼 3 · 1운동 정신이 우리 민족의 현재를 넘어 미래를 위한 정신이라는 점을 독립선언서에 나타난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UN헌장보다 더 앞서서 괄목할 만한 시대정신이 배어나올 수 있는 것은 민족지도자들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3대 종교지도자였기에 큰 가르침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역사에 길이 빛날 위대한 독립운동이 될 수 있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불교계는 3 · 1운동이 끝난 뒤에도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고 여겼습니다. 만해 스님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에 맞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불교계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펼친 까닭은 민족과 종교가 다르지 않다고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정신은 지금도 유유히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스승이 못다 이룬 사업은 제자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독립을 얻었다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스승의 뜻을 잇지 못하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민족을 떠나 종교가 없다"고 여긴 만해 스님의 생각은 천도교를 믿는 저에게도 큰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광복도 얻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치 · 경제의 성장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된 조국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께서 지금 계셨다면 당장에 호통치면서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전 종교인들이 하나 되는 평화통일 운동단체를 결성하라는 명령을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나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과제가 지금의 과제는 아닙니다. 각각의 시대가 안고 있는 과제를 풀어내는 것이 3 · 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바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절에 다시 평화통일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길 역시 동학 천도교와 불교가 함께 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6년 3월 14일까지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2016년 48기 신입생모집 [2년과정]

● 불교학과 [3월 5일(토) 오후 5시 입학식]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통신반 [CD 배송]

1년차	과목	① 불교개론(아함경 1) ② 불교문화와 포교 ③ 선불교 ④ 근본불교(아함경 2) ⑤ 반야심경 ⑥ 유식불교
	교수진	법산 경일스님(학장), 이미령교수, 최종석교수, 윤열수교수, 법인스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2년차	과목	⑦ 인도불교 ⑧ 중국 · 한국불교 ⑨ 법화경 ⑩ 화엄경 ⑪ 정토경 ⑫ 대승불교와 밀교
	교수진	정병조교수, 황순일교수, 차차석교수, 김경집교수, 문무왕교수, 정엄스님, 주명철교수, 종석스님, 정성준교수

■모집인원(불교학과) : 120명 (토요반, 목요반, 통신반 각 40명)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입학금 20만원
■원서교부 및 접수 : 2016년 2월 1일부터 ~ ■문의 : (02) 732-1206~8
· 상기 과정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교육단체 연합회포교사 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획득함

● 선·명상학과(무량수경 종요) | 정목 스님 ····· 3월 10일(목) 개강
● 불교다도학과 | 박희준 교수 ····· 3월 8일(화) 개강
● 불교미술학과 | 법인 스님 ····· 3월 10일(목) 개강

동산대학원		동산의식교육원	
·인도불교사 이해(황순일교수), 금강경(2)(김형준교수)	3월 8일(화) 개강	▶전통범패의식반 (전통범패 : 인각스님)	3월 9일(수) 개강
·근본불교 깨달음의 구조와 정체(3) (최봉수교수)	3월 10일(목) 개강	▶불교한글의식반 (한글의식 : 문종순 법사) (함께 공부하는 천수경 : 심만춘 스님)	3월 12일(토) 개강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사무처 :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TEL 02)732-1206~8, 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율장 · 형사법 비교 등 응용불교 논문 '눈길'

동국대 올해 박사학위 논문 살펴보니

율장 · 형사법 비교 연구부터 종립학교 종교교육 등 다양

올해 동국대는 서울 캠퍼스에서만 110명의 박사 학위자를 배출했다. 이중 불교학 전공자는 10명이고 인도철학 · 사학 · 중어중문학 등 인접학문에서 불교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3명이다.

특히 올해 박사학위 논문들도 응용불교 분야와 관련한 주제들이 많았다. 인접 분야도 종교교육과 형사법, 문학 등 다양했다.

눈길을 끄는 논문 중 하나는 박정호 박사의 학위논문 '승가율과 한국형사법의 비교연구'이다. 박정호 박사는 율장과 한국형사법을 비교 분석하고 계율을 현대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를 조명했다.

논문은 승가 계율과 현대 형사법의 비교점을 크게 음행(淫行, 성범죄) · 도계(盜戒, 절도) · 살계(殺戒, 살인) · 대망어(大妄語, 사기) 4가지 범죄행위로 접근했다. 그러면서 승가에서 분쟁에 따른 해결방법인 멸쟁법과 형사소송절차의 내용들을 비교분석했다.

박정호 박사는 "형사법과 율은 해당 공동체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면서 "사회 변화에 승가율과 형사법이 상호 보완해 발전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논문도 눈에 띈다. 김은영 박사의 학위논문인 〈불교 종립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국가교육과정 변천과 종교학 교육방법을 중심으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종교 교육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불교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영향을 살폈다.

김은영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은 종교 교과를 객관적 교양 교과로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교종립학교의 종교 교육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면서 인문학적 교양교육으로 불교교육과 종교학과 불교교육의 순환적 교수법을 제시했다.

김은영 박사는 "학교에서 정규교과로 시행되는 불교교육은 '국가교육과정-교양교과-종교학'이라는 보편성 안에서 자신만의 특수성을 찾아야 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 다른 교과나 전체 교육환경을 무시한 종교교육은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킨다. 종교교과를 넘어 전체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운영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곽뢰(사학 전공) 박사는 학위논문 '신라 오대산 문수신앙 연구'를 통해 신라 오대산 문수신앙의 시기를 8세기 중엽으로 잡고 이에 대한 사상적 기반의 연원을 분석했다. 그는 "신라의 오대산 문수신앙은 성덕왕부터 경덕왕에 이르는 장기적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형성됐다"면서 "불국토 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일 신라의 북방정책에 발맞춰 오대산 일대의 안정화를 그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무형유산 전문 교육 실시한다

국립무형유산원, 11월까지 2개 분야 15개 과정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무형유산 전승자의 전문 역량을 계발하고, 국민들이 무형유산을 손쉽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무형유산교육'을 시행한다.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2016년 무형유산교육'은 '무형유산 전문교육'과 '무형유산 사회교육' 등 2개 분야 15개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된다.

'무형유산 전문교육'은 보유자 · 전수교육조교 · 이수자 등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무형유산 관련 단체운영, 사회교육, 기획행사, 전승활동 등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고 전승활동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됐다.

단기 교육과정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 전문역량 강화 과정 △무형유산 지도자 리더십 강화 워크숍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자 역량 강화과정 등이 열린다.

한편, 일반인과 학생, 교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유산 사회교육'은 △무형유산 체험교실 △무형유산 청소년 캠프 △시민공방 △대학연계교육 △교원아카데미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 △외국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063)280-1464 신성민 기자

한국 간화선 수행, 변화가 절실하다

불교학연구회, 19~20일 동계워크숍 개최

간화선(看話禪)은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으로 수승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빠사나 등 다양한 수행법들이 유입되면서 전통 수행법으로서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한국 간화선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한국 간화선,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동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재 간화선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들이 쏟아졌다. 주요 발제자로 나선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현재의 한국불교가 고답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유체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간화선이라는 틀에 매여 이뤄지는 논의는 애초부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지금의 불교에 대한 철저한 자기 진단이나 성찰 없이 단순히 교단적인 입장의 옹호 등 전통적 맥락에 그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의 한국불교는 전통의 자부만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현실적인 문제에도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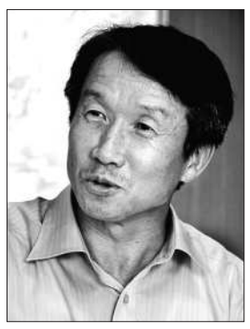
"현재 불교는 새로운 사유체계를 제시할 주체나 중심이 없고 고답적 전통에 자족하고 있다"고 밝힌 조 교수는 간화선이 이 같은 전통을 상징 · 대변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고뇌하는 중생들에게 '지금 여기서' 불교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화선 미래는 있는가' 주제로
조명제 교수, 현 불교상황 비판
"시대 상황 맞는 이론 제시 無"

전재강 교수, 대안 · 해법 제시해
"지도자 양성과 수행 모델 개발"


조명제 교수


전재강 교수

전재강 안동대 교수는 '간화선, 미래와 전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간화선은 '깨달음으로 가는 최고의 수행법'임을 분명히 하고 대중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안거에 방부를 들인 수행자들의 말을 인용해 결제 인원 중 1/4 정도의 인원이 간화선이 아닌 위빠사나, 염불선 등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위빠사나 등은 수행의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 최근 수행자들이 남방불교 등을 배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간화선이 아닌 이 같은 수행을 간화선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간화선이 아닌 것을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후학을 오도하고 수행의 길을 흐리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간화선 수행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중요한 이유로 조 교수는 참된 스승 부족과 이로 인한 인재 · 수행자 감소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 눈 밝은 선지식을 찾고 간화선 전문 수행자를 별도로 모집해 집중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전 교수는 주장했다.

전 교수는 "간화선의 지도자를 찾아내서 간화선의 체계적 지도 체제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간화선을 지도할 수 있는 수행자를 발굴하고 이들이 지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속을 불문하고 간화선 수행자를 별도로 모집해 집중적으로 간화선 이론과 실천을 지도해야 한다"면서 "각각의 수행법 별로 전문적인 수행처를 조성해 전문적인 수행을 지도할 제도적 분비를 해야 한다. 특히 간화선 집중 수행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간화선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행 모델도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간화선 수행도 단계가 있다"면서 "간화선 수행을 위한 기초, 실참 등의 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는 절차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려 태조, 보살 예경 불화 보물됐다

문화재청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등 9건 보물 지정

고려 태조가 보살을 예경하고 있는 특이한 도상의 불화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등 9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월 22일 밝혔다.

보물 제1887호로 지정된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는 1307년에 작가 노영(魯英)이 흑칠한 나무 바탕 위에 금니(金泥, 아교에 갠 금박가루)로 그린 금선묘(金線描) 불화다. 앞면에는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을 표현했고, 뒷면에는 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재(拜岾, 절고개)에서 담무갈보살에게 예경했다는 이야기를 그렸다.

고려 시대 사경화(寫經畵, 불교 경전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를 연상시키는 뛰어난 금선묘 기법과 높은 완성도, 작가와 조성연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고려 불화와 산수화풍 연구에 있어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물 제1888호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1776년에 천은사 대법당(극락전) 중단(中壇)에 봉안하기 위해 화련(華連) 등 14명의 화승(畵僧)이 제작한 것이다. 현존하는 삼장보살도 중 유일하게 화기(畵記) 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아 삼장보살의 도상(圖像)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보물 제1889호 '구례 천은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은 보살상의 복장(腹藏, 불상을 만들 때 뱃속에 봉안하는 사리 등의 물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태능(太能)과 영원(靈源)의 발원으로 조각승 현진(玄眞)을 비롯한 5명의 조각승이 1614년 6월에 조성한 불상이다. 이 2구의 보살상은 중생을 닮은 듯 실재감 있는 얼굴, 힘 있는 선묘, 늘씬한 비례감을 갖춘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보물 제1890호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감 및 금동아미타여래칠존좌상'은 원 · 명대 라마 불교 양식을 수용해 제작된 것으로 외래 양식의 전래와 수용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다. 보물 제1891호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42수(手) 천수관음상으로, 고려~조선 초에 제작된 매우 드문 예로 평가받고 있다.


보물 제1887호로 지정된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앞면이 아미타여래구존도〈사진 왼쪽〉이며, 뒷면이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사진 오른쪽〉이다. 사경화의 형식으로 금선묘가 돋보이는 문화재이다.

이밖에도 〈익재난고〉권6~7(보물 제1892호), 〈역옹패설〉(보물 제1893호), 〈퇴계선생문집〉(보물 제1894호), 〈퇴계선생문집목판〉(보물 제1895호) 등도 함께 지정됐다. 신성민 기자

영 혼 의 세 계 (빙 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하동 청소년 포교 위한 힘찬 발돋움

쌍계총림 쌍계사 2월 21일 중고등학생회 창립

쌍계총림 쌍계사가 청소년 포교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쌍계사는 2월 21일 경내 팔영루에서 중·고등학생 학생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흔히 산중에 있는 사찰은 어린이와 청소년 법회가 조건상 쉽지 않다며 미리 포기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경남 하동 깊은 산 중에 위치한 쌍계사에서 개최된 창립법회는 열악한 조건에서도 청소년 포교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쌍계사 팔영루에서 개최한 창립법회에는 하동고, 화개중, 하동여고, 하동중앙중, 하동중 등 하동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 50여명이 자리했다. 어색한 것도 잠시 한글 반야심경과 삼귀의 그리고 스님께 삼배를 올리며 법을 청했다.

당시 주지 원허 스님은 "청소년기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복이다"며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속담처럼 꾸준히 앞으로 성장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앞으로 법회가 기대가 되며 또래 불자 도반들을 만나 기쁘다고 말했다.

김희왕 학생(하동여고1)은 "설날에 세배를 드리기 위해 스님을 뵈었던 적이 있었는데 친근하고 편하게 대해 주시는 모습에 참가 의지가 생겼다"며 "그동안 불자 친구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니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학부모 신뢰 바탕으로 결집

문화통한 허물없는 소통으로

지역 청소년 50명 참여 '눈길'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

박주완 학생회 회장은 "앞으로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앞으로 학생회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한달에 한번 한문학당을 열어 한문 수업을 진행하며 영어 원어민 강사를 초대해 전문 영어 강의도 계획 중이다.

청소년 포교 성과에 대해 원허 스님은 젊은 40~50대 불자 포교가 우선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2015년 쌍계사 주지로 임명된 원허 스님은 20년 동안 사라졌던 신도회를 다시 만들었다. 그리고 합창단을 새롭게 모집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어 권유하며 불자들이 쌍계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쌍계총림 쌍계사는 2월 21일 중·고등청소년회를 새로 구성하고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원허 스님은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은 불자인 학부모님들의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새롭게 만든 신도회와 합창단 구성원들이 학부모로써 자녀를 믿고 보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님은 '허물 없는 소통'을 주요 방법으로 제시했다. 쌍계사는 놀이 및 연예인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하동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가수 '아웃사이더'를 초청하고 공연을 열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오는 3월에는 연예인 김제동을 초청해 토크쇼 '친구가 되어줘'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장학금 전달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해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과 소통했다.

원허 스님은 "하동 지역에는 청소년 2000여명이 현재 있다. 앞으로 법회를 찾는 학생들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도들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로 포교에 앞장 설 것이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통도사 축서암 "문화공간으로 발돋움"

2월 24일, 대웅전 상량식 봉행

영축총림 통도사 축서암(도감 세봉)이 문화포교도량을 발원하며 불사를 진행 중이다.

축서암은 2월 24일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 및 사부대중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축서암은 산문 밖에 위치한 암자로 송림(松林)이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다. 축서암측은 지역민 및 일반 불자가 쉼을 얻는 문화 공간 도량이 목표이며 이날 진행한 상량식이 그 시작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축서암은 대웅전을 비롯해 요사채 2채를 전통 목조 건물로 불사할 계획이며, 입구에는 회관을 지어 차문화 강의 및 다양한 문화 활동을 아울러 진행한다. 축서암 뒷산에는 차나무를 심고 녹차와 연차도 직접 재배하며 청소년 및 어린이를 위한 문화 학습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영배 스님은 "축서암은 통도사 산문 밖 외진 곳에 위치해 한동안 포교 활동도 어렵고 폐허와 같은 시설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축서암 불사 도감 세봉 스님의 원력으로 훌륭한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축서암 대웅전 규모는 109㎡이며 낙성식은 봉축을 맞아 봉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문화포교도량을 발원한 통도사 축서암은 대웅전 상량식을 2월 24일 봉행했다.

"기도 원력으로 포교 펼치겠다"

김해 바라밀선원, 21일 천일기도 회향

포교를 위해 천일기도에 나섰던 김해 바라밀선원 주지 인해 스님이 2월 21일 '천일관음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조실 지안 스님, 주지 인해 스님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가한 천일기도 회향법회는 지안 스님 법문, 주지 인해 스님 인사말, 지역 주민을 위한 자비의 쌀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지안 스님은 "기도에는 큰 공덕이 있다. 또한 기도가 깊어져 무위심(無爲心)이 되었을 때 참된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 법문했다.

인해 스님은 "포교를 위한 마음을 일으키고 천일기도를 회향하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 정진을 했다"며 "기도하는 동안 부처님의 가피로 포교를 위한 터전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를 터전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천일기도를 시작하기 전 인해 스님은 인도 성지를 방문하고 포교에 대한 원력을 세웠다.

그 후 현재 바라밀 선원 인근에 300평 규모의 땅을 마련하고 현재 불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바라밀선원은 2차 '창건불사 천일관음기도 입재'를 오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봉행한다. 하성미 기자


김해 바라밀선원 주지 인해 스님이 2월 21일 열린 천일기도 회향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응공조계종 지역에 기부활동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2월 24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면사무소(면장 박용문)에 쌀20kg 30포, 휴지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아름다운 기부'로 전달된 쌀과 생활용품들은 지역 불우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전달식을 갖는 응공조계종은 이날 종정 법운스님과 지암 스님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부설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강주 법운)은 2월 25일 제 9기 1년 교육과정인 성주 관음사 지암 스님 외 9명 스님들의 수료식을 동명사 대웅전에서 가졌다. 손문철 대구 지사장


응공조계종은 2월 24일 칠곡군 약목면 면사무소에 쌀20㎏ 30포 등을 전달했다.

"부산불교 호법신장이 되겠습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2월 22일 108인회 결성

부산 불교 재가 지도자들이 모여 108인 결성법회를 봉행하고 부산불교를 호위하며 구심점이 될 것을 서원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 108인회 발대식이 2월 22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됐다. 108인회에는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사무총장 등을 비롯해 조영득 안국선원 신도회장, 김동열 미룡사 신도회장, 박영병 부경대 명예교수, 이영숙 코모도회장 등 경제·사회·문화·신도·교육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로 구성됐다.

108인회 발대식은 인사말(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 △경과보고(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사무총장) △108인 발대선서 △108인 회원증서 수여 △격려사(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순으로 진행됐다.

선서문을 통해 108인회 회원들은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기구로써 부처님의 정법을 구현할 것과 삼보 호지에 관한 모든 사업에 적극 동참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부산불교의 위상과 부처님의 자비실천을 위한 봉사도 아울러 담당할 것을 선서했다.


부산불교연합신도회는 108인회를 조직하고 부산불교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될 것을 발원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은 "기존 불교지도자들과 함께 108인회 여러분들이 부산을 명품 불교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며 "발대식을 토대로 환골탈태하여 연합신도회가 재도약하고 불교지도자로서 부산불교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활동을 하자"고 당부했다.

수불 스님은 격려사에서 "수행하는 재가자의 모습으로 부산불교연합회 회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실천해서 깊은 신심을 토대로 모두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꾸준한 활동으로 부산 뿐 아니라 전국의 불교발전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모집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고수 총출동!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으로,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 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 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제 2기)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백운산 회장, 꼴관상 신기원 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경기대 백민교수, 한양대 정창근교수, 청화학술 박청화교수, 현공풍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청주대 이상광교수, 국제뇌교육대학원 박성희교수, 공주대 이수동교수, 글로벌사이버대 문봉 박재범교수, 신석우박사, 김인순박사, 김민재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김창곤 8대 정통부차관, 힐링특강-가수 김태곤 박사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3월 31일 ~ 7월 14일, 15주과정, 매주 목(木) 18:30~21:50 / 수료 후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3월 31일(목) 18:00 ~ 미래학특강(미래로 보는 세상) 수강료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 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수료 후 동문활동 및 수료 후 과정, 학술활동 등 교수진과 과정 동문간 지속적 관계유지

※ 장소 : 동국대학교(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 6번 출구) ※ 홈페이지 : www.gfca.kr ※ 문의 : 02-3443-4984 ※ 수강료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



2월 21일 완산불교회관서 열린 전북불교대학 졸업식 모습.

“佛法으로 전법 · 포교 나서자”

전북불교대학 졸업식… 졸업생 59명 배출

전북지역 전법과 포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 졸업식이 2월 21일 완산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열렸다.

불교학과 28회 48명, 법사과 23회 11명의 불자가 졸업한 이날 졸업식에는 천상호 총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들과 졸업생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또 23기 전법사 5명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이 수여됐다.

학장 도원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불교대학의 졸업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며 “졸업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전법과 포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불교학과 주경님 · 법사과 고유정 불자를 비롯한 학업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1988년 설립돼 올해까지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전북불교대학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부처님의 교리와 불교역사 등 1년간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사 스님들과 불일불교대학 졸업생들이 대웅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배운 것 주변에 올바로 회향하길”

송광사 불일불교대학 졸업식… 졸업생 72명 배출

조계종림 송광사(주지 무상) 불교대학이 7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순천 송광사가 운영하는 재가불자교육과정인 불일불교대학은 2월 21일 대웅전에서 방장 보성 스님과 주지 무상 스님을 비롯해 졸업생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졸업식은 불교의례에 이어 졸업생 대표 육법공양, 연혁 및 학사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졸업장 전달과 조계종 신도품계인 부동품계 휘장 수여 및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날 졸업생들은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학사과정에 사용할 빔프로젝트를 사찰에 선물하고, 아프리카 학교 건립기금 200만원을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주지 무상 스님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교과과정을 배우는데 열심히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며 “불교는 결국 마음의 종교로 형상이나 음성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배움의 자세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졸업을 통해 이를 주변에 회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14년 4월 조계종 포교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송광사 불일불교대학에는 2기 신입생으로 72명이 입학해 불교입문, 부처님 생애 등 이론 강의와 성지순례, 여름 수련회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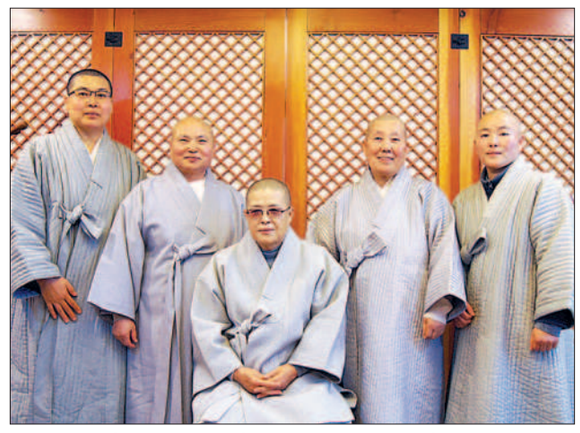
“호남권 비구니 권익증진 나서겠다”

전국비구니회 호남권 지회 신임집행부 구성

광주 · 전남 · 전북지회 회의서 신임지회장 및 삼직 선임 비구니 회칙 개정 의견 수렴도



광주지회 신임집행부와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오른쪽 첫 번째). 왼쪽부터 지장 · 보혜 · 일장 · 동현 스님.



전북지회 신임집행부. 뒷줄 왼쪽부터 성목 · 법륜 · 일연 · 무여 스님.

최근 전국단위 지회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가 2월 24일 광주 · 전남 · 전북지회 집행부를 각각 구성하면서 호남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증진과 역량결집에 박차를 가했다.

광주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개최된 광주전남지회 회의에서는 기존 하나의 지회를 광주지회와 전남지회로 분리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회 신임 지회장에 금선사 주지 동현 스님을 선출하고, 총무 보혜 스님(비전사), 재무 지장 스님(동원사), 교무 일국 스님(자운사)을 3직에 선임했다. 신임회장 동현 스님의 임기는 4년이다. 반면 전남지회는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차후 지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화순 유마사 주지 일장 스님을 지회장으로 추천해놓은 상황이다.

광주지회장 동현 스님은 “광주지역 많은 회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회장 선출에 앞서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희망적인 비구니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 17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회 구성 △지회장 선출 △지회 운영위원회 구성 △지회 회칙 의견 수렴 △기타 사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편 전북지회는 전주 ‘고궁’에서 전북지회 집행부 구성을 완료했다.

21명의 스님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지회 구성 △지회장 선출 △지회 운영위원 구성 △지회 회칙 의견 수렴 △전국비구니회 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 사서실장 진명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장수 팔성사 주지 법륜 스님이 전북지회장으로 선출됐다. 임원으로는 총무 석우 스님(정읍 보림사), 재무 무여 스님(김제 귀신사), 교무 성목 스님(진안 고림사)을 선임했다.

지회장에 선출된 법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증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비구니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중앙 회칙 개정을 통해 운영위원 숫자가 결정되면 지방 지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전국비구니회 회칙 개정과 관련해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고, 지회의 목소리를 회칙개정특위를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선학원 소속 비구니 스님들과 관련해 선미모 총무 심원 스님이 비구니회의 입장을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와 민간신앙의 독특한 만남 ‘화제’

부안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불교신앙과 민간 토속신앙이 융합된 독특한 형태의 당산제가 부안 내소사에서 열렸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안 내소사는 2월 21일 경내 들당산(일명 할머니 당산나무)과 일주문 앞 날당산(일명 할아버지 당산나무)에서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

내소사 진성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과 부안대대 군장병, 내소사 인근 5개 마을주민 등 5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당산제는 풍물패를 앞세워 짚으로 만든 대형 용줄을 메고, 내소사에 도착해 마을의 화합과 번영을 기원했다.

내소사 당산제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에 뿌리내리고 있는 당산제라는 토속신앙을 통해 지역민을 자연스럽게 사찰 안으로 불러 모으고, 그 안에서 포교를 병행해 지역주민들과 사찰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내소사 스님들이 2월 21일 열린 당산제에서 제례를 올리고 있다.

여타 당산제와는 달리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민간주도가 아닌 내소사의 주도하에 오래도록 전승돼 왔다. 토속신앙을 받들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사찰 내로 자연스럽게 흡수함으로써 불교신앙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포교를 병행하는 형태로 계승돼 오고 있다.

박병우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 보존위원장은 “내소사 당산제는 사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다”며 “사찰과 마을 주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불교신앙과 민간신앙의 결합이라는 보기 드문 복합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민속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수령 1천년과 700년으로 추정되는 내소사 경내의 들당산과 입암마을의 날당산 느티나무에 내소사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개최돼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성불사, 방생 대신 보시

10년째 자비나눔 실천

10년간 정초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작은 사찰이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고 있다.

군산 성불사(주지 종명)는 2월 25일 노인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행복한 집’을 방문해 쌀 100kg, 80인분의 떡과 과일, 김, 미역 등을 전달했다. 전달식은 종명스님과 성불사 신도회(회장 박경림) 임원 10여 명이 동참했다.

종명 스님은 “해마다 동안거 해제 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복지시설을 방문해 왔다”며 “추운 날씨에 물고기 방생법회를 하는 것보다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한층 자비실천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군산 성불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면 지역 주민센터에 자비의 쌀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정초 방생법회를 대폭 축소하고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련기획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 단 등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탐욕과 아집 넘어서야 본 모습 볼 수 있어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㊲ 변신요괴 죽이고 쫓겨나는 손오공



그림 · 최주현

인삼과를 복용한 현장법사,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기운이 팔팔하다. 그 기운이 구도심으로 뻗쳐 열심히 경 구하러 가는 길을 재촉한다. 그렇지만 인도 가는 길 또한 만만치 않아라. 경치도 좋지만 험하기도 한 산이 또 가로막는다. 허위허위 오르다보니 팔팔한 기운에 걸맞게 배도 또한 빨리 고파진다. 현장법사, 손오공을 채근한다.

"오공아, 오공아! 빨리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너라."

손오공 근두운 타고 하늘 높이 올라 사방을 둘러보고 멀리 복숭아나무에 잘 익은 복숭아 달린 것 찾아내곤 그거 따다 드리겠다고 찾아 간다.

"산이 높으면 반드시 요괴가 있고 골짜기가 험준하면 도깨비가 생긴다"고 했던가?

이 산에도 요괴 한 마리 어슬렁거리다 현장법사 일행 발견하고 침을 삼킨다. 어여쁜 처자로 둔갑하여 먹을 것 들고 그 앞에 나선다. 지혜의 눈 뜨지 못한 현장법사는 물론이고, 저팔계 사오정 모두 요괴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하네. 그 꽃다운 자태에 저팔계 벌써 음심이 솟는데 거기에 맛있는 음식 공양까지 올린다 하니 벌써 입이 헤~ 벌어진다.

그때 마침 복숭아 따가지고 돌아오던 손오공, 한눈에 요괴의 정체를 알아채곤 여의봉으로 단매에 때려죽여 버린다. 그런데 이 요괴 재주가 비상하다. 몸은 버리고 혼만 빠져나오는 술법을 부리니 죽어 널브러진 처자 시체만 남았구나.

현장법사는 그 잔인함에 치를 떨고 예쁜 처자와 먹을 것을 모두 놓친 저팔계, 성질이 나서 부추기니 현장법사, 손오공 머리테를 조여 대는 긴고주를 외워댄다.

"너같이 불자의 본분인 자비를 망각한 놈 필요 없다. 당장 내 문하에서 나가거라."

손오공 성질은 급하고 사나워도 의리는 굳다. 오행산에서 구해주고 제자로 삼은 현장법사의 은혜 아직 갚지 못했는데 버리고 갈 수가 없다. 애걸복걸을 하니 마음 약한 삼장법사, 거듭 사람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다짐을 두고 손오공을 용서해 준다.

그런데 겨우 몸을 빼낸 요괴, 현장법사라는 좋은 음식(?)에 대한 미련도 남고 또, 손오공에 당한 분함과 오기도 발동하여 이제 죽은 처자의 어미쯤 되는 노파로 둔갑하여 온다.

그렇지만 손오공 역시 한눈에 알아채곤 또 다시 여의봉으로 단매에! 어찌 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 또 어찌 전재되었는지도 아시겠지?

현장법사 긴고주…중얼 중얼…손오공 대굴 대굴…대굴 대굴…

다행히 이번도 손오공의 읍소가 통하는 것까지 그대로 전개되네. 그런데 정말 끈질긴 요괴.

모든 것이 삼세판 아니던가? 이제 죽은 처자의 애비요, 죽은 노파의 남편인 노인네로 분장하고 나타난다. 손오공도 이제는 대비를 한다. 토지신과 산신령을 불러 요괴가 술법 부려 빠져 나가지 못하게 대비를 하고 여의봉 휘둘러 단매에!

그래서 끈질겼던 요괴의 운명도 여기서 끝! 그래서 어찌 되었는지 역시 말하지 않아도…현장법사 중얼 중얼…손오공 대굴 대굴…그런데 끝이 다르다!

모든 것은 삼세판? 세 번째에 요괴가 죽었듯이 손오공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손오공이 아무리 사정해도 현장법사 노여움이 풀리지 않네. 손오공의 설명이 어찌 그리도 먹히지 않느냐구? 현장법사가 그토록 어리석어? 그런게 아니다!

저팔계의 탐욕과 질투심이 끼어든 탓이다. 모두 저 원숭이 사형이 술법을 부려 엉뚱한 사람 죽여놓고 요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러니 아직 지혜의 눈 뜨지 못한 현장법사가 올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나!

결국 어떤 일이 있어도 손오공 다시 부르지 않는다는 문서까지 써 주고 매몰차게 손오공을 내쫓아 버린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는 삶겨 죽고 새를 잡고 나면 활은 창고 속에서 썩게 된다던가? 손오공의 장탄식만 소슬 바람 속에 스러질 뿐.

애고고, 불쌍한 손오공! 다시 수렴동에 돌아와 원숭이 왕 놀음이나 하게 되었구나.

이야기 줄거리 잘 읽어 보셨죠? 손오공이 인삼과 뿌리째 뽑아버리는 큰 사고를 친 대목에 "서유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하고 조바심을 했더니, 이제 서유기 진행에 더 큰 위기가 닥쳤네요. 아무리 현장법사가 실제 역사에 나오는 주인공이라 해도 우리 손오공 없으면 서유기가 어찌 진행되겠어요? 우리 이야기 제목도 '손오공이 기가 막혀' 인데 정말 손오공 기막혀하는 대목으로 끝나 버리겠잖아요? 이거 정말 근본적인 위기상황이죠? 뭐 서유기가 여기서 끝난 거 아니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않으신다고요? 애구, 그렇게 심드렁한 태도 좀 버리시고, 심정적으로 몰입을 좀 해보세요. 그래야 진정한 서유기의 묘미를 알 수 있단 말씀입니다. 뭐, 그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알 건 안다고 하지는 마세요. 알 건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대로 아는 분 없다는 거! 저도 알 건 안다구요!

주체의식과 지혜와의 충돌 묘사
탐욕 상징, 저팔계의 부추김 이어져
내적 갈등 극복은 통일된 인격 형성

이거 정말 위기상황이예요! 근본적인! 왜냐구요? 내가 분열되어 버렸잖아요! 우선 현장법사와 손오공이 결별을 한다는 사태가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현장법사라는 의식주체와 현장법사의 마음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지요. 좀 좁게 해석하면 현장법사라는 주체의식과 손오공으로 상징된 지혜가 갈등을 일으킨 것이구요. 거기에 저팔계로 상징되는 탐욕이 끼어들어 부채질을 하네요. 그리고 미욱한 현장법사의 주체성이 그 탐욕의 부추김을 받아서 지혜의 충고를 믿지 않고 오히려 내쳐버리는 사태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각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자신과 자신이 서로 다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전혀 겪어 보지 못한 분들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 겪지 않으시고 넘어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살이가 어찌 그리 만만할까요?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 겁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자아의 분열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게 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겪기는 하는데, 진지하지 못한 분들은 대충 넘겨 버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를 생생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겠군요. 그럼 어렵지 않게 대충 넘기는 게 좋은 거 아니냐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발전도 없어요. 자신의 내부적 갈등을 아프게 체험하고, 그것을 극복해 낼 때 보다 통일된 인격성을 갖춘 자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성 없는 자기 주체에 대한 인식도 없이 그렁저렁 한 세상 살다 죽는 거지요.

허! 나칠계님!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시네요. 그게 어떤 문제냐구요? 자기 주체의 통일성 어쩌고, 인식 어쩌고 하는 말이 통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구요?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구, 괴로움 겪지 않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최고 아니냐구요?

애고, 앞의 이야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음미되지 않은 삶은 가치가 없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또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는 말도 했을 텐데요. 반성 없이 그렁저렁 한세상 보내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배부른 돼지기 되는 것입니다요. 제발 우리 좀 진지하게, 향상심(向上心)을 잃지 않는 자세를 바탕으로 하기로 해요. 나칠계님이 존경하는 저팔계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게 태평한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요. 우리 이야기 진행에 저팔계가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장애가 된다구요!

나칠계님은 전혀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이 상황의 심각함을 확실히 아셨겠지요? 또 이 상황이 전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삶을 음미해 보려는 여러분들이 겪으셨거나, 앞으로 겪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아셨을 거구요. 나칠계님과 같은 태도를 가진 분은 정말 드물고도 귀한(?) 분이라는 생각으로…. 다음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어요.





백담사는 피안의 사찰이다. 오르는 계곡은 피안의 세상을 여는 아늑한 통로다. 백담계곡을 가로질러 놓여진 돌다리 수심교는 속세와 백담사 경내를 연결시켜 준다.



백담사는 만해 스님이 〈님의 침묵〉 등을 집필한 곳이다. 사진은 경내에 있는 만해 스님 동상.

피안의 세상 여는 마음닦는 절… 무심한 돌탑들 오롯이

'나'를 찾아 떠나는 山寺紀行

인제 백담사

신라 제 28대 진덕여왕 원년(647) 자장율사가 창건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불교 유신론〉 등 집필처

전두환 前 대통령 부부 유배생활 한 곳으로도 유명

수좌들 수행처…무금선원 무문관, 기본선원 갖춰

2월 21일 동안거 해제법회가 있는 날 찾은 백담사는 적막했다. 세찬 바람소리만 지나다닐 뿐 고요하다. 백담사는 내설악으로 오르는 길잡이다. 백담사를 거쳐 계곡을 계속 오르면 영시암이 나오고 마등령쪽으로 오르면 오세암, 수렴동대피소를 지나 구곡담으로 해서 오르면 봉정암이다. 봉정암은 해발 1,244m로 높기도 하거니와 가는 길이 험해 눈 쌓이는 겨울철엔 일반인들의 출입이 수시로 통제된다. 이곳에 있는 5층 석탑이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불뇌보탑이다. 탑 아래로 펼쳐진 장엄한 설악능선이 장관이다.

백담사는 피안(彼岸)의 사찰이다. 오르는 계곡은 피안의 세상을 여는 아늑한 통로다. 백담사는 또한 만해(卍海) 한용운 스님의 절이다. 깊은 인연 때문이다. 20세 때 처음 백담사를 찾은 만해 스님은 25세때 다시 백담사에 들어와 이듬해 이곳서 출가했다. 3 · 1운동 후 옥고를 치른 만해 스님은 다시 백담사에 들어와 시집 〈님의 침묵〉 등을 탈고했다. 오래전 만해 스님이 이 곳을 다시 찾은 그날도 지금의 고즈넉함과 여유로움이 그를 매료시켰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경외로움이 넘치는 이 백담사가 얼마전에는 TV드라마에 등장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바로 얼마전 종영된 tvN의 인기프로 '응답하라 1988'서 김성균과 라미란의 장남 정봉(안재홍)이 촛불을 들고 탑돌이 기도 모습이 나온 곳이 백담사다.

백담사를 찾기전 그 드라마를 다시 보니 이 장면서 백담사가 나온다. 백담사에 들어간 정봉은 법당서 전두환 前 대통령을 발견하고는 "TV서 많이 나오는 그 사람 맞죠?"라고 놀라며 말을 걸었다. 그 순간 정봉은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가 웃음을 자아냈다.

드라마가 설정을 한 것이지만 실제 역사적 사실과 무관치 않다. 5공 비리가 터지자 전두환 前 대통령은 1988년 11월 23일 백담사로 들어갔다. 드라마의 설정기간이 1988년이니까 딱 들어맞는 셈이다. 실제로 대웅전 왼편에는 조그만 방이 하나있는데, 전두환 前 대통령이 1년간 기거했던 곳이다. 지금은 방 앞에 '제 12대 대통령이 머물던 곳입니다'란 푯말이 붙어있고, 방안에는 당시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집기들이 작은 박물관 형식으로 전시돼 있다.



백담사 극락보전과 경내 전경.



전두환 前대통령이 유배생활을 한 처소.

이렇듯 사연 많은 설악산 자락 품에 아늑하게 들어앉은 백담사는 신라 제 28대 진덕여왕 원년(647년)에 자장율사가 세운 절이다. 처음에는 한 계사라 불렸으나 그 후, 대청봉서 절까지 웅덩이가 100개 있다고 해서 백담사라 이름 붙여졌다. 그래서 백담사의 백담은 흰 물웅덩이가 아니라 일백 백의 물웅덩이를 말한다.

10여 차례 소실됐다가 6 · 25전쟁 이후 1957년에 재건된 백담사는 민족의 질곡과 역사를 반영하듯 긴 세월 동안 소실과 중건을 반복하며 총 아홉 번의 환골탈태를 거쳐 오늘날의 백담사에 이르렀다. 사찰명도 운흥사, 심원사, 선구사, 영축사 등 여러 이름을 거쳤고, 조선 정조때 비로소 백담사란 이름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백담사 입구에는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고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백담계곡이 흐르고 많은 방문객들이 저마다의 발원을 담아 쌓아올린 돌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아직 겨울이라 계곡물은 얼었지만 돌탑만은 건재하다.

이 돌탑들은 백담사가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수심교(修心橋) 주변 계곡에 펼쳐진 돌탑들은 백담사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쌓은 것과, 관광객들이 쌓은 돌탑이 어울리고 합해져 신비로운 풍광을 연출한다. 얼핏보면 마이산 탑사의 축소판 같다. 어떤 이는 근심을 덜기 위해, 어떤 이는 취업을 소망하며 한 층 한 층 켠켠히 정성껏 쌓아 올린 돌들이 작은 탑이 되었다. 돌탑 중 일부는 계곡을 휘돌아 부는 바람에 무너지거나 한여름 폭우에 휩쓸리기도 한다. 백담계곡을 가로지르는 돌다리 수심교를 지나면 백담사 전각들이 위용을 드러낸다. 경내로 들어서 삼층석탑을 지나면 정면으로 보이는 중심법당 극락보전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아미타불좌상이 모셔져 있다. 또한 이를 비롯해 산령각, 화엄실, 법화실, 요사채, 부속암자로는 봉정암, 오세암, 원명암 등이 있다. 특히 '오세암'은 동명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도 한 유명 명소다.

백담사 경내 한쪽에 마련된 만해기념관에서는 만해 스님의 발자취도 찾아볼 수 있다. 만해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 등의 저서와 〈님의 침묵〉 초간본 등 100여종의 판본이 전시돼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님의 침묵〉과 〈불교 유신론〉 등을 집필하며 독립정신을 깨달은 장소인 크지 않은 백담사 이곳저곳에는 그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다.

백담사는 또 선원으로도 유명하다. 백담사 위로 출입통제 표지를 지나 150m 가량 오솔길을 올라가면 무금선원(無今禪院) 무문관(無門關)이 있다. 화장실이 딸려있는 2평 남짓 크기다. 수좌 스님들이 각자 화두를 들고 독방에 들어가 결재 3개월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은채 방안에서만 '폐문정진' 한다. 물론 문은 밖에서 걸어잠근다. 2년 전부터는 방앞에 작은 포행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하루에 단 한번 오전 11시 작은 공양구를 통해 식사만 전해질 뿐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다. 이번 동안거에는 9명의 구참 납자들이 해제를 맞았다.

무문관 반대쪽 백담사 만해당 뒤편에는 조계종의 기본선원이 있다. 젊은 스님들이 본격적인 선수행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는, 일종의 '불교사관학교'다. 이 곳 역시 동안거에 70명의 스님들이 정진했다.

바깥 세상과는 단절한 때 시간과 맞서며 한철을 보낸 백담사 무금선원 수좌들은 보았을까? 고은 시인이 말한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을 말이다. 우리는 시인의 말처럼 우리 주변의 삶, 사람 들이 우리 곁에서 얼마나 충만한 기쁨을 주고 아름다웠는지를 함께 있을땐 잘 몰랐을 것 같다. 그것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서야 내려오고서야 선명히 알았다.

백담사를 내려오는 길에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었다. 조계종립기본선원장이자 신흥사 조실인 설악 무산 스님의 동안거 해제법어다. "살아온 생을 쭉 돌아보니 법(法)이란 그와 같고 이와 같은 것이다. 삼동 한겨울 백담사 계곡에는 들어오는 이가 없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으니, 할 말도 끊어졌다."

한편, 백담사는 일반인들에게 상시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함으로써 산사 생활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제 백담사=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명상의 효과

심신 안정과 건강증진 / 집중력, 창의력 개발 / 수용과 공감능력 향상 / 소통과 관계향상 / 자유와 행복

일 시 2016년 3월 9일 ~ 5월 21일 (매주 수요일, 토요일 강의) 오후 2시 ~ 5시 30분

장 소 행불선원 매주(수) / 02)732-9500
금강선원 매주(토) / 02)445-8484

모집인원 수요일반 00명 / 토요일반 00명

참 가 비 1차 전반기 35만원 / 2 차 후 반 기 35만원 / 사 전 등 록 33만원 / 1,2차 일시납부 60만원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89-017340 김형록

등 록 사전등록 2016년 2월 15일 ~ 3월 4일(금) 협회 홈페이지
현장등록 2016년 3월 9일(수), 12일(토)

문 의 02)953-5307 www.kamto.net

강좌 일정표

횟수	날 짜	강 좌 명	강 사
1	3. 9(수) 3. 12(토)	개 강 식	
		①명상! 어떻게 할 것인가?	용타스님
		②경전 속에 나타난 위빠사나 수행법	혜거스님
		오리엔테이션	인경스님
2	3. 16(수) 3. 19(토)	①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의 이해	김재성교수
		②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 – 1	붓다락키따스님
3	3. 23(수) 3. 26(토)	①아나빠나삿띠 (위빠사나 호흡관찰법)	김열권원장
		②호흡명상의 실제와 이론 – 1	
		마음관찰과 호흡관찰	각산스님
4	3. 30(수) 4. 2(토)	①가피명상	적경스님
		②통합표현매체명상	선업스님
5	4. 6(수) 4. 9(토)	①자비명상	마가스님
		②깨어있는 마음 평화로운 죽음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명상)	혜봉오원칠원장
6	4. 13(수) 4. 16(토)	①세 가지 모습의 자아	명법스님
		②자비차선의 차 명상	지운스님
7	4. 20(수) 4. 23(토)	①하트스마일 명상의 원리와 행법	미산스님
		②생활 속의 참선 수행 I	김용환교수
8	4. 27(수) 4. 30(토)	①성철 참선프로그램 – 영원한 자유의 길	박희승교수
		② 스트레스 다스리기	월호스님
9	5. 4(수) 5. 7(토)	①새로운 물결 명상상담의 대두배경	인경스님
		②명상심리치료	서광스님
10	5. 11(수) 5. 21(토)	①마음챙김 혁명 : MBSR을 중심으로	안희영교수
		②"명상아카데미 대강좌" 질의응답	인경스님

승려들 시권에 제문 짓기 좋아한 청백리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⑯ 동악 이안눌

동악 이안눌(東岳 李安訥, 1571~1637)은 어린 나이에 분전(墳典), 즉 고전(古典)을 두루 섭렵하여 신동(神童)이라 칭송된 인물로 수많은 승려들과 교유하였다. 그의 자(字)는 자민(子敏)이며, 별호(別號)는 동악(東岳)이다. 저서로 〈동악집〉을 남겼다.

그의 인물 됨됨과 학문적 성취는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일찍이 선조께서 주감(胄監)에게 제생(諸生) 중에 후일 대제학이 될 만한 사람에 대해 묻자 공의 이름을 들어 대답하였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하지만 세상만사는 그저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일품(逸品)의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대부분 범인(凡人)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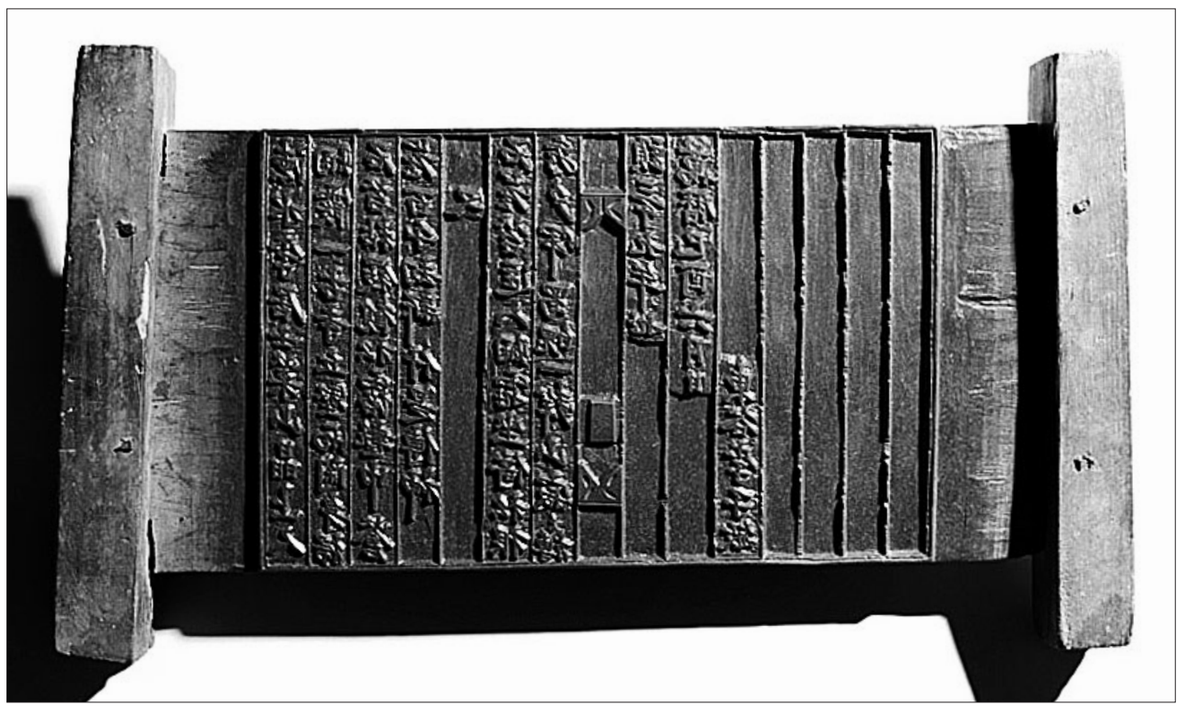
이안눌 또한 이런 세인(世人)의 시기심을 벗어날 수는 없었으니 이는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 쓴 〈동악공행장〉에 "18세에 초시에 장원하여 명성을 더욱 크게 떨치자 같이 나간 자들이 시기하여 예조(禮曹)의 시험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므로 공이 세상살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았다"라고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가 다시 과거(科擧)에 나간 것은 부친의 상을 마친 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니 그 해가 1599년이다. 하여튼 이 해의 과거에서 2등으로 급제한 그는 승문원(承文院)에 보임된 후 형조, 예조, 호조 좌랑(佐郞)을 거쳐 정랑에 부임되는 등 여러 관직을 거친다. 특히 서천군수(瑞川郡守)로 부임했을 때에 공무에 임했던 그의 자세는 관료로서의 충심을 드러냈다. 바로 은광(銀鑛)이 있었던 서천군은 대부분의 전임 군수들이 부정에 연루되어 떠났던 부임지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공무를 보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단속했으며 그의 집무실인 동헌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不易心)'는 편액을 걸었다고 하니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하려는 청백리(淸白吏)로서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는 혼란의 여진이 난무했던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인조반정을 경험했다. 당시 반정을 주도했던 무리에게 빌붙은 것을 매우 혐의스럽게 여긴 그는 휴가를 요청하고 귀향하였지만 이괄의 난이 평정된 후엔 혼란의 변고를 피할 수 없어 북변(北邊)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홍천으로 이배되기도 하는 등 그의 환로(宦路)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후일 유배에서 풀려 다시 벼슬길에 올라 보국충정을 몸으로 실천했다. 그의 행실은 순수하고 우애가 깊었다고 한다. 평소 소박한 것을 좋아했던 그는 늘 의관이 허름하여 가난한 선비와도 같았다고 한다. 이식이 〈동악공행장〉 말미에 쓴 명(銘)에는 그를 "곧고 곧은 동악이여(矯矯東岳)/ 기가 두터워 완전하도다(氣厚而完)/ 문장으로 크게 발휘하니(駿發文章)/ 그 연원이 있었도다(厥其淵源)/ 용재의 후손으로(容齋之後)/큰 발자취를 이어 받았도다(大武是嗣)"고 하였다. 이어 "효자나 청백리로 호칭되었으니(孝子廉士)/세상에 이론이 없었도다(世無異論)/ 문원이나 어진 관리로(文苑循良) 사서(史書)에 함께 전하리라(史同一傳)"고 하였다. 따라서 그의 삶은 이식의 간요하고 기세 좋은 문장으로 압축되어 세상에 남겨졌다. 더구나 조선 중기의 문장가요, 그림과 글씨에 이름을 날렸던 이행(李荇, 1478~1534)의 후손으로, 그 또한 선대의 문원(文苑)을 이어 문장가로 세상에 이름을 드날렸고 차를 좋아했다.

그의 소회(小會)에는 항상 승려들이 참여하였으며 그를 따르는 수행자들도 많았으니 이는 수많은 승려들의 시권(詩卷)에 제문(題文)을 짓고 승려들과 창수한 시가 유독 많았던 연유였던 셈이다. 물론 그가 근체시(近體詩)에 능했던 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그는 승려들을 찾아가 교유하기를 좋아하는 벽(癖)이 있었다. 세상사가 모두 일장춘몽(一場春夢)이라는 원리를 그는 일찍부터 알았던 것일까. 그의 발길이 미친 곳만도 금강산의 여러 암자뿐 아니라 한양 근경의 우이동과 운주사(雲住寺), 관악산사가 있고, 부서의 선암사(府西禪庵寺), 범어사(梵魚寺), 통도사(通度寺), 안심사(安心寺), 천마산 불교암(天磨山佛敎庵), 적석사(積石寺), 전등사(傳燈寺), 정수사(淨水寺), 문수사(文殊寺)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으며 그와 교유했던 승려들의 수만 해도 60여 명이 넘어 보인다. 특히 〈정 승려의 시권에 서경의 시를 차운하여 짓다(正上人詩卷 次西坰韻)〉는 그가 승려들과 교유하기를 좋아했던 일단(一段)을 드러낸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대 산중에서 왔다가(蹔從山中來)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네(還向山中去)
내 본래 산중의 객이었기에(我本山中客)
산중의 벗에게 보답함이라(爲報山中侶)
산중에는 그윽한 일 많아서(山中幽事多)
속인과 더불어 말하기 어려우리(難與世人語)
깊은 산중에도 꽃은 피었다가 떨어지리니(巖花開又落)
사계절 운행은 절로 그런 것이라(四時自成序)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5호 '이안눌청룡암시목판'. 이안눌은 동래부사 재임 시 자주 범어사를 찾았는데, 당시 범어사 혜창 스님이 시를 한 수 지어 바위에 새길 것을 요청하자 시를 써 새긴 것이 '청룡암시'다.
사진출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18세 초시에 장원, 명성 크게 떨쳐
집무실에 '不易心' 편액 걸어놔
혼란의 변고로 유배생활 보냈지만
다시 벼슬길 올라 보국충정 실천
교유한 승려만 60명, 근체시 능해



이안눌의 초상화.



이안눌의 저서 〈동악집〉.
사진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명리의 관계는 어지러워서(擾擾名利關)
오래 머물 만한 곳이 아니라(不可以久處)
산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온다하더라도(歸去來山中)
끝내 그대를 저버리지 않으리(終當不負汝)

이 시는 〈동악집〉 '동사록(東槎錄)'에 수록된 것인데 이는 신축(辛丑, 1601)년 11월 18일부터 이듬해 3월 3일까지 지은 시를 수록했다. 따라서 그가 정 승려의 시권에 시를 지은 시점은 1602년 1월 14일경이므로 이들의 교유는 오래된 사이인 듯하다. 특히 "원래 산중의 객이었기에 산중의 정 승려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 스님의 시권에 시를 쓴다는 그의 속내는 이 시의 행간 속에 오롯이 배어난다.

이외에도 우이동 송계에서 수행하던 혜정 노스님과는 오래도록 교유했던 지기(知己)로 멀리 떠나는 이안눌의 위해 짚신을 선물한 정황이 드러난다. 〈사혜정장노기혜(謝惠晶長老寄鞋)〉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멀리 산중에서 두 켤레 짚신을 보냈으니(山中遠寄兩芒 y
바로 이는 (내가)관직을 떠나 서쪽으로 갈 때라네
(正是解官西去時)
아름다운 송계의 숲 속을 찾아갔더니(好向松溪訪林壑)
좁은 돌길 어느 곳이든 혜정 스님이 생각나네
(石蹊隨處憶吾師)

송계는 우이동(牛耳洞)에 위치한 계곡이라(松溪在牛耳洞)하였다. 당시 혜정 스님은 송계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안눌에게 짚신뿐 아니라 신감채(辛甘菜, 승검초)를 보내기도 하였다. 한때 우이동에서 수행하던 혜정 스님이 노후에는 범어사에서 수행했는데 이들의 우정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이안눌의 시 〈정화상이 공양을 준비해 주었기에 시로써 답례하며(晶和尙設飯 詩以謝之)〉에서 "오래된 사찰, 범어사에(梵魚古精舍)/ 노승의 이름은 혜정이라(老僧名惠晶)/ 내가 그 방에서 묵으니(我來宿其房)/ 새벽에 일어나 밥과 국을 준비했지(晨起具飯羹)"라고 한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그는 혜정 노스님의 제자일 것이라 추정되는 범어사 승려 지안(智安), 묘전(妙全), 도원(道元) 등과도 깊이 교유했던 흔적이 보인다. 따라서 그는 승려를 찾아 사찰을 주유했던 유학자이며 관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그의 성향은 〈천집 승려의 시를 차운하여(次天緝上人韻)〉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소 승려 찾기를 즐겨하는 벽이 있었지만(平生性癖喜尋僧)
그대 같이 소쇄한 승려를 본적이 없었네(蕭 灑師見未曾)
어찌하면 봄바람이 옷깃에 불어와(安得春風拂衣去)
함께 올라 모두 신흥으로 들어 갈까나(共登皆骨入神興)

이 시의 말미에는 "신흥은 절의 이름으로 지리산에 있다(神興 寺名 在智異山)"는 부제가 있다. 따라서 천집 승려는 지리산의 신흥사에서 수행했던 승려였다는 사실을 밝혀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그는 천집 승려가 소쇄한 수행자였음을 드러냈고 "그대 같이 소쇄한 승려를 본적이 없었네"라고 하였다. 이는 천집 승려의 수행력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의 불교에 대한 안목은 그의 시문에 드러나는데 이는 〈(시를)써서 영수 승려에게 보이다(書示靈樹上人)〉라는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서로 만나서는 말이 없다가(相逢亦無語)
이별하면 곧 서로 생각하네(相別卽相思)
이 마음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此意果何意)
그대는 알지만 나는 모른다네(爾知吾未知)
들판의 구름, 검기가 먹빛과 같고(野雲濃似墨)
강가에 이슬비, 실처럼 가늘구나(江雨細如絲)
마음과 그 경계가 모두 고요하니(心與境俱寂)
봄바람이 버들가지에 나부끼는 듯(春風吹柳枝)

서로 만나도 말이 끊어진 상태, 그러므로 그는 말의 허무함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무언(無言)은 서로의 진심을 드러내기에 족하다. 그러므로 이들의 속 깊은 정은 깊고도 깊은 것이다. 더구나 그는 마음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계선상이 모두 고요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니 이는 분명 삼매를 터득했던 선비였던가. 그러기에 "봄바람에 버들가지 나부끼듯" 분별없는 경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아마도 그의 벽(癖)은 무루(無漏)를 이루게 한 원력이었을 것이며 도처의 사찰을 조견했던 인연이나 수많은 승려들과의 나눈 교유의 공덕은 분명 전생의 숙연(宿緣)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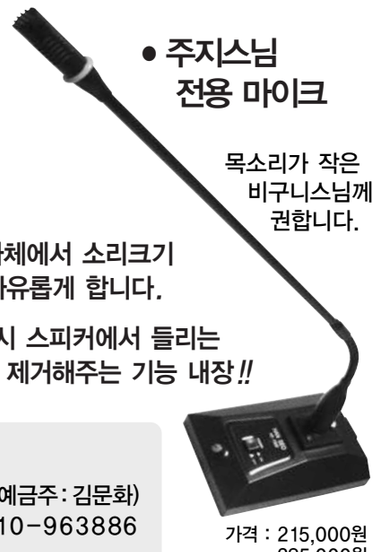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경 축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월 10만원 (3개월 선납시 10% 할인)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니까야서 길을 묻다 7. 계율 정신의 근원④

계(戒)는 도덕성의 완성

지금까지 '계율정신의 근원'을 찾아보기 위해 니까야에 나타난 부처님의 생각을 더듬어 보았다. 불교 밖의 사유체계와 소통하기 위해서 '계율정신'이라는 말을 썼지만, 불교 안의 사유방식으로 말하면 계(戒)와 율(律)의 의미는 다르다.

'계(戒)'는 팔리어 '실라(sīla)'를 번역한 말로써 '습관, 성격, 도덕적 행위, 도덕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이 강조한 계율 정신에 토대하면, '실라'는 현대의 '도덕성' 개념에 가까운 말인 것이다. 여기서 도덕성이란 나와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행위, 오염이 아닌 청정함을 일으키는 행위를 비롯하여 궁극적으로는 해탈과 열반을 지향하는 길에 필요한 첫 번째 자산이 바로 '도덕(戒)'이라는 확신에 기초한 인식과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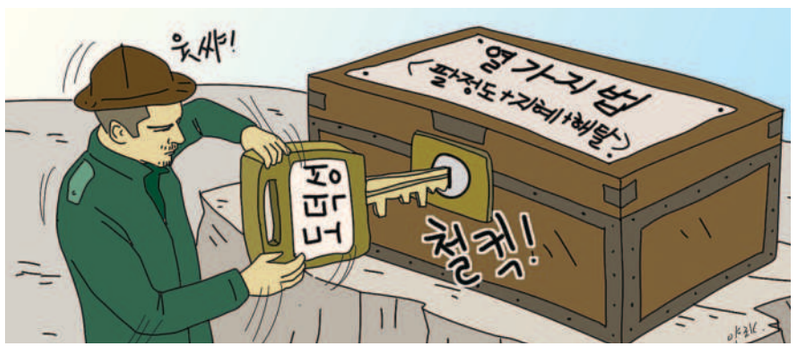


그림 · 양경수

이에 반해 종교 일반의 '율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 특정한 종교 안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의미하는 말이 율(律, vinaya)이다. 구체적으로는 승려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규범 그리고 교단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일련의 규칙을 율이라고 한다.

〈맛지마 니까야〉 제78 '사마나만디까' 경에는 재가자인 '판차캉가'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건축 일을 하던 재가불교도로서 하루는 이웃 종교의 수행자인 '욱가하마나'를 만나게 된다. '욱가하마나'는 '판차캉가'가 불교도라는 사실을 알고서 최상의 수행자가 될 조건으로써의 네 가지 법을 제시하며 자기 종교의 계율관을 가르친다. 네 가지 법이란 신체로써 나쁜 행위를 하지 않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으며, 먹고 사는 일에 잘못된 선택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비판은 매우 단호하다. 그들의 견해는 마치 몸을 뒤집지도 못하여 누워서만 지내는 갓난아이와 같다고 일축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몸으로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악한 의도를 품지 않고 악한 생계를 꾸려가지 않는 것, 이 네 가지 원리만으로 도덕성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은 한마디로 미성숙한 견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생각한 도덕성의 완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것일까? 이 경전의 끝부분에서 부처님은 '열 가지 법'을 별도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욱가하마나'가 제시한 '네 가지 법'에 비해 더욱 훌륭한 법으로써 불교적인 도덕성의 완성으로 이해하기 쉽다. '열 가지 법' 중에서 여덟 가지가 바로 '여덟 가지 적절한 수행의 길(八正道)'이고, 나머지 두 가지도 바로 지혜와 해탈이기 때문에 불교수행의 근간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계율정신인 '도덕성의 완성'을 지향하는 정신의 본연을 찾고자 한다면, 열 가지 법을 헤아리기에 앞서 '욱가하마나'의 주장에 대해 부처님이 반론을 펼치면서 보여준 사유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이 '불건전한 도덕적 행위'이고,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고, 어떻게 소멸하며, 소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한다. 다시 '불건전한 의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참된 도덕성에 대한 성찰을 심화시킨다.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며,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성취하기 위해 그 방법의 길을 모색하는 사유의 여정에서 참된 도덕성을 성찰하는 태도야말로 계율 정신의 본연을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계율 정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구현한다면 계율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50여년 걸어온 禪寫一如의 삶…

〈선사일여〉

산문 밖의 禪
육명심 사진가



"선(禪)을 아는 사람이 시를 쓰면 그것이 곧 선시이고, 선을 아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곧 선화죠. 그리고 선을 아는 사람이 사진을 찍으면 그것이 선사진인 것이죠." 50년 동안 사진가로 살아온 노장은 그렇게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열고 있는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사진부문 첫 전시 육명심 전(2015. 12. 11~2016. 6. 6 과천관)'의 주인공 육명심(84) 사진가이다.

20여 년 동안 참선을 해오고 있는 그가 그동안의 작업을 통해 들은 한소식을 전한다. "선사일여(禪寫一如)." 선과 사진이 같은 세계라고 말하는 그가 그 한소식을 듣기까지의 이야기다.

그리움의 땅, 서방정토

"이 나라에서는 하늘이 곧 사원의 천장이다. 그리고 국토의 전역이 그대로 사원의 마룻바닥이다. 이렇듯 티벳은 마치 거대한 하나의 자연사원이라고나 할까. 그러니 일단 티벳에 입국하면 어디를 가나 우리는 사원의 경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셈이다."

그의 사진집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하 '하늘과 땅이')〉의 '들어가는 글'에 이어지는 흑백사진 속에는 흑백으로 치환된 티베트의 푸른 하늘이 천장처럼 드리우고, 작은 사원의 돌담 한 쪽이 광활한 대지와 이어진다. 그 대지 끝에서 카일리스산이 하늘과 이어지고, 그 능선에서 불어온 바람이 돌담 위에 걸린 오색 타쵸르의 염원들을 읽고 지나간다. 〈하늘과 땅이〉는 그가 1997년부터 작업해 온 티베트와 부탄, 라다크에서 찍은 사진들을 묶은 것으로, 그의 사진인생 50년을 정리하는 이번 전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작품들이다. 하지만 〈하늘과 땅이〉의 사진들은 그에게 있어 보다 더 특별하고 각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티베트는 더욱 그렇다.

"내가 일곱 살 나던 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시 아버님은 출가한 스님이셨기에 절에서 다비식을 치렀어요. 아직 젊은 나이셨죠. 그리고 나선 어머님 손에 이끌려 저는 절에 가곤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님께 여쭈었죠. 돌아가신 아버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어머니가 답하시기를 아버님은 아주 먼 서방정토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디에 있냐고 다시 여쭈었더니, 어머니는 해가 지는 서쪽으로 가고 또 가면 그곳이라고 하셨죠. 그 후 저는 해가 지는 황혼녘이면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 후 서방정토의 뜻을 알았고, 너무나 아득히 먼 곳으로 느껴졌어요. 좀 더 성장한 후에 불교의 세계에는 수미산이 있으며, 먼 서쪽 티베트에 수미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면 아버님이 가신 서방정토에 이르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품게 됐죠. 이때부터 티베트는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고픈 나라가 되었어요." 그는 예순다섯 되던 해인 1997년에 처음으로 그리움의 땅 티베트를 밟는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사진인생에서 또 하나의 시대를 만들기 시작한다. 선사일여.

육명심 사진가는… 1932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1952년 대전사범대학과 1960년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대전 대성고교와 서울 배재고교 영어 교사를 지낸 후 1972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 예술대학) 사진과 대우교수로 부임했다. 1975년 신구전문대 사진과 창설 교수로 부임했고, 1981년에는 서울예술전문대학 사진과 창설 교수로 부임했다. 1999년 서울예술전문대를 정년퇴임 한 후 2년간 숙명여대 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그리움이 종교가 되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일곱 살 때 절에서 전해온 선친의 유품인 목탁과 표주박, 회중시계가 그가 경험한 유일한 선친의 흔적이다. 그의 선친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속리산의 한 암자에 사미로 출가했다. 세간에서의 명(命)이 짧을 것이라는 점괘 때문이었고, 그 운명을 비켜가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그의 선친은 출가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의 선친은 삼형제 중 막내였는데 두 형님들이 모두 대를 잇지 못했다. 집안의 대가 끊길 판이었다. 선친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환속하여 앞서 말한 어머니와 혼인을 하게 된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선친은 혼인한 지 반년이 채 안 됐을 때,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명심(明心)'으로 지으라는 쪽지 한 장만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소식을 끊는다. 후에 돌아온 선친의 유품이 절에 있었던 걸로 보아 선친은 출세간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심'이라는 그의 이름은 불가로부터 받은 불명(佛名)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로부터 불명을 받아 태어났으며, 그렇게 태어난 그의 몸과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는 불가적(佛家的) 내림이 깃들어 있었다.

우선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분명 존재했으나 본 적이 없는 아버지. 본 적은 없으나 자신의 이름 속에 분명하게 관여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메시지가 불치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런 그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그를 불가의 마당으로 이끌었다. 그렇게 그의 종교는 그리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으며, '명심'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절에 가는 일이 마치 학생이 학교에 가는 일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우면서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운 아버지를 보러 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손을 이끌었던 그의 어머니 역시 그리운 남편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어머니의 종교 역시 그리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한 여인은 남편이 그리워 절에 가야했고, 어린 소년은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했던 것이다. 두 사람의 종교는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완성되어 갔다.

이루지 못한 출가

남편과 아버지의 부재는 한 여인과 소년에게 어쩔 수 없는 '결핍'의 짊을 지게 했다. 그의 어머니는 행상으로 집을 나가있는 날이 많았고, 그로 인해 소년 육명심은 큰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다. 큰집이라고는 하나 친부모의 그늘과는 다른 그늘이었다. 밥은 먹었으나 사랑과 관심은 맛 볼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시대적 상황이 삶의 8할을 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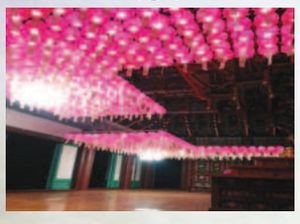
사찰고급연등 · 자동승하강시설

2016연등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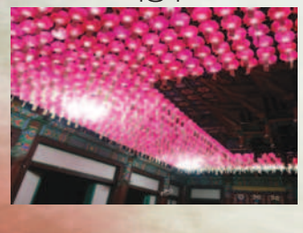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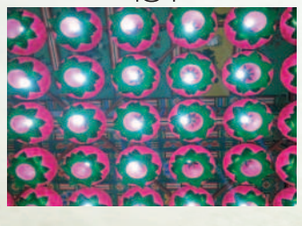
시공전 시공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시공후

| 자동승하강장치 설명 |

자동승강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고정으로 설치된 연등에 맞게 프레임을 제작하여 모터에 연결해 상하로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자동승하강장치의 장점 |

1. 발원등표 교체가 편리합니다.
2. 법당이 넓고 화려해보입니다.
3. 법당내 구조와 면적에 비례하여 프레임을 제작하기 때문에 연등의 오와 열 정렬이 확실합니다.
4.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를 책임집니다.
5. 아무나 조작할수 없도록 스위치에 잠금장치가 있으며 안전합니다.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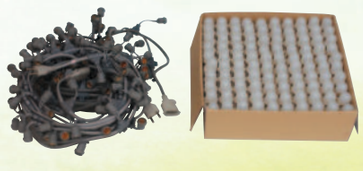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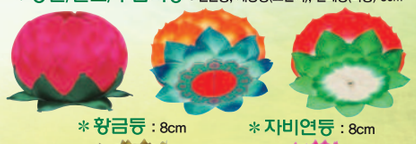
▶설화등 : 다홍, 연분홍 8cm

▶고급 칼라연등 : 보라, 다홍, 오렌지 8cm

▶가야 궁단등 : 다홍, 보라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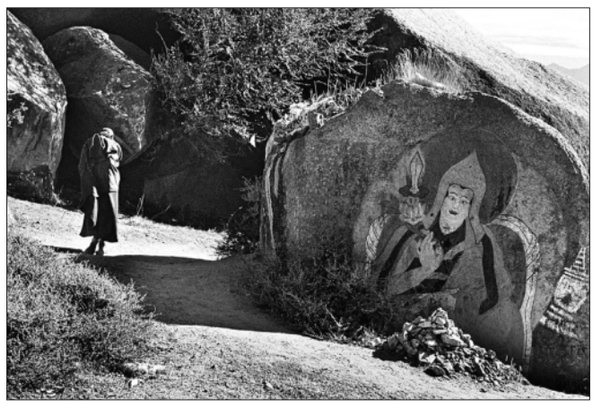
▶비닐만월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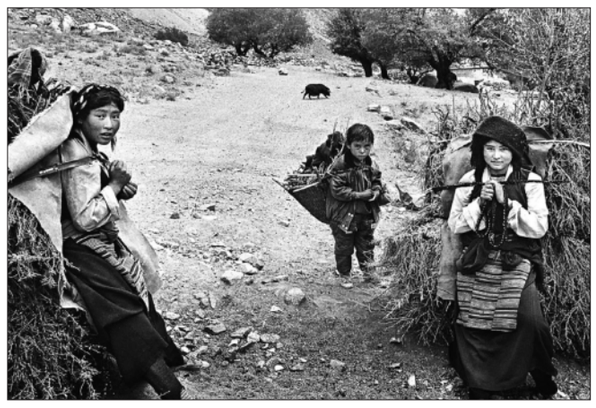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가격할인예외품목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 야 기 획 ※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사진은 피사체와의 소통과 교감”





사진집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실린 작품들로 티베트, 부탄, 라다크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여행자의 눈이 아닌 현지인의 눈으로 찍은 사진들이다. 작가는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보다 자연의 위대함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훨씬 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운데 사진은 참선하는 육명심 사진가.

있던 시절이었다. 친부모의 그늘에서도 꽃 같은 사랑과 바다 같은 관심은 쉽지 않은 시대였다. 소년 육명심은 외롭게 컸다. 어린 소년의 고독은 모든 것을 그립게 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져갔다. 그것은 그의 종교 또한 막연함을 벗어나 구체적인 종교로 커가고 있음이었다. 남다르게 심어진 종교의 씨앗은 이른 시간에 싹을 틔웠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출가에 대한 발심을 한다. 크레용으로 그린 부처님을 운동화 상자에 모시고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부처님을 바라보았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아들의 대답은 역시 ‘스님’이었다. 불가에 남편을 묻은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무너져 내리는 듯한 어머니의 얼굴을 본 아들은 발심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출가란 뼈저린 고독으로부터 온 메시지 같은 것이었다. 운명처럼 지니게 된 그의 불가적 모색은 또 다른 운명에 의해 갈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는 그때 이미 출세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깊은 고독으로부터 온 발심. 그것은 그가 이미 불가의 문자를 읽었다는 뜻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 출가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불가의 문자를 읽어낸 초등학교 5학년 육명심의 눈과 마음이 지금의 사진가 육명심의 눈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그의 사진이 단순히 현실을 담아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한 장의 사진 속에 지나간 시간의 여운과 다가올 시간의 짐작이 공존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그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예술의 영역이 그렇지만 특히나 그의 사진은 언어로 설명하기 힘들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의 사진이다. 언어가 있기 전의 자리와 언어가 지나간 자리에서의 ‘주고받음(소통)’이 그의 사진임을 볼 때 그의 사진세계를 만들어내는 그의 눈과 마음은 언제인지 모르나 불가의 문자를 읽어낸 것이 분명하다.

“사진은 표면의 기록이 아닌 대상과의 소통”

사진가 육명심은 한국 사진사(寫眞史)에서 예술사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던 1960년대에 사진을 시작했다. 서른셋에 결혼한 그는 아내가 혼수로 가져온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는 카메라를 잡은 지 2년 만인 1966년에 제1회 동아국제사진살롱에서 입선하며 사진계에 정식으로 입문하게 된다. 그 후로도 각종 콘테스트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그는 당시 국내 사진계의 주류를 이루던 리얼리즘 경향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을 통해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다루는 작업을 선보인다. 그런 그의 시선은 1980년대 한국현대사진의 본격적인 시작과 이어진다.

“사진은 표면의 기록이 아닌 사진에 찍히는 대상과의 소통이다”고 말하는 그는 국내 사진계에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이론가이자 독특한 교수법으로 걸출한 제자들을 길러낸 교육자이기도 하다.

그의 사진은 모두 흑백이다. 표면의 기록이 아닌, 대상의 궁극과의 소통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소통과 교감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낸다. 그가 색깔을 덜어낸 흑백을 고집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테마를 잡으면 몇 년에 걸쳐 그 한 가지 테마만을 찍는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만나도 정해놓은 테마에서 벗어난 것은 찍지 않는다. 〈백민(白民)〉, 〈검은 모살뜸〉, 〈장승〉, 〈예술가의 초상〉,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등 그의 시리즈는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 그것 역시 제대로 된 소통과 교감을 위해서다.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가지에만 전념할 때 그 대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서두에 말한 선사진에 대한 신념과 그가 불가의 문자를 읽어낸 증거를 볼 수 있다. 한 가지만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 그것은 선으로 가는 길과 닮았으며, 불가의 문자와 닮았다. 그는 그렇게 사진을 하며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사일여’라는 한소식은 결국 그가 5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었다. 길이 다시 길을 내고 그 길이 또 다른 길을 내어 한소식에 다가간 것이다.

그는 1999년 서울예술전문대학에서 정년퇴임한 후 본격적으로 티베트와 부탄, 라다크 등 불교를 땅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을 찾았다. 그는 ‘선사일여’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늘과 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테마는 ‘1700년 한국불교’라고 말했다. 〈하늘과 땅이〉는 한국불교를 찍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십여 년 간 티베트와 그 주변 지역들을 참 많이도 찾아다녔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제는 이 긴 여행의 자락을 접으려 한다. 중국 본토와 티베트를 잇는 철도와 도로가 잇따라 개통되면서 티베트 고유의 문화와 종교가 속절없이 파괴되었다. 게다가 이제는 경제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된 물질문명이 이 신성한 땅을 무서운 속도로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 〈중략〉 그리하여 그동안 이곳과 맺었던 인연과 추억을 한 권의 사진집으로 봉인한다. 아무쪼록 불국토의 나머지 나라들이 티베트의 비극을 되풀이함이 없이 그들의 소중한 정신적 유산을 고스란히 지켜나가기를, 그래서 여기 실린 사진들이 지나가버린 날들의 한낱 전설로 남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가 1700년 한국불교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은 이유도 위와 맥을 같이 한다. 이 땅의 밑그림이며 기둥이며 지붕 같은 1700년을 이 땅에 머물렀던 인연으로 회향하고 싶은 것이다. 그는 오늘도 새벽 2시 50분에 어김없이 눈을 떴다.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와 만난다고 했다. 매일 먼 우주에서 돌아와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또 다른 우주를 향해 나가는 그의 눈 속에 잔잔하게 한 소식이 들려온다. “선사일여.”

박도일 수필가 doil3012@daum.net

‘명심’ 이름 주고 간 선친은 스님

평생 못 보고 7세 때, 부음 들어
고독한 유년 살며 선친 그리워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종교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출가발심
어머니의 만류로 출가 못해

독특한 시선 한국현대사진 이끌어

아내의 혼수 카메라로 사진 시작
콘테스트 입상하며 사진계 입문
한 가지 주제에 오랜 세월 몰두
선과 닮아 ‘선사일여’ 깨달아
20여 년간 새벽 2시50분 기상 참선
마지막 주제는 1700년 한국불교

전법일기

“우리 애가 우엉을 저리 잘 먹다니”

요즘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살펴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다.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달고 기름지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줄 꿴다. 왜 아이들은 순하고 맑은 음식은 ‘맛없다’고 여기고, 달고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맛있다’고 느낄까. 가끔 엄마들에게 제철채소 반찬을 아이들 밥상에 올리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원래 안 먹어요”라고 답한다. 과연 아이들의 입맛은 ‘원래’ 그런 것일까.

몇 년 전부터 여름방학마다 초등학교 급식 영양사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찰음식을 기반으로 한 급식레시피 개발이 목적이지만, 많은 영양사들이 나의 강의를 듣고 ‘음식’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한다. 정년이 2년 남았다는 한 영양사는, 지금껏 잘해왔는데 왜 이런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좀 짜증이 났다고 했다. 그런데 음식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과도 관련이 깊고, 특히 아이들의 성품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랐다고 했다.

“스님, 저는 아이들이 밥을 남기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로 튀기거나 달고 짠 반찬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스님 강의 듣고, 좋은 음식을 잘 먹게 하는 게 더 중요함을 알았어요. 언젠가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중학생이 되어 만났는데 비만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제가 만들어준 음식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구나, 생각되네요.”

“바르게 알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지요.”

“네. 스님, 말씀이 옳아요. 남은 2년 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입맛은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것임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최근 안국동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유치원, 초등학생과 엄마들을 모아 ‘미각 교실’을 열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러 온 아이들은 한껏 들떠 소란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합장을 하게 하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은 우주의 좋은 기운을 담아 나와 내 주위를 비춘다’라고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얼른 두 손을 오므리며 눈을 감았다. 바르게 설명해주면 그대로 따르는 마음이야말로 아이들의 본래 심성이다. 그 본성을 모르는 어른들은 ‘우리 애는 원래 안 먹어요. 단 걸 좋아하고 고기만 먹어요.’하면서 입맛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날 실습한 요리는 우엉당근주먹밥, 아이들이 싫어하는 채소다. 나는 기다란 우엉 뿌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우엉은 햇빛과 빗물을 먹고 땅 속 깊숙이 자란답니다. 어두운 땅 속에서 자라려면 참을성이 있어야겠지요? 스님이 조금 전 ‘자연과 나는 하나’라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우엉을 먹으면 우리도 인내심이 생긴답니다. 자, 이 우엉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그림 · 박구원

왁자한 대답 속에 누군가 “지팡이요!”라고 말했다. 맞다. 지팡이. 노인의 발이 되어주고 삶의 버팀목이 되는 지혜의 물건! 좋은 답이라고 칭찬한 뒤에 이어서 말했다.

“맞아요. 우엉은 지팡이처럼 우리를 씩씩하게, 지혜롭게 해준답니다. 자, 이제 두 눈을 꼭 감고 우엉을 꼭꼭 씹으면서 우엉을 키워낸 땅과 물, 바람, 햇볕, 농부의 손을 생각해봐요.”

시종일관 까르르, 와하하 웃음 속에 진행된 미각 교실이 끝나고, 엄마들의 뒷담이 귀에 들려왔다. “우리 애가 우엉을 저렇게 잘 먹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중생들에게 대화로써 깨달음을 설한 부처님의 가피가 오롯이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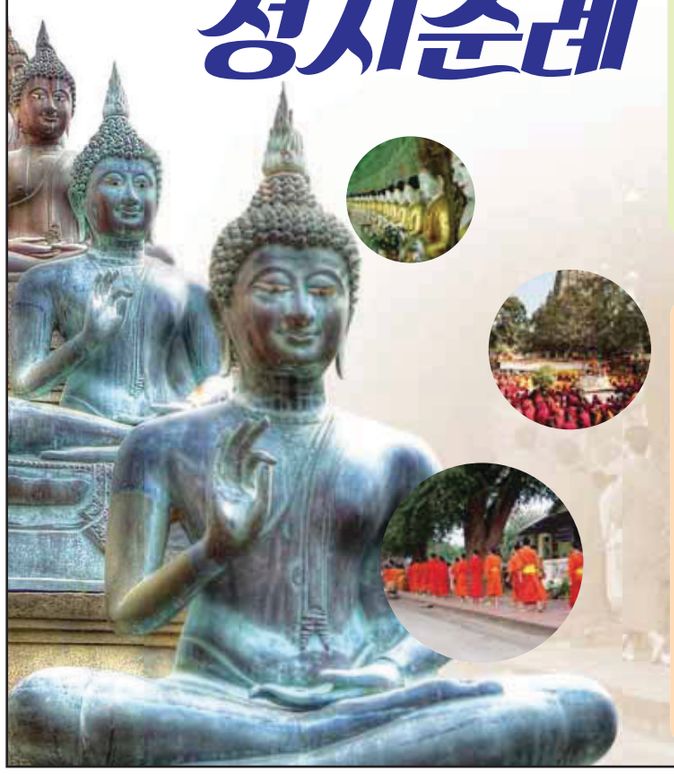
선재 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마하연여행사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긴급 모객 상품
미얀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출발일 : 3월 30일, 동참비 : 209만원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천불 천탑의 신비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삔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4대 불산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동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훼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나란다–라즈기르–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스라바스티–산카시아–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폴로나루아–마탈레–캔디–콜롬보–뭄바이–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쉬라바스타–룸비니–카트만두–나가르콧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동티벳 9일
성도–문천–마얼킹–통달(오명불학원)–백목(야칭스)–깐딩–성도

마하연의 특별함
01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02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03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04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

중생의 경계는 '生滅因緣'서 시작된다

〈생멸인연〉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중생의 경계는 모두 생멸인연에서 시작된다. 생멸인연이란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이다. 본래 생멸을 여읜 진여 곧 각(覺)이 불각(不覺)여 연(緣)을 만나 움직이는 것이니 이때 각이 인(因)이 되고 불각이 연(緣)이 된다. 물이 바람에 의해 움직여 파도가 되는 것처럼 진여가 움직여 아려야식(阿黎耶識)이 되는데 아뢰야식에 의해 다시 의(意)와 의식(意識)이 전개되면서 능견상과 경계상이 생겨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주관과 객관이 상대하면서 경계를 취하고 경계를 취하여 생각을 이어가는 것을 의(意)라 한다. 마치 물이 흘러가면서 물줄기를 이루는 것과 같이 생각이 앞뒤로 이어지는 상태가 바로 의(意)이다.

이 같은 의를 기신론에서는 다섯 가지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명의 힘에 의하여 불각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업식(業識)이고 이에 의해 주관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전식(轉識)이라고 한다. 능동적으로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자 하는 이 전식이 능히 객관경계를 나타낼 때 현식(現識)이 된다. 마치 거울이 색상을 나타내 주는 것 같다. 오관(五官: 眼, 耳, 鼻, 舌, 身)이 그 대상(色, 聲, 香, 味, 觸)을 만날 때 나타내되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인 선후가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끊임없이 경계를 나타내 주는 식이다.

마음 의지한 현상은 비실재적

"일체법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망령된 생각으로 차별 생긴다"

이상의 세 가지 식은 시간적으로 단멸이 없기 때문에 아뢰야식 곧 본식에 속한다고 원효의 해동소에서는 밝히고 있다. 또 이 세 식(識)은 지말불각(枝末不覺)을 설명할 때의 삼세(三細)에 해당한다.

다음 지식(智識)은 육추(六 麤)의 지상(智相)으로 대상에 대하여 깨끗하고 더럽다는 등의 분별을 일으키는 식이다. 또 이 식을 제7식 말나식(末那識:manas)으로 보는데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고집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치(我癡: 나를 모르는 어리석음), 아견(我見:나를 내세우는 고집), 아애(我愛:나를 애착하는 생각), 아만(我慢:나에 대한 교만) 등이 모두 식(識)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속식(相續識)은 상속상(相續相)을 식(識)으로 말하는 것인데, 어떤 객관적 사물이나 또는 어떤 개념에 대한 관념이 항상 마음속에 숨어 깃들어서 오랫동안 지속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식(識)은 사량(思量)으로 말미암은 번뇌(愛取煩惱)를 일으키기 때문에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행위의 결과를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게 하며, 또 하나의 번뇌가 다른 번뇌를 조장하여 번식시켜 가는 윤생번뇌(潤生煩惱)를 일으켜 과거의 업에 대한 과보를 계속 일으켜 조금도 어긋남이 없게 한다.

이리하여 과거 · 현재 · 미래를 통해 인과(因果)가 유전하여 끊어지지 않게 된다. 앞의 지식(智識)과 상속식(相續識)의 차이는 지식은 미세한 분별을 기능으로 하는 반면 상속식은 매우 조잡(粗雜)한 분별을 일삼는다. 그러므로 상속식을 일반적 의미의 의식의 범주 속에 넣는다.

이상과 같은 이론에 입각해 삼계(三界)가 거짓된 것이며 오직 마음이 빚어낸 바라(三界虛假 唯心所造)라 하였다. 마음을 의지하여 일어난 현상의 세계는 모두 생각이 지어낸 결과로 비실재적인 것이다. 욕심에 의해 빚어진 세계(欲界)나 물질과 형상의 세계(色界)나 관념이나 정신의 세계(無色界)가 모두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로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경계도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기신론은 중요한 결론 하나를 내린다. 일체법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망령된 생각에 의해 차별이 생기므로 결국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모든 존재의 중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빚어낸 경계가 마음 밖에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본체는 능견과 소견의 상대가 벌어지는 게 아니어서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 보여지는 대상인 객체가 없기 때문에 자심을 분별하는 분별이 헛된 것이므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마치 꿈속에서 무엇을 보는 경우 실제로 보는 바가 아니므로 보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마음을 따라 생기고 마음을 따 없어지는 존재의 허망성이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影像)과 같아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화엄경에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하여 모든 존재의 생멸이 마음에 의해 있는 것이라 하였다.

보시는 '福田' … 공덕은 대지와 같아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⑨ 보시의 공덕

所以名一切 大悲心普故
(소이명일체 대비심보고)
大悲所以普 為求種智故
(대비소이보 위구종지고)
施佛及羅漢 世名良福田
(시불급나한 세명량복전)
不悲平等施 是為最勝施
(불비평등시 시위최승시)
無量財寶施 不如暫止息
(무량재보시 불여잠지식)
悲心施一人 功德如大地
(비심시일인 공덕여대지)

번역

소이 일체라는 말은 대비심(大悲心)으로 널리 베푼다는 것이니, 대비심으로 널리 베푸는 까닭에 지혜의 종자를 구하게 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아라한에 이르기까지 세속에서는 선량한 '복을 심는 밭'이라고 하나니, 자비와 평등한 마음의 보시가 아니어도 이것은 가장 수승한 보시가 됩니다.

한량없는 재물로 보시할지라도 탐욕을 그치고 번뇌를 쉬는 것만 못하지만, 자비심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보시하면 공덕이 대지(大地)와 같습니다.

해설

보시하는 마음은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해탈의 길이다. 〈연기경〉에서는 감수 작용을 통해 애착이 생긴다고 하였다. 내게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일 리가 없고,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게 지금 내 것처럼 와 있는 것이리라.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내 것이라는 감수 작용을 일으키고, 욕구와 탐욕을 일으키고, 다시 집착심을 만든다.

〈연기경〉을 살펴보면, 집착에 의해 소유가, 소유에 의해 인색함이 생기며, 인색함을 인연으로 하여, 보호하려고 칼을 잡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을 하는 온갖 선하지 않은 법 등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보시가 아니고서는 이런 온갖 불선법(不善法)을 어찌 떨쳐낼 수 있겠는가.

물질에 집착한 가련한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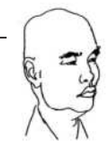
대비심의 보시, 지혜를 얻는다

〈대인연경〉을 보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실로, 각자 열반에 든다'고 하였다.

우리는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이웃과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죽음에 이르면 누구나 어차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다. 차라리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럽다. 인간은 인간에 기대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집착과 그 물질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삶은 가엾지 아니한가?

물질을 얻으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잃고, 시간을 잃고, 사랑도 잃는다. 물질은 얻었으나 그 물질에 집착하여 불행과 두려움까지 따라 얻는 삶을 산다. 사람이 가련한 이유다.

그래서 제바보살이 이르기를, '대비심으로 하는 보시는 지혜의 종자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자비심으로 한 사람에게 보시할지라도 일체에게 보시한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부처님과 아라한은 복전(福田)이다. 복전은 복을 심고 복을 수확하는 곳이다. 비록 자비와 평등심이 부족할지라도 가장 수승한 보시가 된다. 아라한은 오늘날 깨달은 스님들이다. 또는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품앗이 法會

60년대 70년대엔 농어촌은 물론 도시의 빈민들이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왔다.

여기에서의 품은 정신노동이 아닌 육체노동을 의미한다. 품삯은 그날 하루의 노동 댓가를 돈으로 환산해 받는 액수이다. 76년 여름, 강원도 평창군의 월정사 밑 마을 아줌마(아가씨까지 포함)들의 하루 품삯은 단돈 800원이었다. 당시 나는 불교신문사의 기자로 월정사엘 다녀오며 묘목 솎는 한 무리의 아줌마들을 만난 적이 있다. 그날의 감회를 불교신문에 칼럼 형식으로 담아낸 적이 있는데, 불교신문의 합본에서 단돈 800원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당시의 800원을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1달러 40센트 쯤 된다. 품삯을 지불할 수 없는 농어촌에서는 품앗이를 즐기는데 품앗이란 힘든 일을 거들어주어서 서로 품을 지고 갚는 노동력의 상호교환을 뜻함이다. 이런 행위를 품을 지고, 품을 갚음으로 표현해 왔다. 그런데 요즘 조계종 상당수의 사찰에서 품앗이 법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명인즉 신도 숫자가 해마다 줄고 있고, 사찰경제가 넉넉지 않아 유명한 스님을 초청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평소 알고 지내는 도반 스님끼리 품앗이 법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사찰의 주지스님이 B사찰에 가서 법회를 맡아 강의해주면 그 다음엔 B사찰의 주지스님이 A사찰에 와서 품갚음의 법회를 맡아 강의한다는 것이다.

신도들이 익히 그 이름을 알고 있을 유명한 스님들이 법회 후 설법의 댓가가 담긴 현찰이 든 두툼한 봉투를 거절과 사양 없이 의례껏 받아 챙겨 간다면 이는 법보시(法布施)정신을 뭉개버린 부끄러운 행위이다.

신도들의 재보시(財布施)에 답례하는 기본적인 행위로서, 상식이 통하는 스님이라면 당연하게 분명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현찰이든 봉투를 거절해야한다. 초청해주어 고맙고 법회를 맡겨줘 감사하다며 개운하고 깔끔하게 법보시(法布施)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떠나야 한다.

2009년 여름이던가 지리산 실상사에서 야단법석을 몇 일간 머물며 연적이 있다. 당시 법사로는 무비 스님, 혜국 스님, 도법 스님과 나까지 포함해 네 명이었다. 당시 나는 250여명의 수강생 앞에서 쓴 소리를 조목조목 열거하며 아픔을 함께했다. 가난한 선원도 많지만 경상도의 어느 선원에서는 해제 후, 선원을 떠나는 스님들에게 1인당 700만원을 주었고 이듬해엔 충청도 어느 사찰의 선원에서는 해제비로 일인당 750만원을 마치 경쟁하듯 나누어 준 사실에 슬픔을 나누었다. 사자암에 인력이 필요해 익산시내의 인력시장에 가면 남자어른 하루 품삯이 그 당시엔 7만원이었다. 그런데 90일 선원에서 정진수행 한 댓가로 700만원, 750만원이 든 봉투를 나누어 주고 그 봉투를 받아 챙겨갔다면 이는 불교도는 물론, 온 국민이 얼마나 분노와 실망이 크겠는지 자성의 물음표를 던졌던 것이다.

물론 이런 해프닝의 부끄러운 몸짓은 한 두 사찰의 돈 잔치였고, 가난하고 가난하여 해제 후 빈손으로 떠나는 운수납자들이 많았음도 장벽 없는 토론장에서 밝혀졌었다.

설법 댓가 담긴 현금 봉투 거절하고

무주상 법보시가 승가의 기본되길

얼마 전, 백령도의 부명 스님한테서 전화가 왔었다. 도반들끼리 품앗이 법회를 하고 있지만 법보시를 실천하고자 하는 몇몇 도반들이 그 뜻을 함께하는 둘레를 넓혀가고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설명이었다. 며칠 전, 나의 도반 도법 스님으로부터 도반 모임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한 전화가 왔었다. 그때 나는 진지하게 무게감 있게 도법 스님이 주관하는 100인대중공사에서 법보시를 당연히 공론화할 것을 요구했다.

재가자(在家者)는 주는 쪽이고 출가자(出家者)는 받는 쪽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일깨워 준 댓가를, 그것도 유명한 스님들이 세금 거두어가듯 꼬박 꼬박 현금봉투를 챙겨간다면 이는 이솝우화에나 등장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는 슬프디 슬픈 부끄러운 일이겠기 때문이다. 무주상(無住相)보시와 법보시(法布施)의 실현이 승가(僧伽)의 기본이 되길 바랄뿐이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못으로 표현한 禪, 세상을 치유하다

禪과 현대미술
④ 귄터 위커(Guenther Uecker)

무수히 많은 못들이 두꺼운 판을 뚫고 지나가며 둔탁한 소리를 낸다. 시간이 흐르면 점차적으로 개체로서의 못은 사라지고 커다란 집단을 형성하며 스스로의 모습에서 변화를 꾀한다. 이처럼 밀집된 공간에 스스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못을 통한 행위는 하나의 예술작품이 된다. 못은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혀 낯설어 보이는 것들도 못의 역할을 통해 서로의 밀착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모습이 합치된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들어낸다.

귄터 위커(Guenther Uecker, 1930~, 독일)는 'ZERO운동'의 핵심인물이다. 전쟁을 통한 고통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그에게 선(禪)은 새로운 인간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는 안내자가 되었다. 선은 그에게 신선한 바람처럼 자신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개념으로 수용이 되었다. 선의 바람이 강하지 않을 때 그는 심오한 선의 세계를 인지하였던 것 같다. 사람이 스스로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 무수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아픔들을 치유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작품들은 많은 관객들에게 충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희망과 포용을 수용하는 의식으로 전개시켜 나아갔다.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는 깊은 상처로,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히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간다. 자신은 타인을 위한다는 자기 합리화를 강조하지만 그 말을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고 있다.

필자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무수히 많은 말을 한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기도하고, 과장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지적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저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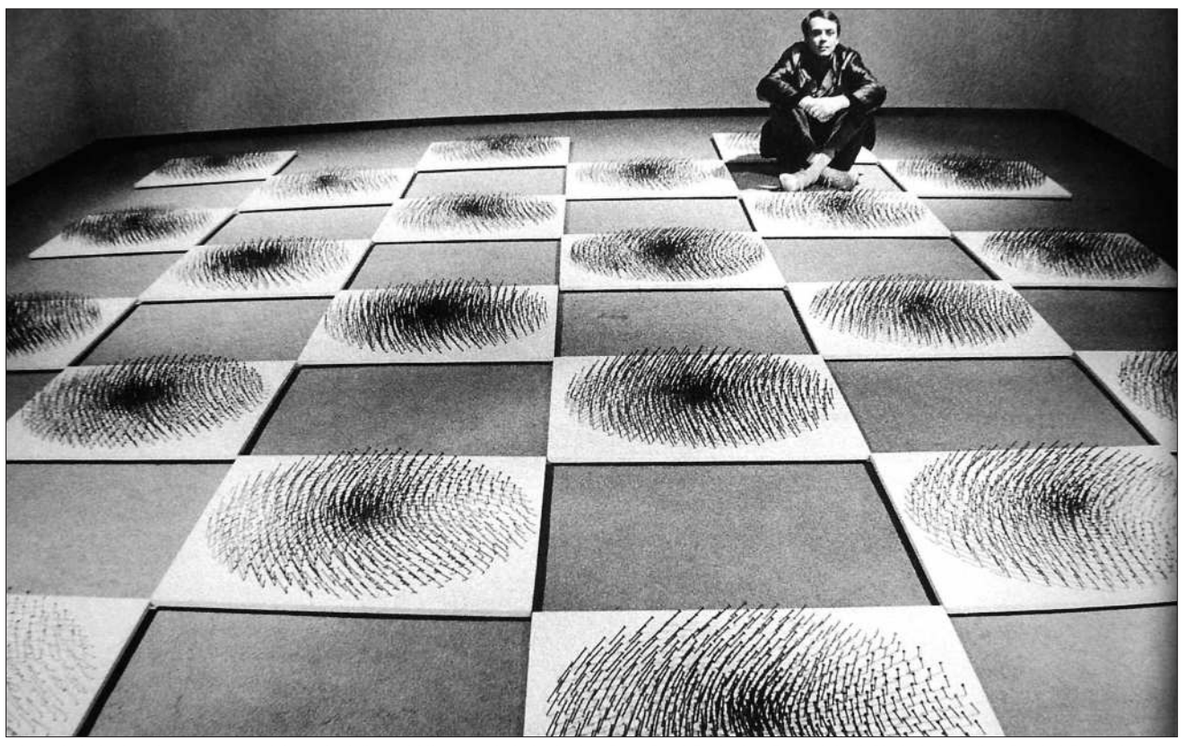
지적인 생각들이 허상이라는 것을 수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독일에 유학을 할 당시 처음 수업시간에 지도교수께서 나에게 한 첫 마디가 '네가 아는 것을 버려라' 였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지적탐구에 천착하여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던 나에게 교수님의 말씀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아는 것을 더욱 축적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아는 것을 버리라니 혼란스럽고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이 유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하는 공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아 끝이 났다.

〈임제록〉에 나오는 '살불살조(殺佛殺祖)'의 가르침을 나의 지도교수께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이미 관념이며 현재의 존재를 망각하는 것이다. 과거의 관점과 시각으로 현재의 새로운 가치를 찾아간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귄터 워커의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들이 드러난다. 자신이 안다고 하는 관념으로 작품을 대하는 관객들을 보면서 더욱 그는 자신의 관점을 버리는 작업을 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못이라고 하는 대상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새로운 관점 즉, 창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름다움(美-물론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미는 전통적인 아름다움은 아니다)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못이라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보는 관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못은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존재성을 버리고 조형적인 요소의 일부분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형상과 가치를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작가의 의도와 생각을 읽을 수 있다. 그가 선택한 못은 현 존재를 인지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현재 자신의 존재방식을 성찰하여 내가 타인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무엇을 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지를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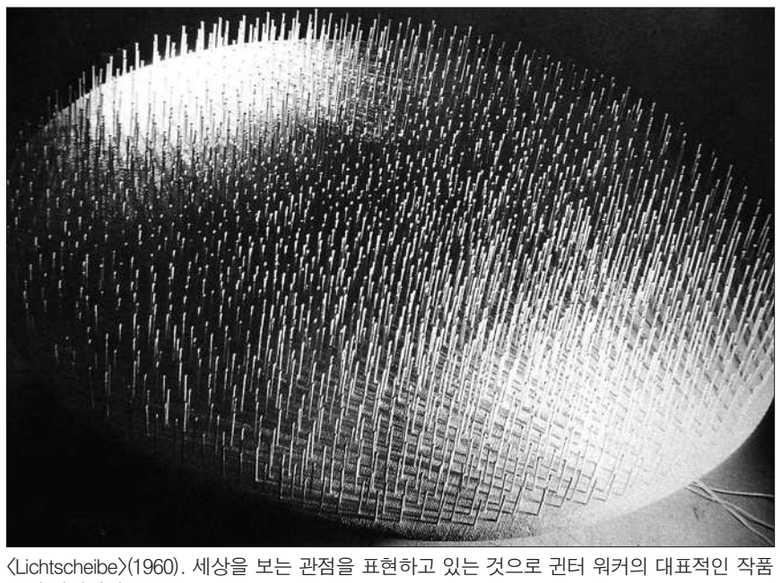
〈Lichtscheibe〉(1960)는 번역하면 〈렌즈〉이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무수히 많은 못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렌즈를 생각했다는 것은 다분히 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허공에 아무리 많은 못을 박는다고 해도 결코 상처를 받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허공을 보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는다. 모든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의 작품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다. 당시에 많은 관객들은 혼란스러워 하며 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작가의 의도와 생각이 커다란 관심과 시대적 변화의 동기를 가져다주었다.


귄터 위커의 작품 〈ZERO Garten〉(1966). '제로 정원'으로 번역된 이 작품은 못을 이용한 작품을 공간속에 확장시키며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독일 '제로 운동'의 핵심적 인물
禪 통해 치유… 작품세계도 영향

주로 못으로 이미지를 형상화해
존재방식 성찰 · 소통 과정 보여줘
"자신의 가치 스스로 인정한다면
어떤 충격에도 상처받지 않는다"


〈Lichtscheibe〉(1960). 세상을 보는 관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귄터 워커의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선에 대한 인지가 크지 않던 시기에 귄터 워커의 작품들은 선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 시대적으로 스스로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착안한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며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세상을 보는 나의 관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통하여 마음의 본래적 가치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본래가 청정하거늘 어떠한 것이 그 청정함을 물들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에서 이 작품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빛(Licht)은 바로 자신의 청정함이다. 자신의 마음에 무명(無明)을 걷어내고 나니 나타나는 그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빛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렌즈라고 명명된 작품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공간의 변화를 인지하는 관점이며 현재의 존재와 의미를 찾아가는 새로운 시각인 것이다.

청색의 렌즈로 보면 세상은 온통 청색이고, 빨강색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온통 빨강색이다. 하지만 자신이 무슨 색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먼저 자신이 어떠한 색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수행이고 깨달음이다. 무수히 많은 색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는 것이 어느 한 가지 색으로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재의 깨어있음과 그것을 직시할 수 있는 마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제작이 되었다.

〈ZERO Garten〉(1966)은 〈제로 정원〉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못을 이용한 작품들을 공간속에 확장시키며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제로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룹운동이며 제로를 통하여 세상에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다수의 렌즈 시리즈를 공간 속에 설치함으로써 하나의 작품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약화되고 전체의 조화와 소통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즉, 개인의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아(無我)의 관점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나 관점을 강요하거나 드러내지 않으며 전체속의 하나로 수용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존재가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상황적인 속성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가 보여주는 작품들은 시대적인 상황들과 철학적, 선적 관점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여 진다. 정원은 휴식과 충전의 의미가 있다. 삶의 과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에 휴식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휴식은 자유로운 사고의 원천이 되며 창의성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현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과 창의성이 요구된다.

창의성은 관념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출발하며 현재의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이 요구 된다. 창의성을 추구하는 예술에서는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창의적인 것이 아니며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관점들이 요구된다.

반복되는 일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예술의 관점들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시대적인 특성들과 정신적인 가치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현대미술의 특성들 속에서 선이 많은 예술가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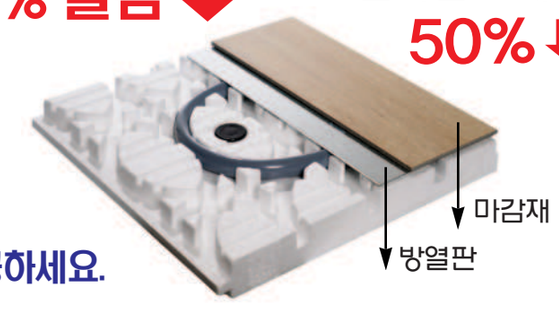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인식들이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다. 필자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은 동양보다도 더 동양적이라는 현실이었다. 나의 정체성에 혼동이 올 정도로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은 선과 예술, 문화, 철학, 과학 등 삶의 전반에 걸쳐 선적 삶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귄터 워커의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점차 이해하게 됐다.

몇몇의 예술가들에서 시작된 조그마한 예술운동이 빠르게 문화 전반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면서 예술가의 사회적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 자신의 관점과 시각을 버린다면 진정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귄터 워커의 못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지향점이 되었으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그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여주고 있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모듈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01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02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03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04 D.I.Y 시공 가능
05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설치 장소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 시 공 대 상 :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 지역 대리점 [10월 현재]
서울 : 010-5097-8291
부평 : 010-2310-0404
의정부 : 010-5759-8804
남양주 : 010-9183-9729
광명 : 010-7526-3300
안산 : 010-2487-3393
오산 : 010-2043-4336
화성 : 010-3168-9250
기흥 : 010-8378-3375
용인 : 010-9807-4862
광주 : 010-6890-0365
여수 : 010-3612-7784
익산 : 010-6610-2337
김천 : 010-9091-4583
대구 : 010-3259-3520
울산 : 010-4597-5577
진주 : 010-3583-7139
양산 : 010-6294-6126
통영 : 010-3592-2447
고성 : 010-4578-0961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40cm,50cm,1M,2M,3M,5M,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전통문화상품전 대상 '옻칠색잔'

불교박람회 기간에 전시… "현대적 색감" 호평

우수상에는 '옻앤옻' 등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이하 박람회)의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대상인 조계종 총무원장상에 'RYU1987'의 '옻칠색잔'이 선정됐다. RYU1987의 '옻칠색잔'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전통공예인 옻칠에 현대적인 색감을 입힌 작품"이라며 "실용적이며 완성도가 높아 발우세트와 같은 다른 아이템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우수상품전의 우수상인 운영위원장상에는 '옻앤옻'의 '천연옻칠 오방색 공기놀이'와 '계절사이로'의 '이불, 참선방석, 다포 외'가 뽑혔다.

우수상을 받은 '옻앤옻'은 "오방색이라는 전통의 색과 놀이를 현대적인 이미지와 잘 결합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계절사이로'의 상품에 대해서는 "힐링의 느낌이 이번 박람회의 주제와 잘 맞고 문양의 완성도가 높다"는 심사평이 나왔다.

이번 공모전의 입선작으로는 각각 깔롱바이린(한복린)의 '깔롱 동의 세트', 배진경의 오국시대가 출품한 '삼족오 곡옥 시리즈 세트', 붓다아티스트의 '불교캐릭터 상품'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문화우수상품전의 이번 수상작들에 대해서는 기획전시 및 현장 판매 프로모션이 진행되며, 전시장 안내리플렛과 디렉토리 특별섹션에 수상업체에 대한 별도의 홍보가 진행된다. 또한 박람회 참가 업체들은 상호 간판에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수상 업체'라는 표기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통문화우수상품전 수상작들은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 기간 중 별도의 전시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6서울국제불교박람회 전통문화우수상품전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작 'RYU1987'의 '옻칠색잔'

한국미술사硏 '불화와 산수화' 강좌 개설

3월 21~6월 13일, 12회에 걸쳐 진행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이하 연구소) 박물관대학은 갤러리 한옥과 함께 3월 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연구소에서 '불화와 산수화'를 주제로 제47회 미술사 강좌를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총 12회(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3월 21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불화와 산수화(고려 태조 금강산 담무갈보살 예배도를 중심으로)' 강의로 시작된다. 이어 안휘준 서울대 명예교수가 '산수화의 성격과 안견의 몽유도원도'(3월 28일),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가 '32관음응신도 등 조선전기 불화 속의 산수화'(4월 4일), 고연희 서울대 규장각 교수가 '절파의 산수화'(4월 11일)와 '무이구곡도의 세계'(4월 18일), 박은순 덕성여대 교수가 '겸재의 진경산수화와 금강산도'(4월 25일)와 '김홍도 일파의 화원 산수화'(5월 2일)를 주제로 강의한다.

5월 9일에는 현장답사(불화 속 산수화 감상)를 실시한다. 이어 신은미 한국이민사박물관 관장이 '조선후반기 나한도의 산수화'(5월 16일), 김현권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이 '추사 김정희 일파(허련까지)의 새로운 관념 산수화(이인문, 전기)의 이해'(5월 23일), 정병모 경주대 교수가 '민화와 산수화'(5월 30일), 유미나 원광대 교수가 '장승업과 근대의 산수화(안중식 · 조석진 · 변관식)'(6월 13일),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불화와 산수화의 의미'(6월 13일)를 강의한다. 개강식은 3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참가비는 17만원이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諸行無常'의 이치 이미지로 담아

〈제행무상〉

이지은 불자 조각가, 3월 21일까지 갤러리밈 초대전

모든 것은 변한다. 아무 변화가 없는 순간이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변화가 있다. 이를 불교에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말한다. 만물은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하고 생멸하지만, 인간은 이를 불변의 존재라고 여긴다.

이지은 불자 조각가의 화두는 이 같은 변화의 경계를 이미지와 형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수 많은 입방체의 종이 도면을 잘라내고, 스펀지를 도려내 패턴을 만드는 지난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변화의 순간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변화의 경계를 표현하는 이지은 조각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오는 3월 21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밈에서 열린다. '경계에서 선 4인' 갤러리 초대전으로 열리는 전시회에 이지은 조각가는 '별일없지- 부재의 존재 기록하기'를 주제로 참여한다.

주제인 '부재의 존재 기록하기'는 이지은 조각가가 화두로 들고 있는 작품 철학을 담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지은 조각가는 10여 점의 설치 미술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큐브' 연작이다. 딱딱한 종이에 그려진 같은 모양의 입방체 도면들을 칼로 자르고 책으로 묶어낸다. 잘라낸 도면은 접어 붙여서 입방체를 만들어 자유롭게 쌓아둔다. 입방체 도면의 수는 1500여 개. 책으로는 250페이지 6권이 묶였다. 1500장을 일일이 손수 잘라내는 지난한 작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변화의 틈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1000장에 그려진 도면을 자릅니다. 같은 모양을 자르지만 앞서 자른 것과 지금 내가 자르고 있는 것이 같은 것인가요. 자세히 보면 모양도 미세하게 다를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의식들도 다를 것입니다. 1500장의 변화가 모여 책과 입방체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 등 자르고 붙여내는 작업
그 속에서 변화의 경계를 만나
설치 작품 위주 10여 점 선봬
오는 3월 21일까지 전시 열어



작품 '큐브'와 함께 서 있는 이지은 조각가. 수많은 입방체들은 변화의 경계를 보여주기 위한 작업들이다.

이지은 조각가의 작품은 고된 노동이다. 매일 적지 않은 시간을 잘라내고 붙이는 단순한 노동을 한다. 그러면서 그는 고도의 집중을 순간마다 확인한다. 이는 이지은 작가의 작품 노트를 보면 알 수 있다.

"나의 작업은 실체와 허상,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통해 존재의 생성을 성찰하고자 한다. 없음이 있음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화의 흐름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없음이 곧 있음이 되고, 있음이 곧 없음이 되는 경계의 생성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몸의 반응과 직관적인 앎이 소통할 때면 우연과 필연의 경계 없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이지은 작가의 사유는 오롯이 불교 신앙에서 비롯된다. 수효사 신도인 어머니를 따라 접한 불교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조금 더 웅숭깊어졌다. 지난해에는 성균관대에서 동양철학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고정된 인식은 사물을 고정화시키고 편견을 만듭니다. 이를 부수는 것이 제 작품의 화두입니다"는 작가의 말이 인상 깊다. (02)733-8877 신성민 기자

'나의 본질 찾기' 연극으로 만난다

창작극 '이뭣꼬' 제주 공연
3월 17~18일 아트센터서

"나는 누구인가? 아! 나는 누구이며 생각하고 행동하는 내 생명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지식인의 성공과 좌절, 깨달음으로 표현한 창작연극 '이뭣꼬'가 제주서 공연된다.

오는 3월 17~18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오후 3시, 7시 4차례 공연으로 제주 불자들을 찾는 이번 공연은 서울과 대구, 부산 공연에 이은 것이다.

연극 '이뭣꼬!'는 두 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는 바닷가에서 시작된다. 주인공 무명 스님(정선우)은 묘비를 만지며 지난날을 회상한다.

보육원에서 자란 장선우는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되는 입지적인 삶을 산다. 판사 임용 기념 가족여행을 떠난 날, 선우는 사고로 부인과 딸을 사고로 잃게 된다.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판사직을 던지고 목숨까지 버리려 했던 선우는 출가를 감행하고 생사의 번뇌를 깨닫기 위한 용맹정진에 들어간다.



연극 '이뭣꼬'의 한 장면. 주인공 무명 스님의 삶을 통해 본질은 무엇인지를 묻는다.

줄거리에서 보듯 연극 '이뭣꼬'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울고 웃으며 행복과 고통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뤄지길 바라는 감독의 바람으로 제작됐다.

창작연극 '이뭣꼬'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총연출한 정광진(J&C 코리아 뮤지컬컴퍼니 대표) 감독은 "주인공의 불행한 운명에서 삶의 허무를 만난다. 비이성적인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작금의 우리들 삶을 반추해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064)755-2203 신성민 기자

'MAHA KUMBH' 거룩한 인도의 신들

윤상섭 작가, 8일까지 사진전

신들의 나라, 인도의 수행자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윤상섭 사진작가는 'MAHA KUMBH 천상재회'라는 주제로 3월 2~8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윤상섭 작가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나체수행자 '나가사두'들의 거룩한 고행 길을 따라 이들의 몸짓 하나하나 고스란히 사진으로 담았다. 신에게 받은 원초적인 정신과 육체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축제는 경이롭고 신비롭다. (02)733-4448 신성민 기자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림.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신 성 불 상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전화 031-533-7724. 010-5223-5174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2.17~2015.2.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2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3	한국인이가장좋아하는선문답	장웅연	불광출판사
4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5	달라이라마의불교강의	달라이라마,톨텐최된	불광출판사
6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7	한권으로읽는불교교리	지명스님	(주)조계종출판사
8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우룡큰스님,김현준	효림
9	스님의공부법	자현	불광출판사
10	호흡이주는선물	래리로젠버그외	나무를심는사람들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승단은 사회의 바다위에 떠 있는 섬”

출가란 무엇인가?

사사키 시즈카 지음 | 원영 옮김
민족사 펴냄 | 1만 5천원



〈출가란 무엇인가〉는 〈출가, 세속의 번뇌를 놓다〉(2007)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의 원제를 살려 재출간한 것이다. 이 책서 저자는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오는 빠알리 율장 자료로 붓다 당시 승단의 생활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불교 승단의 성립과 구성, 승단의 개념, 출가의식, 승단 내 경제, 승단의 교육제도, 여성의 수계, 승단 내의 남녀평등 등의 주제로 승가의 기본 운영이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한 텍스트로 율장 연구의 자료로도 손색이 없다. 또한 이 책은 출가라는 주제를 통해 불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밝혀낸다. 저자는 초기 승단의 모습을 비교의 척도로 삼아 현대 불교가 안는 갖가지 문제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파헤친다. 이를 통해 승단이 없는 일본불교를 반성하는 동시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한국의 상황에 맞게 불교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기의 한국불교, 율장서 그 해법을 찾다

1700여 년을 이어온 한국의 승가 공동체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한국불교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율장 정신을 본받아 여법여율(如法如律)한 승가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율장 정신이란 무엇일까? 한국불교가 위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무턱대고 율장을 읽는 것으로는 안 된다. 율장 정신의 회복은 율장의 전통을 고수하자는 말은 아닐 것이다.

불교 교단사와 계율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현전 승가가 붕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불교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율장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초기 승가 공동체가 성립되고 유지 발전되는 과정서 만들어진 율장을 보면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에 승가가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는 ‘승이란 무엇인가’ ‘율장이란 왜 필요한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을 신중히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도 통용되면서 붓다의 마음을 바르게 표현하는 참다운 승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율장이 만들어진 시대적 맥락을 무시하고 그것을 문자 그대로 현실에 적용하려면 오히려 낭패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율장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승단은 섬과 같이 하나의 독립적인 세계다. 그러나 섬이 바다에 떠있는 것처럼, 승단은 일반 사회의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한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속세를 떠난 집단이라고 해서 속세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 때문에 승단은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사회 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 갔다. 섬 사회와 일반 사회를 구별지으면서 이어 주는 것이 바로 걸식(乞食)이다. 현실에서 승단은 일반 신도의 기부나 공양 덕분에 수행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승단은 일반 사회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붓다 당시 승단모습 구체적으로 묘사
출가 통해 불교와 사회와의 관계 조명

승단은 율장이라는 규율체계에 의해 운영된다. 율장에는 출가자 개인의 결의를 의미하는 계(戒)와, 승단의 생활규범이라 할 수 있는 율(律)이 있다. 이 둘을 합쳐 ‘계율’이라 부른다. 이 중에서 특히 율은 일반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제정됐다. 이것이 바로 율장의 기본 정신이다. 예컨대, 부모의 허락을 얻지 못한 자는 출가를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는데, 이는 속세와 승단 사이에 심각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규율이었다. 문제는 율장은 그것이 제정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부득이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면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그 당시와 다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규정들을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차법(遮法)에 의하면 초기 승단서 장애인은 출가할 수 없다. “신체 장애자는 출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당시 인도 사회가 신체 장애자에 대한 인권 의식이 확립되기 이전 일이었다. 또 이는 일반 사회의 여론을 늘 의식해야 하는 승가 집단이 취한 조치일 뿐이었다.

저자는 차법에 대해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차법은 그 당시 인도사회 속에서 불교 승단이 사회와의 알력을 피하기 위해 도입한 법규일 뿐이다. 따라서 당시 인도 사회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 이미 그 기능을 잃는다. 불교가 사회의 비난을 받는 중대한 오점이 되기도 한다. 불교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원점은 규칙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이 제정된 기본 이념, 곧 사회의 존경에 보답할 만한 집단답게 행동하고, 그 보답으로 존속이 허용된다는 ‘걸식 이념’이야말로 불교 승단의 원점이 된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사회와의 알력을 막아주는 효력을 잃어버린 차법에 더 이상 그 존재 이유는 없다. 현대에는 현대에 맞는 법규가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신체장애자에 대한 차별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 역시 시급하다. 또한 다른 예로 비구니 팔경법을 들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비구와 비구니를 차별하는 법은 비구들만 있는 집단에 뒤늦게 들어온 비구니 집단을 가르치기 위해, 즉 선배가 후배를 지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편의적 조치일 뿐이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달라지면 바뀌어야 한다. 문제는 한 번 정해진 규율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완고한 태도에 있었다. 저자는 오늘날처럼 남녀평등을 요청하는 사회에서 승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단은 결국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저자는 현대 사회에는 잘 맞지 않는 율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현대 불교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여러 현실 상황에 대응해 가며 순차적으로 편찬되어 온 율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다양한 정보의 집적(集積)에 지나지 않는다. 그 잡다한 정보는 모두 현실 사회의 반영이다. 이는 일반 사회라는 바다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섬 사회(승가 집단)의 숙명이었다. 이런 출가(자)의 사회성에 대한 지식은 율의 현실적인 기록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자는 율장 연구를 통해 초기 승가가 걸식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승가의 운영시스템을 변화시켜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율장 정신이란 이미 만들어진 율장을 고수하자는 완고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수승한 수행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교의 유연한 태도일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용수보살 이전의 다양한 불교학설 망라

대지도론 1~5세트

용수 지음 | 석법성, 구마라집 공역 | 운주사 펴냄 | 27만원



〈대지도론〉은 후대에 미친 영향이 지대해 여덟 종파(八宗) 조사라 불리는 용수보살의 대표적 저서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용수보살 이전의 불교의 다양한 사상과 학설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초기경전부터 대승경전까지 폭넓게 인용하고 있으며, 불교의 역사와 설화는 물론, 인도의 일반사상과 문화까지 총망라해 가히 ‘불교대백과전서’로 불린다. 이뿐만 아니라 〈대지도론〉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논서 중 하나로 꼽힌다.

실존 인물이면서도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용수보살은 ‘제2의 석가모니’ 혹은 ‘대승불교의 아버지’로 칭할 만큼 대승불교 사상 정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소승과 대승 경전과 학설, 수행 등을 섭렵한 후 뛰어난 저서들을 남겼는데, 그중 〈대지도론〉은 〈대품반야경〉을 주석한 논서로서 〈지론〉 〈대론〉 〈석론〉으로도 불린다.

용수보살 이후의 대승불교 종파들은 그의 사상적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용수보살이 시조이거나 그로부터 발원한 종파들이 여덟 종파에 이르러 그를 ‘팔종의 조사’라고 일컫는다. 중국과 한국서도 천태종과 화엄종은 물론이고 정토종과 선종에 이르기까지 그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불교는 종교이면서 철학으로 불린다. 그만큼 불교사상은 깊고 넓다. 단순히 신앙으로서만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면, 혹은 가지 하나만을 부여잡고 불교라고 여긴다면, 불교는 단순하고 쉽다. 하지만 좀 더 깊게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통찰하고자 한다면, 불교라는 거대한 사유체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불교는 끝도 없는 망망대해를 연상시킨다. 〈대지도론〉은 이런 방대한 불교사상의 바다를 헤쳐 나가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하지만 범어(산스크리트)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구마라집이 한역(漢譯)한 100권이 전한다.

구마라집은 전체 90품 중 초품만 완역하고, 나머지 89품은 초역하여 100권으로 엮었다고 한다. 초품의 한역이 100권 중 34권까지이니, 용수보살 원본 분량은 실로 방대했을 것이다. 전하기로는 1,000여권에 이르는 대작과 300권으로 이루어진 약본이 있었다.

그렇다면 〈대지도론〉은 어떤 책인가?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용수보살 이전의 모든 불교사상 흐름을 집대성한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시불교, 부파불교, 초기대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상과 학설들을 종합하고,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설화와 전설까지 아우르며,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을 폭넓게 넘나들고, 인물과 지리, 인도사상과 문화를 총체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이다.

둘째, 불교의 기초 개념, 대승불교의 주요 개념, 불교철학의 기본 범주 등에 대해 설명하는 ‘불교개념사전’ 역할을 한다. 주로 초품인 34권까지에서 보살, 삼매, 방광,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의) 육바라밀, 37품, 3삼매, 4선정, 8배사, 9상, 8념, 10상, 11지, 10력, 4무외, 4무애지, 18불공법, 대자대비, 6신통, 수희심, 회향, 선근공양, 18공, 4연 등의 의미를 상세히 설한다. 35권부터는 〈대품반야경〉 제2 보응품부터 제90 촉루품까지의 해석으로, 초품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상세한 설명과 실천에 대한 모색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일관되게 반야(般若)와 공(空) 사상을 천명한다. 이를 통해 대승의 주류로 중관학과 공사상을 확고히 정립했으며, 이는 유식사상과 유가행파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대지도론〉의 불신관(佛身觀)과 법신관(法身觀)은 밀교를 형성시키는 기반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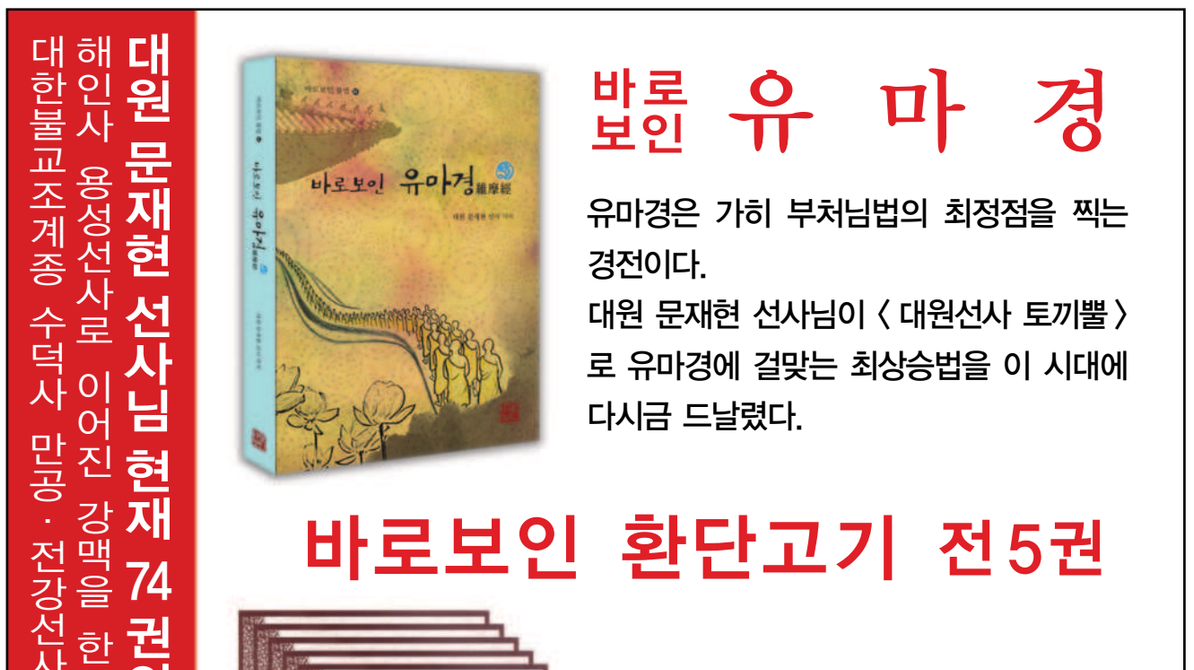
〈대지도론〉, 불교의 대백과 전서로 불려
구마라집이 한역한 100권만 현재 전해져

넷째, 대승불교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대한 강조다. 즉 대승사상에 대해 단순히 이론적, 사상적 논리 전개에 그치지 않고, 대승의 보살행이나 육바라밀 등 실천수행을 강조한다. 자리적 측면이 강하고 너무 번쇄히 흘러 대중과 유리된 소승이나 부파불교의 문제점들에 대한 극복 내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마치 대화를 하듯 복잡하고 난해한 교리들을 비교적 쉽게 설명한다. 더불어 다양한 설화나 전설, 역사와 인물, 경전 인용 등을 통해 이해를 돕는 점도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용수보살은 처음에 소승의 경전과 교학을 공부한 후 대승의 경전과 사상을 접하고 대승으로 전향(?)한다. 따라서 그는 〈대지도론〉서 소승의 교설을 폭넓게 인용하면서도 시종일관 소승에 대한 대승의 사상적, 실천적 우위를 드러낸다. 대승불교가 태동한 이래 2천여 년이 흐르는 동안 불교에는 수많은 종파와 학설들이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은 대승이라는 사상의 우산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대승의 교의를 확립시킨 대표적 인물이 바로 용수보살이다.

김주일 기자





英 개신교 집안서 태어난 소녀, 비구니 되다

〈더 와이어〉, 유럽 최초 티베트 비구니 프레다 베디 '조명'

서양인 최초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한 비구니 스님은 누구일까?

인도 인터넷언론 '더 와이어(The Wire)'는 2월 22일(현지시간) 인도 독립을 위해 영국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프레다 베디(Freda Bedi, 1911~1977)의 삶을 조명해 주목을 끈다.

영국 개신교 집안서 자란 프레다 베디는 인도의 자유를 외치다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으며, 인도인과 결혼해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시련과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 불의에 맞서 싸우며 영적 깨달음을 위해 마침내 비구니 스님이 됐다.

프레다 베디의 본명은 프레다 하울스톤(Freda Houlston)이다. 1911년 영국 미들랜즈 공업단지인 더비(Derby)에서 태어난 프레다는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자랐다. 그녀의 부모는 감리교 예배당에서 만나 결혼했으며, 시계 수리 및 보석 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프레다의 아버지는 그녀가 7세 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프랑스 북부지역 전투에서 사망했다. 프레다는 매년 휴전을 기념하는 날 행사가 열릴 때 마다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로 심적 고통에 시달렸고, 학교에서 수차례 기절하기도 했다.

프레다는 생전 "아버지의 죽음이 내 어린 시절 전체를 암흑기로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아버지의 부재(不在)는 내면적으로 불안정했던 그가 영적인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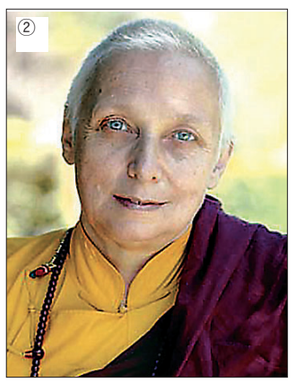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그녀는 정치적인 활동에도 참여했다. 1930년대, 인도는 반영 민족운동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간디를 필두로 한 민족주의자들은 영국이 인도에 자유를 줄 것을, 그리고 경제적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학 때 '반영' 민족운동 참여
인도인 바바베디 만나 결혼 '화제'
간디 지지, 독립운동 등 사회활동
망명 티베트인 복지활동 펼치며
불교와 인연… '팔모' 법명 출가

유능하고 강단 있던 프레다는 부조리함에 저항하며 친구들과 함께 반영 민족운동에 동참했다. 그녀의 친구 중에는 영국 노동당 대모인 바바라 카슬(Barbara Castle)도 있었다.

정치적 활동 중 프레다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사랑을 하게 된다. 라호르가문의 시크교 출신의 바바 베디(B.P.L. Baba Bedi)와 만나게 되면서다. 당시는 서로 다른 인종간의 만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풍토가 있었다. 이런 사회적 시선은 그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반항심을 갖게 했고, 둘의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① 프레다 베디(오른쪽)와 남편 바바 베디.
② 승려가 된 프레다 베디 모습.
사진출처=더 와이어

프레다 베디와 바바베디는 옥스퍼드에서 1933년에 결혼했다.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었으며, 그 중 1명은 인도의 유명 원로배우인 카버 베디(Kabir Bedi)이다.

당시 그들의 결혼은 지역신문 1면을 장식할 정도로 당시 큰 이슈가 됐다. 이후 베디 부부는 인도 북부 라호르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고, 급진주의 세력으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다.

부부는 라호르에서 좌파정치와 출판, 언론에 참여했다. 프레다는 인도로 이주하기 전에도 간디 관련 서적을 출판하는 한편, 좌파 출판업자였던 빅토르 곤잘레즈를 위해 '현대 인도'를 주제로 한 책 3권을 출간한 바 있다.

그러던 중 부부에게 시련이 찾아왔다. 사회주의자로 활동한 바바 베디는 제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억류됐고, 1941년 프레다 베디는 간디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라호르 여자 감옥에 3개월간 수감하게 됐다.

그러나 부부의 사회적 활동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부부는 카슈미르에 자리를 잡고, 민족주의자 셰이크 압둘라(Sheikh Abdullah)의 영향을 받아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특히 바바 베디는 당시 중요한 사건이었던 '뉴 카슈미르' 성명서를 써 작가로 인정받았다. 또한 프레다 베디는 인도 북부 스리나가르에 저항하는 여성군대를 이끌었으며, 납치된 여성들을 돕는 활동에 힘썼다.

사회 참여활동에 혈안이 돼 있었던 프레다 베디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델리로 이주하면서부터다.

1959년 UN에서 활동하던 그는 업무차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불교를 접했다. 당시 수천 명의 티베트인들이 히말라야에서 인도로 망명했다. 이때 프레다는 젊은 티베트 승려들과 불자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 종교시설을 만들어 주는 등 티베트인들의 복지활동에 힘썼다.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을까? 1966년 프레다 베디는 유럽 최초로 티베트 불교에 귀의해 '팔모(Palmo)'란 법명의 비구니가 됐다. 그녀는 인도 내에서 영성활동을 펼치는 한편, 미국에서는 젊은 티베트 승려들과 함께 새로운 뉴에이지 운동에 가담했다. 함께 활동한 티베트 출신의 승려로는 스코틀랜드에 삼예링 명상센터를 세운 초감 트룽파 린포체와 달라이 라마가 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선 프레다 베디를 기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다닌 영국 더비의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마련해 젊은 티베트 승려를 위해 쓰고 있다.

또한 프레다의 고향인 더비에는 프레다 영향으로 펀자브어(인도 펀자브 주와 파키스탄 펀자브 주에서 사용되는 공용어)를 사용하는 민족 공동체가 생겨 거주하고 있으며, 영국 국립 시크교 유산센터가 설립됐다.

아울러 프레다의 생가(生家)에는 프레다를 기념하기 위한 파란 현판이 걸려 있으며, 지역민들은 프레다 베디를 '국경과 인종을 넘어 정의롭게 활약한 선구자'로 기억하기 위한 추모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前 BBC기자인 앤드류 화이트헤드는 프레다의 영웅적인 삶을 집필 중이다. 그는 "프레다의 삶은 후대들을 위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의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태국서 승려들, 軍정부와 '몸싸움'

승왕 승인 지연 문제로 군인들과 갈등

태국 승왕(僧王) 후보자 랏차망갈라찬 지지자들과 승왕 승인을 지연하는 태국 군정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태국 언론에 따르면 2월 16일(현지시간) 방콕 서쪽에 있는 나콘 파톰주(州)에 있는 풋타몬톤 불교 공원 앞에서 승려 수백 명이 경비 중이던 군인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이는 태국 경찰청 특별조사국(DSI)이 랏차망갈라찬의 수입 차 보유와 세금 탈루 경위를 한 달 넘게 조사하며, 승왕 승인이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이들은 태국불교보호센터(BPCT)라는 단체 소속으로, 부패와 탈세 스캔들에 휘말린 20대 승왕 후보자 랏차망갈라찬(80)의 지지자들이다. 이날 정부의 승왕 후보 승인 지연에 항의하며 집회에 나선 이들은 군인들을 밀치고 목을 잡아채거나 차량을 에워싸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방송 전파를 탔다.



2월 16일(현지시간) 풋타몬톤 불교 공원 앞에서 승려 수백 명이 군인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였다. 사진출처=카오소드 잉글리쉬

'BPCT'는 "정부가 승왕 승인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면서 "정부는 종교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이날 소동은 쁘라윗 왕수완 태국 부총리가 직접 승려 대표를 면담하고 난 후 마무리됐다. 승려들은 부총리에게 5개항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 같은 불교인들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태국 내 소수종교인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불교학자인 술락 시바락사는 "불교를 국교(國敎)로 만드는 것은 태국 내에 있는 이슬람, 기독교 신자들과의 갈등도 깊어지게 만들 것"이라며 "일부 불교 집단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나라 전체를 대변하는 양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계속 생기면 스리랑카와 미얀마가 겪었던 종교 갈등을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되고, 불교자체에도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인권활동가이자 무슬림 신자인 앙카나 닐라빠짓은 "서로의 종교적 문화를 존중해야 하는 시점에 불교인들의 갈등은 기독교인이나 무슬림 신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불교인들의 폭력적 행위는 소주 종교인들에게 위협감을 준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들에게 종교의 존재이유와 핵심을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일갈했다.

앞서 정부는 랏차망갈라찬의 부패 스캔들에 따라 승왕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랏차망갈라찬이 주지로 있던 절에서 벤츠 등 고가의 수입 빈티지 차량이 여러 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일부 반대파들은 그가 후계와 관련한 전 승왕의 친필 서한을 조작했다는 등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붓다 이사라 스님은 "군부 정권은 랏차망갈라찬을 승왕으로 승인해선 안 된다.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태국 불교는 썩었으며 길을 잃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최대 불교 축제 '만불절' 맞은 태국



지난 2월 22일(현지시간) 태국 불교의 대명절 '만불절' 행사가 열렸다.

'허핑턴포스트(huffingtonpost)'는 2월 23일 "만불절을 맞아 수백만의 불교 승려들이 세계서 가장 큰 사원인 '왓 프라 담마까야'로 모였다"며 "그들은 정렬로 앉아 명상에 빠지는가 하면 등불을 들고 행진하며 경이로운 장관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만불절(Makha Bucha; 마까뿌차)'은 매년 3월 보름날 열리는 불교 행사로, 태국은 이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죽림정사(竹林精舍)에서 1,250명 제자들에게 삼보 및 수도승의 계율을 최초로 설법하며, 3개월 뒤 자신의 입적을 예언한 날이라고 전해진다.

사진출처=huffingtonpost
박아름 기자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외 양초 공양집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을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 식물성입니다.
규 격 : 59Ø×18㎜
연소시간 : 60~70시간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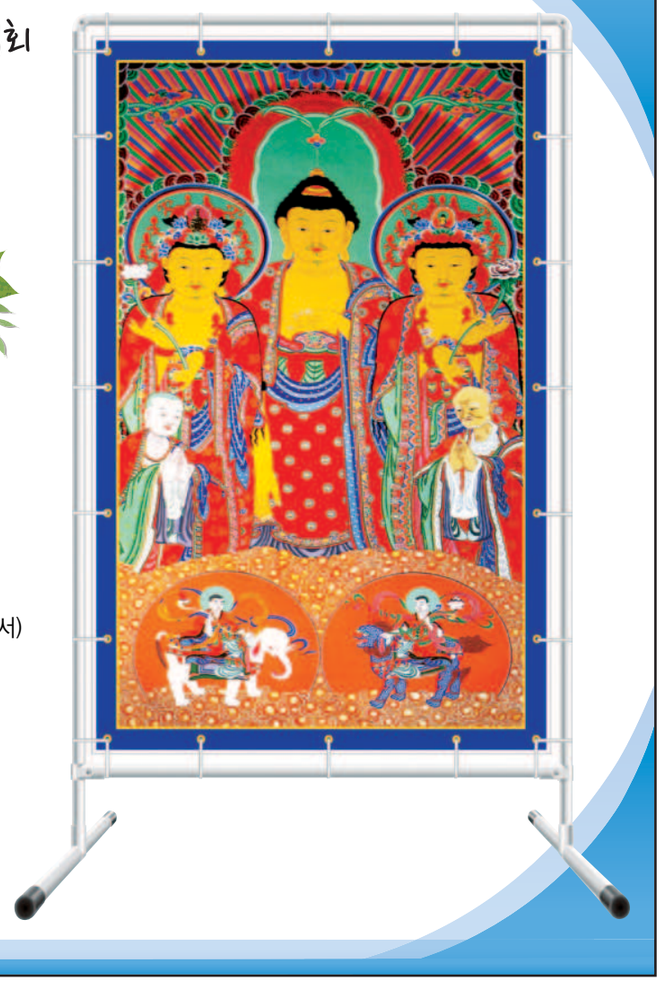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 엄 괘 불
■ 괘불 크기 : 가로 200cm × 세로 300cm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주문 후 5일내 배송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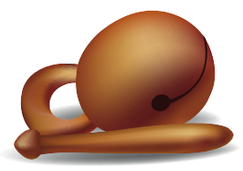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4×5.8) 4만원, 1회 1Box (8.8×5.8)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원한의 마음 잔뜩 품은 사람들 속에 자비심 깊게 성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나는 살련다. 원망은 원망에 의해서 끝날 줄 모르니 참음(忍)을 실천해야만 능히 원망을 풀 수가 있으니 이것이 곧 불변의 진리니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대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 (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 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17-1242

공 고

- 법력과 가피로 포교를 원하는 비구니스님 (45세-60세)
- 방편과 신심으로 대중 포교를 원하는 보살님 (40세-55세)

010-4905-0575

부지갱이 비빔밥 법회

4월1일부터 ~ 6월30일까지
한정예약 / 울릉도 부지갱이
+ 육지부지갱이 / 입장료
균일 3500원 10명할인 예매
한학마을 041-542-9955
아산시 도고면 신통길 192-21

수강생 모집

서예,문인화,선묵화
- 대상 : 스님,학생 (회비없음,무료지도)
- 원장 : 정선스님(박용국)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수상,
개인전5회, 대구 길상사 주지
주소 : 대구 중구 대봉2동 744-21
문의 : 삼소정 서예문인화 연구원
대구 향교앞 010-6797-3223

역학,구궁,오행, 당사주,신살

배워서 상담 하실
분들 전화주세요
010-4234-253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불사용 달마도

40cm*62cm 한폭 6천원
불사용 선물용 달마도가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달마도를
친필로 그려 드립니다
051-202-8770 /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청암달마원
10장 이상은 절 이름과 스님 법명
넣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살풀이,화청
010-4304-012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시내 사찰)
053-654-0408
010-3422-3232

사찰 총무보살님 모십니다

(전남 장흥)
pc 가능 하신 분
011-596-474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대중반 ~ 50대 초반)
모든 것 전수해 드리고
절까지도 인도해 드립니다.
010-6674-1356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7311-5335

공양주 보살님 인연을 원합니다

(충북 옥천)
조용한 비구니 도량
043-733-9339
010-8019-9339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8916-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이천)
031-641-6311

신통력과 특수한 비법 33가지를 스님에게만 전수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핵심 강의, 각종 제의식 집전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 등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점안, 정기법회 등 각종 불공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며 단, 몇시간 만에 불교핵심을 관통하여 통찰케 하는 화엄경법성게, 금강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천부경 등 명쾌하고 강렬담백한 강의를 무불선원에서 또는 원하시는 사찰 등 곳으로 출강해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달려가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두 성불 하십시오!
대운산 무불선원 비구 무불 합장 010-3854-8107. 055-388-38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마포구 도심포교당)
010-3618-6061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2016년도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목,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조계종 천장사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공양주 1명, 처사님 1명
(충북 단양)
010-5960-2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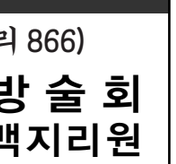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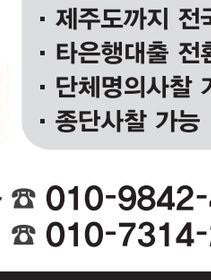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귀접/귀신들림/알콜중독/게임중독/도박/상습폭행등

모두 빙의현상일 수 있으며, 귀신을 확인 시키고, 책임치유, 사후관리까지... 원인을 알면 처방이 있다!
빙의치료의 대가 화엄스님 010-4293-7075
고민, 고통 해결사 060-900-8181



빙의치료 화엄선원 명리교육관
원격상담문의 010-4293-7075 부천 상동역



선조들께서 소원성취를 빌며 매달았던 소코뚜레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불자님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수호신으로 소장토록 하시면 스님들의 포교 및 불사에 좋은 공덕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 홍천 후유암 주지 법장 합장
상담문의 : 010-5378-5973

이것이 정통 풍수다!!

※ 산승이 수십년간 산야를 섭렵궁구해오다

- ◆산세를 자연과학으로 풀어내고
- ◆장심통으로 땅속혈맥 짚어내며
- ◆발복현상으로 반드시 증명되고
- ◆백발백중 감정 및 점혈 할수있는

태극혈맥지리에 달통 전수코자 합니다

방술회원 모집

- ◆모집자격 : 위 원리를 꼭 달통코자 할 분만 덕숭산 방술(평생)회원으로 접수 합니다.
- ◆강 습 장 : 절로암 참설당과 덕숭산내 간산실습장
- ◆강습일정 : 3월초부터 강습예정 (혈맥이론 실습 병행) 수시강습(1:1 집중강습) 정기강습 및 간산 (월1~2회)
- ◆회원가입비 : 일정의 시주금(천년마애삼존불사)
- ◆교구재 무료제공 : 부교재, 패철, 혈맥기봉

문의 010-4600-7399 / 041-338-5595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1 (광천리 866)
전국좋은터잡기선양본부 덕숭산 방술회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 천 공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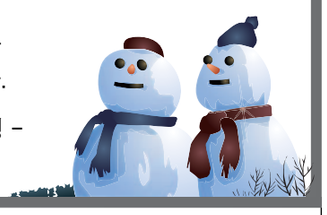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비록
조금이라도 욕심을 맛보는 것을 괴로움으로 안다.

- 법구경 -



사 찰 안 내

▶ 바닷가 아름다운 사찰◀
- 위치 : 남해 바닷가 250m
- 총부지 : 550여평
- 건물 : 법당(20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 가액 : 3억 2천만원

051-863-6622

▶시장부근 토굴◀
- 위치 : 통영(통영 중앙시장 3분거리)
- 총부지 : 약 100평(2종주거지역), 주차가능
- 건물 : 법당 20여평, 요사채, 기타
- 양도가 : 1억 2천

010-3560-8522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보유 사찰탐방 ※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청도시 추천 사찰 안내(www.이박사.com)

- 법당 100㎡, 요사채 100㎡, 토지 4000㎡
- 청도 IC근방, 풍수상 좋은터
- 산중조용하고 기도사찰로 적당함
- 가액 : 16억(융자 4억포함) 조정가능
- 비밀보장, 방문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 위치: 경기
◎ 대지: 60평 ◎ 대지: 220평
◎ 법당: 30평 ◎ 법당: 40평
◎ 요사: 60평 ◎ 요사: 60평
◎ 양도: 10억 5천 ◎ 양도: 7억2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임야: 종교부지 합 2,000평
- 법당: 조립식 16평
- 요사채:조립식 30평
- 가액:대출 7,500안고 1억 1천만원

010-7188-772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생극면
- 대지 510평, 건물 5동, 양호함
- 산 밑으로 경치 좋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0-6341-3477

대구 부근(급)사찰

팔공산 기도 휴양사찰
- 토지 4,800㎡
- 목조법당, 목조산신각, 요사채 등 5동
- 전망과 위치좋고 산중사찰, 방사가 많음
- 주변산이며 기도와 선원사찰임
- 가액 : 10억(융자있음)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다용도 토지 안내

- 위치: 경기 양평 아신역에서 5분거리 (대지 257평, 건평40평 뒤는 산)
- 앞은 옥천 시내, 유동 인구 많음, 전망좋음
- 용도: 암자, 포교원, 사주카페, 별장
- 가액 : 4억 8천(융자포함) 전세가능

010-4234-2536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남로 버스정류장 대로변
- 상가 2층. 50평이상, 방 2, 화장실2, 주방, 각시설 완비
- 가액 : 2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3700-3628

사 찰 안 내

- 위치: 대전시내 보문산 부근
- 전망좋고 위치최상
- 식장산과 보문산공원이 바로 앞에 보이는 보문산 자락에 있음
- 사찰에서 보문산 50미터, 대전역(택시)8분거리
- 대지 70평, 건물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25평
- 삼존불, 산신, 칠성, 신중탱화, 인등
- 시설완비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억 3천(가격절충)

010-8701-960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급양도, 방문요

010-3186-0361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 (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 입구 500년된 똘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불심깊은도시 경북 영주

포교원을 양도 합니다
- 3층 건물 2층(3층 주인 살림)
- 55평(방 2, 요사, 공양실, 화장실 2)
- 법당(단청, 운각,6지장보살 봉안)
-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보시고 판단)

010-6472-562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구서동 전철 2분거리
- 평수: 50평, 3층 건물중 2층
- 법당 25평, 방3, 주방, 화장실, 도시가스 ● 삼존불, 지장
- 가액 : 2,000만원 60만원 또는 3,000만원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1-1750-404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 보은 IC에서 10분, 속리산 20분거리
- 탁트인 전망 뒤에는 산
- 귀농 귀촌할 분, 사찰 암자 휴양지 최적지
- 땅모양 좋음, 아주좋은 명당터
- 신축, 총면적 1025평, 대지 285평
- 신축 : 건평 30평, 20평, 10평 차고, 창고
- 보일러는 기름 화목 겸용
- CCTV설치, 150M 암반약수
- 가액 : 3억 8천만원

010-5458-2258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 광역시 중구 복산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
- 4층건물 중 1층 16평
- 법당, 방1개(친견실, 주방, 화장실, 별도공간 5평
- 시설 : 신설 삼존불, 신장, 영가단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가격 결정

052-291-3379
010-4576-2281

도심속 포교원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지하철 걸어서 5분소요 버스는 1분정도
- 반지하 150평, 상가건물, 시설완벽
- 별도 사용공간 : 약 20~30평 공간있음, 세면실 별도 방 총6개<2개는 햇빛이 들어오고, 문열면 바로 밖> <종무소 친견실(넓음)>, 스님방, 빈방 3개, 다용도실(넓음)
- 관리비 한달 50만원 가량, 주차는 얼마든지 가능
- 인체리어 시설완벽
- 부산시내에서 낮은 가격으로 넓고 큰 본인 사찰을 가질수 있는 기회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및 전세"
- 가액 : 2억 5천만원, 전세 8천에 월 100만원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사자봉 송림숲, 가람조성 5년!
- 공찰소임관계로 급 양도함!
- 종교부지 650평. 산1만2천평
- 조립건물3동, 약사석불12자
- 광주광역시 20분거리

①종교부지+시설물= 2억1천
②임야포함 3억2천(절충가)

010-8224-1688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포항 해도동
- 약 40평, 삼존불, 후불탱화, 소불,
- 인등, 연등, 집기일체, 몸만오시면됩니다
- 명리 철학 호조건,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 가액 : 3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0-3723-0777

도심 속 포교원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 평수 : 145평, 2층 전체
- 구조 : 주지실(욕실) 다실 외 방 3개 (엘리베이터)
- 가액 : 1억 2천만원 월200만원
- 현재 법회중

010-5344-9097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1층 37평, 욕실, 도시가스 방 2칸, 앰프 시설 완비
- 부처님은 청동불 (석가모니, 지장)
- 주차 시설 완비
- 가액: 500만원, 월55만원 시설비 2,300만원(절충가능)

010-5830-3838

마음편한 시골집

- 위치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소재지
- 총 746평(대지 423평)
- 주택 25평 (등기필)
- 상수도, 전기, 지하수관정, 해우소
- 마당까지 포장, 20대 주차
- 가액 : 9,500만원
- 사찰불사 가능

010-4591-6200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계성면 화왕산 군립공원입구(달촌마을)
- 부지 1,759㎡(3필지), 요사채(방4), 칠성각, 산신각, 심야보일러
- 산밑에(뒷산, 소나무울창), 도로인접, 앞냇가, 시내버스, 교통요지
- 인터넷 '사찰안내 가람참조' (사찰내외 사진25장 참조)
- 가액 : 3억원(융자7천포함<절충가능>)
- 꼭하실분만 연락바람

010-3149-4478
스님이주관계 010-864-825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만덕동
- 1층 약 40평
- 삼존불, 집기완비
- 몸만 들어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500만원(절충가능)

010-2426-1766

아늑하고 양명한 부지

- 남쪽지리산 성짓골을 차지하여 양쪽으로 개울이 흐르고주봉에서 꽃잎처럼 둘러쳐진 산자락이 매우 양명하고 아늑한 중간사찰의 부지(2천5백여평)임 "한국서정시연구회"를 치면 다음지도로 살펴볼 수 있고, 가격은 10여 년 전 가격 그대로 3억 5천에 드리겠음

전화 010-4920-3203

사 찰 안 내

- 위치:목포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23평, 법당 30평, 요사채 공양간, 텃밭, 마당은 잔디 화장실 2개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 전세가능, 월세도 가능

010-8207-7488

포교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면소재 황금동 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 : 벽돌조 독채 104.54㎡(32평)
- 대지 : 대로변 311㎡(94평)
- 문중개인소유(도지료 년35만)
- 내용 : 법당, 거실주방, 방2, 세면장 화장실
- 면소재 2차선 대로변 남향
- 교통좋은 포교지 법당 넓음
- 가액 : 4,800만원, 건물 개인등기

010-7295-1259

은거토굴 안내

대명당
- 위치: 대구 동구 팔공산 중대동
- 평수 : 대지 200평, 2층건물
- 방3, 거실, 주방, 정남향
- 대명당에 기운으로 행정고시 2명 배출한 터입니다.
- 가액 : 5억 8천만

010-9355-1779

포교원 안내

- 위치:창원시 마산합포구 사보이 호텔옆
- 평수 60평, 5층건물중 낮은 3층
- 방3개, 화장실, 법당, 베란다
- 겨울난방, 여름난방 필요없음
- 가액 :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추후 결정

010-6208-5555
055-242-655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대지 102평, 건물 콘크리트
- 1층 32평, 2층 15평 법당
- 구조 : 방4, 주방, 욕실, 다용도실, 심야보일러
- 삼존불외 모든 시설 완벽 구비
- 가액 : 9천만원

010-8577-3779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시 남구 용호로 부근
- 3층 건물의 3층 32평
- 삼존불 모심
- 가액 : 1,000만, 월50만원 시설비 약간

010-3742-5925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1,000만원 (답사후 협의 결정)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동구 40년 전통사찰 부산역 가까운 교통편리한 곳
- 큰 도로이면서 조용한 곳
- 대 645㎡, 건 230㎡
- 방 6, 도시가스, 주차가능
- 가액 : 9억(은행융자가능)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이찬수)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18

051-861-2233
010-5346-4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7분거리
- 평수 80평, 2층 건물
- 2층 대웅전 15평 1층 요사채 공양간 창고 1동 법당 뒤(산)
- 앞 냇가, 시내버스 교통 좋음
- 가액:대출 4천안고 1억 2천만원

010-8794-125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건물 : 2층 23평
- 교통 주차 편리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8223-4879

포교원(급) 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부근
- 평수 : 50평 2층 방1개 화장실, 주방 별도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3794-5215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70(숭인2동) 2층
- 전철1호선, 동묘역, 2번, 3번출구 약 20m거리
- 평수 20평, 법당10평, 방2개 주방1, 화장실, 현재 살림합니다
- 법당 5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인로왕보살 글문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가격절충, 시설비 1,600만원

010-3722-273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 진시장 3~4층, 각 25평
- 보증15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절충
- 주지스님과 절충
- 사찰불사해서 이전 관계로 안내합니다

010-7360-2877

사찰 및 기타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산(국유지)
- 건물 : 건물 등기 24평 실평수(50평)
- 방5개, 주방, 전기, 수도 완비
- 자연경관 수려함, 큰강변 국도에서 진입
- 가액 : 1억 6천만원(조정가능)

010-3588-811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 읍내에서 6분거리
- 법당 : 23평
- 삼존불, 산신, 용왕, 목탱화
- 노천 : 약사여래불좌상
- 요사채 20평, 평수 445평
- 주차시설양호, 즉시법회가능
- 가액 : 2억(가격절충)

010-2384-0327

사 찰 안 내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소재
- 평수 466㎡(145평)
- 법당, 아미타삼존불, 포대화상
- 공양간, 방 4개
- 가액 : 9천만원

010-3697-3521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 2개, 화장실
- 총 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 진시장 3~4층, 각 25평
- 보증15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절충
- 주지스님과 절충
- 사찰불사해서 이전 관계로 안내합니다

010-7360-2877

대구 포교원 임대

- 삼존불 지장 신중 탱화, 외국부처님2분, 소불 60분
- 1층 넓은거실, 큰방1, 화장실1 2층, 법당, 스님방1, 작은거실
- 주방, 화장실, 냉온방기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500만원, 월35만원 시설일체 2,300만원

010-4296-8200
054-954-0904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찰(급)안내

- 위치: 김제 황산면
- 대지 122평, 건평 법당 30평, 건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2층
- 삼존불, 탱화 등
- 수미단원목, 호신불 300불 완비
- 화목보일러 및 에어컨 설치
- 가액 1억 5천만원

010-6625-5539
010-7283-0089

포교당.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1동
- 2층. 법당, 거실
- 방 2개, 화장실
- 총 25평
- 법당이나 토굴로 적합함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25만원(시설비 없음)

010-6548-91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잔디. 조경전망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2억7천안고 양도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5019-538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 진시장 3~4층, 각 25평
- 보증15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절충
- 주지스님과 절충
- 사찰불사해서 이전 관계로 안내합니다

010-7360-2877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소재
- 평수 466㎡(145평)
- 법당, 아미타삼존불, 포대화상
- 공양간, 방 4개
- 가액 : 9천만원

010-3697-3521

사찰(급)안내

- 위치: 김제 황산면
- 대지 122평, 건평 법당 30평, 건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2층
- 삼존불, 탱화 등
- 수미단원목, 호신불 300불 완비
- 화목보일러 및 에어컨 설치
- 가액 1억 5천만원

010-6625-5539
010-7283-0089

친환경 삼베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호흡이 주는 선물

래리 로젠버그 · 로라 짐머만(명상 지도자)

〈4〉 호흡도 버립니다

마음 챙기려는 노력, 떨쳐내라

3단계: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이 장에서는 좌선을 할 때 호흡을 더 이상 닻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 '순수하고 단순하게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런 명상 수행법은 태국의 재가 명상 스승인 키 나나욘이 인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호흡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해 놓고 이제 와서 호흡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을 배제하고 '단지' 자신을 바로 직접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장과 2장에서 언급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고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 온몸의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몸이 호흡 에너지의 흐름과 함께 더 편안해지고, 더 '뿌리를 내리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좌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꾸준히 관찰하게 되면 호흡은 완전히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진 호흡은 다시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몸은 더욱더 이완됩니다. 당신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체적으로 보다 더 안정된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전 과정이 변화하는 전체적인 성질을 관찰하고 점검합니다. 아무 판단이나 분석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그대로 깨어있습니다. 이렇게 열려 있고 자유로운 주의 집중의 상태에 도달하면 이제 호흡을 닻으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 수행을 통해서 호흡 알아차림이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수년이 흐른 후 나 자신 스스로 마음이 넓어지고, 조용해지고, 비어 있고, 평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거듭 알게 되었습니다. 개념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묘한 삶의 에너지에 고도로 충전된 마음은 놀라웠습니다. 나에게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 없고 군더더기같이 보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호흡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호흡이 나를 놓아 버렸습니다. 호흡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나를 닻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 않니?" 마음을 챙기고자 하는 노력이 떨어져 나가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의 자연스러운 귀착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된 듯 보였습니다. 점차로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안정화시키는 수행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도록 허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제 막 호흡 알아차림 수행을 끝냈는데 말입니다. 불교 수행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는 이것이 이전에 이루었던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완성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수년간의 수행에서 물려받은 불법의 독특한 표현이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것들과 내 안에서 펼쳐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 내게 필요한 영감의 전부였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험이 수행의 절대적인 궤적은 아닙니다. 명상 수행은 일직선으로 이루어진 길이 아닙니다. 완전한 법 수행으로서 온 힘을 다해 호흡을 통한 완전한 깨어있기에 헌신한 수많은 세월을 생각하면, 깨어있음의 지지대로 활용한 호흡을 버린다는 것은 극단적이고, 아주 의문스럽고, 급진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클래식 교향악을 듣듯이

닻으로서의 호흡을 버리고, 유일한 피난처로 마음챙김을 하게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단계로 진입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머무는 것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고 미리 준비된 대상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기, 몸의 움직임, 소리, 냄새 등 어떤 것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아무 판단이 없습니다. 마음이 만나는 것을 잡아내고 선택하는 것도 없고,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해석, 분석, 설명도 없습니다.

옛 스승들은 이런 상태를 '거울 마음'(mirror mind)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첫 번째 단계에서 거울 이미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명징하게 바라보기 위해 호흡을 이용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단계에서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대상도 없고, 닻도 필요 없습니다. 일본의 선승 반케이는 너무 형식화된 수행을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춘다. 의도적으로 무엇을 비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울 앞에 어떤 것이라도 오면 거울은 그 형태와 색깔을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거울에 비춰진 대상이 사라지면 거울 역시 무엇을 비추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물건이 사라지면 거울에서도 사라진다."



다른 말로 하면 거울은 비출 때가 왔다고 해서 그 이미지에 매달리거나 붙잡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에서도 이 거울 같은 마음은 간직하고 싶다고 집착하거나, 싫다고 해서 밀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모든 것에 열린 마음으로 수행했으므로, 좌선을 하면서 삶 그 자체가 보여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흡을 닻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때 제기했던 "좌선을 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지?"라는 것보다 더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삶 그 자체가 주제를 설정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삶 자체가 주는 주제를 가지고 명상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제 설정'은 평생에 걸쳐 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만만치 않은 작업임에도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전혀 새로운 기법입니다. 앞에서 익혔던 '허용과 수용의 기술'의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가 사라지고 나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다시 만나고 그 상황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미 있는 것에 깨어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십시오. 이제 수행을 위해 일부러 내용을 선택할 필요도 없고,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호흡에 주의 집중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호흡 의도적 놓아버린 것 아니라 호흡이 나를 놓아 버렸습니다" 호흡의 '닻' 탈피해 마음챙김하면 생각 넘어서 의식수준까지 열려

명징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은 일종의 기술입니다. 순수한 관찰의 기술입니다. 거울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거울 위의 먼지를 어떻게 닦습니까? 수행의 중요한 부분은 관찰하는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삼독, 즉 탐착, 혐오, 어리석음의 탐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진치는 우리 모두를 너무도 강한 힘으로 끈질기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수행을 하면서 당신은 거울에서 이런 흠을 보고, 그것을 봄으로써 그 힘은 약해집니다. 바라본다는 에너지는 그 바라보는 대상이 가지는 에너지를 약하게 합니다. 탐진치의 힘마저도 약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탐진치의 힘을 약하게 하는 힘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깨어있기 명상은 그 순간순간 모든 흠을 깨끗하게 닦아 냅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고요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수행이 진전되면, 마음은 생각을 넘어선 의식수준까지 열립니다. 그것은 생각과 개념 이전이고, 무한한 깊이를 가집니다. 이제까지 원했던 모든 정적과 내적 평화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적과 내적 평화가 주는 위안과 신뢰는 수행이 진전될 때에만 옵니다. 종종 이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고요함(silenc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고요함이라는 단어는 오해하기 쉽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요함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언어의 한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불교는 말합니다. "입을 열면 틀린다!" 이 상황에 딱 맞는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사들의 엄청난 양의 저작들은 이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요함이라는 단어에 제각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대개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고요함에 익숙하지 않는 경우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시간낭비라거나 '실제' 삶과 유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획득하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관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삶이 갖는 명상적인 차원을 폄하하는 현대 문화에 속지 마십시오. 고요함은 침묵의 밀도가 충만 되어 있고, 미묘하고, 정제된 존재의 한 상태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고요함은 삶 전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광대함에 놀라기도 합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고요함이 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 정신적 노력이나 분석은 죽음과 입맞춤 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을 죽이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생각 없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는 마음은 고요함은 생각이 없는 곳에 있다고 결론짓고, 거기에서 생각은 스스로 생존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분석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고요함에 머물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TV가 꺼져 있거나, 냉장고가 붕붕거리는 소리를 멈추거나, 집이 조용할 때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저녁 무렵 도시의 한적한 도로나 시골길에서 고요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경험하듯이 정말로 고요한 장소에서조차 마음은 분주하고, 거칠고, 성가심과 공포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행 센터에서 조차 내적인 고요함은 천천히 진전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수준의 고요함은 잠에 떨어져서 꿈 없는 수면 또는 깊은 수면에 도달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는 왜 그렇게 고요할까요? 왜냐하면 소음의 거대한 생산자, 문제 덩어리, '나'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상쾌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있는 동안 고요함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를 그 깨어있음의 장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명상을 본래 가지고 있는 깨어있음을 회복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불러야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하는가를 배우려면 고요한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불가능하지만, 불교의 각 전통들은 이런 상태를 지칭하는 많은 명칭들을 갖고 있습니다. 고요함, 본래면목, 진정한 본성, 불성, 본래의 성성함, 깨달음 등입니다. 완전하게 깨달은 상태를 위대한 고요(great silenc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고요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 충분한 단어나 글귀는 없습니다. 나는 종종 '삶에서 드러나는 고요'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고요한 마음이 수행 센터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고요한 마음이 수행센터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드러날 때 제대로 만개될 수 있습니다.

정리=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이 글은 〈호흡이 주는 선물〉(나무를 심는 사람들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제10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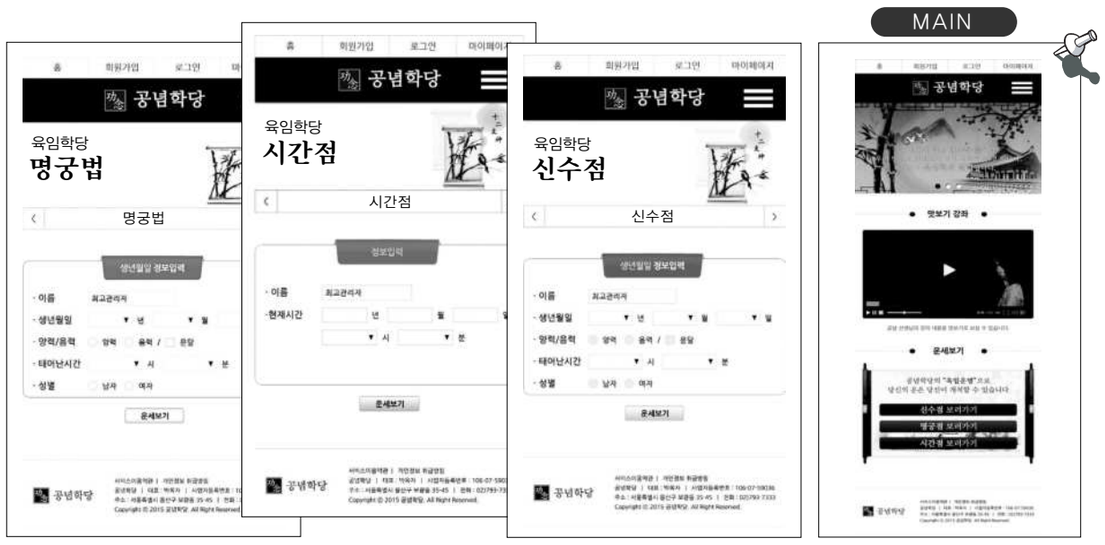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6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2016년 4월 7일 목요일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한국 최초!!
내손 안의 육임

이제 운세를 휴대전화와 휴대용 PC로 손쉽게 손안에서 해결되는 새로운 비법의 육임 운명법(사주, 개운법포함), 명궁법, 신수법, 시간법을 각자의 생년월시만 넣으면 8640 페이지로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운명을 알아 맞추는 형식이었다면 육임 운명법은 운명의 법칙대로 살아야 잘사는 법으로 만든 비술이다.



시간법도 각각 年命(년명)을 대입하여 풀어놓은 국내 최초의 비술이며 휴대전화 앱으로 볼 수 있는 국내최초로 만든 손 안의 운세이다.

육임은 대운법 뿐만 아니라 세운으로 각자의 운명을 어떻게 살아야 맞게 사는지를 자연법칙에 맞추어 만든 비술이다.

인연이 가장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다. 만법이 자연에 순응하여 살듯이 인간도 자연법칙에 맞추어 살아야만 세상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이다.

육임 운명법은 자연법칙에 맞는 인연과 직업을 명확히 알고 살도록 만든 최초의 비술이다.

■ 가 액 : 600만원(모바일 / PC 버전 : 내손 안의 육임 보는법 무료로 강좌 해 드립니다.)
■ 육임강좌 수강생 모집 : 수강료 300만원 ■ 육임이 보인다. 공념 저 / 4×6배판 / 정가 70,000원
■ 강좌문의 : 공념학당 010-4471-6410 ■ 구입문의 : 관음출판사 02-921-8434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지붕이 되기까지

행자도 다녀가고,
주지 스님도 다녀가고,
걱정 많은 어머니도 다녀가고.

향 한 자루가 또 천 년처럼 사라지고,
중생은 또 죄를 짓고,
겨울은 또 봄이 되고.

철마다 숲이 앓고,
시절 없이 너와 내가 앓고,
이제 절 지붕에 기와 한 장 없고.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가족 소통법 ②

마음 전한 자리에 꽃 한 송이 피었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맞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가서 꽃이 될 수 없다. 부부 사이도, 부모자식 간에도, 모든 대인관계에서 마찬가지다.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성을 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P할머니의 눈물은 부부 간에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대학병원 외과 의사를 남편으로 둔 P할머니는 겉보기엔 아주 다복한 삶을 살았다. 처음 결혼했을 땐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집 잘 갔다고 많은 축복과 부러움을 샀다.

자식들도 다 잘 되었다. 큰아들은 아버지 뒤를 이어 의사가 되었고, 둘째아들은 치과의사, 큰딸은 고등학교 교사, 막내딸은 화가가 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70살이 넘을 때까지 P할머니 얼굴엔 좀처럼 웃음꽃이 피지 않았다. 무뚝뚝한 남편의 성격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결혼을 시킬 때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통증이 심해도 남편은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그런데 숨지기 전날 밤이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손으로 남편이 병상 모서리에 앉아 있는 P할머니를 불렀다. 그리곤 반쯤 뜬 물기어린 눈으로 P할머니의 귀를 자신의 입에 대라고 하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보, 나 당신 사랑했어…"

결혼한 뒤 처음으로 그 말은 들은 P할머니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빌어먹을 영감탱이……. 진작 말해주지 왜 이제야 말해……."

P할머니는 화장실이 강물이 되도록 울었다.

P할머니 남편이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6남매 중 맏이로 태어난 남편은 어릴 적 아버지를 잃었다. 그 바람에 홀어머니 아래서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랐다. 그런 가운데도 홀어머니는 큰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라며 악착같이 일해 기어코 의과대학까지 보냈다. 그 결과 남편은 대학병원 의사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홀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남편은 점점 말수를 잃었고, 자신이 아니면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곤 대학병원 교수가 된 뒤 자기 공부 때문에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다섯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다해 결혼까지 시켰다.

뒤집어 말하면 P할머니 손으로 시동생 2명과 시누이 3명을 다 출가시킨 것이다. 거기다가 자신의 자식들 4명까지 포함하면 P할머니는 40여 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무려 9명을 자신의 손으로 손수 시집장가를 보냈다. 그런데도 그 40년 동안 남편은 P할머니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러다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여보, 나 당신 사랑했어"라고 말하니, 그런 남편이 얼마나 얄밉고도 야속하겠는가.

> "
> **속으로 사랑 · 존경 다 해도**
>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
> **'사랑한다' 말할 때 '꽃' 피어나**
> "

바로 다음날 이승에서는 다시 못 볼 이별을 했지만, P할머니의 마음은 평생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삶이 비로소 이해가 되면서 삶의 생기를 되찾았다고 한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표현해주고 간 그 말 한마디가 P할머니의 죽은 마음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또 여생을 살린 것이다.

표현의 중요성은 이토록 크다. 아무리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어도 표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랑과 이해는 꽃이 되지 못한다.

나의 스승인 용타 큰스님은 표현의 중요성을 세 가지 촌철로 압축했다.

'표현이 활로(活路)다'

'표현의 부재는 실체의 부재이다'

'속마음 알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표현이 활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표현해야만 곤란을 헤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이다. '표현의 부재는 실체의 부재이다'는 말은 표현하지 않으면 나(실체)는 물론 상대방(실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의미다. 마지막으로 '속마음 알아주는 것이 사랑이다'는 말 역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서) 표현해주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고 소통이라는 말이다.

평생 동안 P할머니의 가슴을 옥죄고 짓누른 것은 시동생과 시누이들 5명을 손수 출가시킨 것이 아니다. 자녀들 4명을 잘 키우고 결혼시킨 것도 아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였다. '사랑한다', '고생했다'는 그 말 한마디 부재가 평생 동안 P할머니의 삶을 힘들고 그늘지게 했던 것이다.

수많은 부부들이 파탄을 맞이하고, 부모자식이 원수가 되고, 대인관계가 파괴되는 것도 결국은 이 표현의 부재와 소통의 잘못 때문이다.

물론 P할머니의 경우, P할머니에게도 책임은 있다. 남편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남편이 먼저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주고 표현해주기를 기다린 것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삼종지도(三從之道;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르는 것)가 미덕이라 해도 자신의 마음을 먼저 표현하지 않음으로서 P할머니는 너무도 긴 세월 스스로 지옥을 살아야했던 것이다.

저축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자기감정(느낌)을 자기 마음 안에 아무리 많이 저축해둔들 꽃이 되지 못한다. 감정은행에서 그 저금(느낌, 정서)들을 아낌없이 꺼내 사용할 때 나에게도 꽃이 피고 상대방에도 꽃이 핀다.

P할머니처럼 인간의 가장 큰 욕구는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다가가 꽃이 돼야 한다. 그리고 꽃의 말씀들을 서로 먼저 속삭여야 한다.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 많은 불자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 011-557-2773
fax : 0303-0958-4568
■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 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 고 제 작
www.yangjikukak.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 급 형	민 속 죽 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086호 현대불교
2016년 3월 2일 (1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25

한마음으로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진리를 터득해야!

오늘은 여러분과 어저께처럼 서로 질문 토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할 것은, 먼저 앵커리지에 들어오게 된 동기와 뉴욕에 이렇게 선원이 서게 된 이유입니다. 첫째는 세계 평화와 둘째는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바로 마음의 핵심이 불어넣어져야 모두 각자 여러분의 마음의 주장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디 세워 놔도 빛이 있다고 보며, 또 내 나라에 빛을 가져오는 그런 여건이 되며 또한 한마음으로 뭉치는 그런 단결을 한다면 그것이 예전의 비참한 역사를 다시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인 것입니다.

셋째는 여기 와 보니까 교민 여러분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한마음으로 뭉치지 못하는데 그 까닭은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중심을 세워서 해 나가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불(佛)은, 불교라는 것은 진리의, 즉 말하자면 이름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이름이면서도 실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언어죠.

우리의 중심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진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단결되는 마음과 또는 여러분의 주장자에 의해서 참으로 이 미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넓은 지혜가 아마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단결이 없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들이 어째 그렇게 단결이 없고 믿음이 없는지,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자를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남의 선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좀 넓게 마음을 갖고 여유를 가져야 할 텐데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자기가 자청해서, 남이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아랑곳없이, 그대로 불쑥불쑥, 자기 자신의 생각만 하고 단정을 하고 오해를 하고 이러는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공부를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여건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도리를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음은 바로 여러분의 법신이니까요. 그리고 생명의 근본은 바로 불성이니까요. 여러분의 몸은 바로 화신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꼭 하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세계적으로 발전이 되고 우주적으로도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는 건 지수화풍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자력이나 광력, 전력, 통신력이 우리의 재료로 충만히 갖추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료가 돼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오신통이 여러분한테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차 또 얘기하는 것은, 심안으로 보는 눈이나 심안으로 듣는 귀나, 즉 말하자면 무전통신기나 천체망원경이나 또는 탐지기나 또는 컴퓨터나 팩시밀리나, 이 다섯 가지를 말해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벗어나서 바로 누진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 시쳇말로 레이더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들이고 내는 데 바로 그 역점이 있는 것이고 또는 통신하는 데 역점이 있고 결정짓는 데 역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세계를 보고 앉아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니와, 판단을 하면 그냥 그렇게 법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원력을 기르시라는 뜻이죠.

옛날에도 그렇게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불교는 탄압하고 유교를 가져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만방에 눈을 뜨지 못해서 우리 역사가 그렇게 왔고 우리 국민이 비참한 길을 걸어왔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지만 경제난도 그렇고, 모든 점에서 우리 한생각이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귀중하고 세계 평화에도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하나를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세계를 한마음으로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바로 우리나라를 구제할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여러분은 한국인으로서 타향에 와서 처음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며, 한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뭉쳐야 하며, 우리가 단결해서 선두에 나서야 하는 문제, 또 실생활의 행을 그대로 멋지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군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꼭 싸움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그냥 싸움터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쫓고 쫓기고, 죽이지 않고도 죽이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싸움이 꼭 칼을 들고 싸워서만이 아니라 칼보다도 더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한마음으로 뭉치지 않으면 안 되며, 뭉쳐야 바로 그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서 타인도, 타국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비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생명 있는 것은 나 아님이 없고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바로 내 아픔 아님이 없고, 그 상대에게 고(苦)가 있다면 내게도 고가 아닐 수 없으니 이렇게 우리는 한 그릇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마당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한도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모두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은 한데 떨어지고 실천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도달해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막론해 놓고 한국인은 한국인이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한국인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교가 달라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강당에 섰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불당에 섰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미국의 땅에 서 있는 거고, 한국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항아리 속에서 꼼딱거리면서 그렇게 지혜를 넓히지 못하고, 지구를 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를 생각은 안 하고 항상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서로 뜯고 생활도 화합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러한 국민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불자라고 한다면 진짜 불자가 되십시오. 만물의 영장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유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사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도 탓을 하고 저것도 탓을 하고,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원망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면 지옥은 항상 뒤따릅니다. 오간지옥이 뒤따르고 화산지옥이 뒤따르고, 불이 올라오면 화산지옥입니다. 그리고 병고를 가져오고 영계성이나 유전성이나 세균성, 모두를 자기가 자처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의식, 모습, 생명들도 바로 여러분이 마음을 나누는 까닭에 그 나라, 그 공장도 또한 파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내 안에 들어 있는 나라가 파워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내 몸뚱이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러한 도리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할 것이며, 어저께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또 얘기 안 할 겁니다. 나는 병을 고쳐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의사가 아닙니다. 단 하나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그 핵심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면서 모든 일을 커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면 영계에 끄달리지도 않고, 유전에 끄달리지도 않고 생사에 끄달리지도 않으며 또는 세균성이 나한테 들어서 모진 병에 휘달리지도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여러분의 주자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가 이렇게 좋은 것을 모르고 국한된 미신의 종교로만 알고 기복에만 끄달려서 애를 쓰는 그러한 불자가 돼서는 아니 되십니다. 한국의 선원에서도 기독교나 가톨릭교 어떤 교라도, 원불교든 어디든지 다 모입니다. 왜 모이느냐? 나는 둘로 보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가지 말라 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 26면으로 계속

불교실전의식 학인 모집

범음.범패.작법에 관심있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수복불교대학에서는 포교활동 및 포교원.
사찰개원을 희망하는 분을 위하여 각 단 불공의식 및
기초교리와 교학등을 빠르게 습득하여
여법하게 봉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1년 과정)
◇ 조석예불.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
◇ 천도재. 49재
◇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등
◇ 사물다루는 법(북. 태징. 홍고 등)
◇ 기초교리 및 교학

개강일시 : 2016년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자
장 소 : 수복불교대학

※ 1년 수련 후 법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수 복 불 교 대 학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7-49 (이수역 10번 출구 부근)
연락처 : 명선 010-8588-2616 / 묘련 010-2250-7499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이 세상을 다 집어서 바로 내 근본에다 하나로 뭉쳐야!

☞ 25면에서 계속

우리는 한마음으로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진리를 터득해야 합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내 종교 네 종교 하는 것이 어디 항아리 속에서 있을 법이나 한 일입니까? 걸상 몇 개 놓고선 내 걸상 네 걸상 하고 항아리 속에서 아무리 싸워 봤던들 그 항아리 전체는 굴릴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왔다면 좀 더 여유있게 큰마음을 가지고 또 지조가 있고 야망이 있고 그렇다면, 이 세상을 다 집어서 바로 내 이 근본에다가 하나로 뭉친다면 이 세상을 다 들이고 내고 굴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단전호흡을 한다, 명상을 한다 좌선을 한다 이러지만 여러분이 앉으면 좌선이요, 서면 입선이요, 생각을 하면 참선이요, 모두가 참선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하되 안방도 도량이요, 법당도 도량이요, 기독교 믿는 사람은 강당이 바로 도량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부정 못하겠죠.

지난번에도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갔을 때도 불이 활활 일어납디다. 그것은 무슨 증거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라는 증거죠. 사대는 흩어져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만은 영원하다는 그런 뜻에서 불은 언제나 이렇게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 네 탓 내 탓, 네 종교 내 종교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폭넓게 자비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유(有)의 법으로도, 우리가 생활에서 부진한 일이 있어서 도와주더라도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얼굴도 생각해야 하는 점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근히 왼손이 하는 거 바른손이 모르고, 바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그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면 전달되는 대로 보시를 해서 돕고, 물이 없는 데서 사는 고기는 물에 넣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서 잡느라고 죽이고 담아 놨다가 죽이고, 물에 던져서 그것이 저희 집 찾아가느라고 죽고 이런다면 그거는 바로 마구니가 하는 짓입니다. 스스로서 봤을 때 스스로서 행하는, 진정한 사랑, 진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자비가 아닐까요? 무심으로서 무주상 보시를 하며 영원히 벗겨 줄 수도 있는 것이며, 그 오간지옥에서 허덕거리는 그러한 죽은 사람들, 죽은 마음들, 또 산 사람들의 허덕이는 그 마음들을 만약에 그 죄 속에서 벗게 해 준다면, 한마음이 돼서 녹여 준다면 바로 그것이 대 사랑인 것이고 무주상 보시인 것입니다. 또한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살면서 남이 모르는 괴로움과 가난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도왔다.' 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참보시요, 그것이 바로 참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발짝 한 발짝, 어려서부터만 걸어온 게 아니라 수억겁 광년을 걸어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먹히고 먹고 하면서 그 아픈…, 그 피를 삼키면서 피를 흘리면서 한 발 한 발을 디뎠습니다. 지금도 딛고 갑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가 따로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죽고 살고 변하고, 무상한 이 세상이 바로, 끝없는 이 세상이 바로 불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그 핵심을 믿고, 즉 말하자면 원소를 믿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분이라면 바로 자기 핵심을 찾고, 핵심을 찾음으로써 '이 세상이 둘이 아니로구나!' 하는 뜻을 알고 '이 세상은 고정됨이 없이 둘이 아니게 나툼이 있구나. 바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면서 조화를 이루고 이 세상이 그렇게 우주와 더불어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부입니다.

> **우리가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는 얕다 높다, 동이다 서다, 여자다 남자다, 잘못한다 잘한다, 모른다 안다 이런 거를 몽땅 놓는 것이 바로 선맥을 이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심각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한테 다 못하는 말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앉아서 자기가 만 명이 돼서, 만 명을 원하니까 만 명이 돼서 중생들에게 응해 주셨다 할 때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응해 달라는 대로 응해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돼 주시고 '예수여!' 하면 예수로 모습을 보여 주시고, '부처님!' 하면 부처님으로 보여 주시고, '지장보살!' 하면 지장으로 보여 주시고, 칠성으로 원하면 칠성으로 보여 주시고 '용신!' 하면 용신으로 보여 주시고, '지신!' 하면 지신으로 보여 주시고 '신중!' 하면 신중으로 보여 주시고, 이렇게 여여하게 생사윤회에도 아무 까닭 없이 끄달리지 않으시면서 그저 여여하게 여러분한테 응해 주신 그분의 그 뜻이 바로 우리들한테도, 깨달으면 그분의 그 마음자리와 같은 자리요 같은 도량이요 같은 다자탑의 방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듣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괜히 앵무새처럼 이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요, 앵무새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말의 음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전력이나 광력 자력과 통신력도,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통신도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나는 다짐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난 다시는 머리를 안 깎겠다고요. 중노릇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야 여러분을 물속에 끌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내가 왜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여러분처럼 뭐 바람을 쐰다 어쩐다 한시반시도 이런 여유도 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참답게 내 아픔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켜 주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그 가정이 바로 내 가정이기 때문이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그러하며 어떻게 해야만이 그것을 다 커버하고 나갈 수 있나. 어저께 재미있는 얘기 했죠? 여러분 배 속, 이 몸속이 전부 팥죽 그릇이라고, 팥죽 솥이라고요. 팥죽이 끓는데 그 부글부글 끓는 그 방울방울이 나오는 대로 속아서,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저 들으면 듣는 대로 그런 팥죽 방울 일어나듯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어느 선승이 "요것도 고놈! 요것도 고놈!" 하면서 다 그렇게 주자로 치고 나니까 황! 그릇이 뚫렸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어느 중은 앞뒤 뚫린 대피리를 불면서 코끼리를 타고 온 누리를 누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안 해 보시렵니까? 허허허, 그럼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자1(남) 제 질문은요, 한편으로는 불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무명에 휩싸이는 그런 인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두 가지의 개념이 잘 조화가 안되는 것 같아요.

큰스님 조화가 왜 안돼요? 요런 걸로 비유해 봅시다. 나무가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죠? 왜 작은 나무라고 했고 왜 큰 나무라고 했을까요? 왜 고목이라고 했고, 왜? 왜 그런 단어가 나왔고 그런 말이 나왔죠? 그리고 산은 높고 낮다고, 얕은 산이 있다고 왜 그런 말이 나왔습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은 바로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이 없다면 얕은 산도, 얕은 산이라는 그 언어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또 얕은 산이 없다면 높은 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넓게 따지고 본다면 '얕은 산도 얕은 산이 아니요 높은 산도 높은 산이 아니니라.'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생의 천차만별의 생명들이 생명이 있는 거는 다 불성이 있는 법인데 어째서, 어째서 그것이 어우러지지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봐도요, 저 풀도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그럽디다, 저게. 똑같이 잘라 놨는데도 먼저 쓱 나오는 게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어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깐 우리가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는 얕다 높다, 동이다 서다, 여자다 남자다, 잘못한다 잘한다, 모른다 안다 이런 거를 몽땅 놓는 것이 바로 선맥을 이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만한 거 하나 다 나한테서 나온 거니깐 바로 나한테서 해결하고 나한테서 잘된 거니까 나한테다 감사하고, 내가 갔으니까 남을 원망할 게 아니라 내 탓이고, 이렇게만 한군데로 뭉쳐 놓는다면 이 세상을 다 가질 게 없고, 또 그 한군데로 뭉쳐 놓는다면 나중에는 자기를 홀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는 '아이고, 알고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나 아님이 없구나. 아, 어저께 오늘이 따로 없고 하나가 따로 없고 만이 따로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부처님이 행하시는 중용처럼, 실상처럼 그냥 이걸로도 나투시고 저걸로도 나투시고 한 찰나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저 보살의 마음속에 한 찰나에 들었다 한 찰나에 그 좋은, 귀중한 설법을 하고 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게 삼천 년 전도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평등하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안된다고요? 하하, 그렇게는 생각지 마세요. 하다 못해 기어가는 버러지도 생명이 있는 거는 다 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요, 만약에 옛날의 선조들, 선사들 같으면요, 나라에 싸움이 일어난다거나 그런다면 이 꽃 이파리 한 이파리 한 이파리를 군사로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보경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급하니까 마음을 내는 게 이보예요. 한 발 내려딛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민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다면 땅속에 있는 무기들도 전부 녹이 슬게 딱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법이고요, 중단시키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다 내 부처님의 마음이 돼서 보살이 돼 가지고 다 그 마음으로 다듬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서 일을 만들어 놓고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너무 국민들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르고 자기가 손발 들고 나가게 만들고 그러는 거지, 누가 말을 하고 때리고 갖다 가두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을, 이렇게 광대무변한 법을 어째서 우리는 외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왜 외면을 합니까? 제일 중한, 자기 아픔을 거두어 주는 그 자기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기 나가시다 엎드러져 보세요. 무르팍이 깨져 보세요. 벌써 거기 손 가는 건 남의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어이쿠!' 그러고선 '아파!' 하곤 그 손이, 바로 십대 제자가 거기 갑니다. 허허허,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십대 제자뿐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질문을 나중에 했죠?

질문자1(남) 무명의 근원지가 어딘지요? 무명이 과연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건지 그 질문이었습니다.

큰스님 한마디를 하면 봇장이 울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깐 또 그런 질문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지수화풍이라는 그 소리를 부처님께서 왜 자꾸 하셨고 우리도 자꾸 하는지, 이게 지금 전체가 지수화풍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지수화풍이, 즉 말하자면 바람과 흙과 물이 한데 합쳐서 혼합이 되니까 온기가 생겼어, 불이. 온기가 생겨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그 근원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으로 낳게 만들었거든. 그리고 '몸속에 너희가 역대에 거쳐서 진화돼서 올라온 그 자체의 근원지를 봐라.' 하고 인연에 따라서 그 근원지에 미생물이나 모든 모습도 갖가지로 그 몸속에 다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올 때 물주머니로 나오게 만들었죠? 어떻습니까? 지수화풍의 근원지라 이겁니다.

또 지수화풍의 근원지면 우리는 지수화풍의 근원지를 가졌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아요.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이 세계가 발달할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거니와 과학이라는 그 소리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끝 간 데 없는 진리가 될 수도 없거니와 풀 한 포기만 살아도 불교가 그대로 있다는 그 사실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럼 또 질문 없으십니까? 잘못됐으면 항의하세요, 나도 배워야죠. 허허허….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3월 17일 뉴욕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졸업생, 그대가 자랑스럽습니다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해마다 2월 이맘때쯤이면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을 치른다. 표준국어사전에 따르면 졸업은 '학생이 규정에 따라 소정의 교과과정을 마침'으로 정의되어 있다. 말하자면 졸업은 정해진 학칙에 따라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며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고, 친구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동안 가르쳐준 스승에게 눈물을 글썽이기 일쑤였다. 졸업식은 그렇게 많이 '시원섭섭한' 날이었다. 졸업생들은 끼리끼리 모여 웅성대면서도 저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을 마음껏 이야기했다.

졸업은 이처럼 '마침'이기도 했고 또 다른 '시작'이기도 했다. 졸업식의 영어식 표현으로 정식명칭인 'Graduation Ceremony' 보다 새로운 '시작'을 함축하는 'the Commencement'란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러한 졸업식의 사회적 의미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에 합격한 사람들과 취업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만 졸업식에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졸업'의 남다른 가치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미안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금의 50~60대만 하더라도 졸업식에 가는 것 자체가 무한한 영광이자 특권이었다. 그만큼 배움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작금의 졸업식 풍경에 대해서도 한 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어디가도 비슷한 천편일률적인 축사와 불과 몇 명의 졸업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수상의 기쁨은 대다수 졸업생들의 발걸음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든다.

하물며 올해는 유명대학에 진학한 졸업생 숫자가 작년보다 훨씬 적다거나 취업률이 예년에 비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것이 졸업식 축사의 내용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고 만다.

예나 지금이나 졸업식은 새로운 출발의 발걸음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격정해주는 말들을 주고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 애플의 창업자인 故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대학 졸업생들에게 "늘 배고프게, 늘 우직하게(Stay hungry, Stay foolish)" 살 것을 주문했다. 이 한 마디는 졸업생들에게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코난 브라이언은 2000년 하버드대 졸업식장에서 "좋은 것만큼 나쁘기도 하다. 실패하고 어지럽고 가끔 망가져라. 그리고 삶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일갈했다. 자신들에게 닥칠 미래가 두렵기만 한 젊은이들에게 이런 조언은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용기와 위안을 준다.

이와 같은 졸업식 연설들은 시대적 메시지와 함께 한 국가의 장래를 암시해줄 만큼 감동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와 같은 비전과 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사회가 되고 말았는가. 압축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무한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기성세대의 솔직한 자기고백도 이제는 구차하고 식상한 변명으로 들린다.

세계 10위권 규모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유명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실패했다고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할 만큼 풀죽은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일단 축하받을 자격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한다. 누구에게나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그 다음의 일이다. 축 늘어진 졸업생들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우리사회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졸업생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발언대

1983년 불교개혁 재조명

조계종 비상종단 출범 33주년을 맞은 올해, 당시에 추진됐던 개혁 종책들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비상종단개혁종책연구회(대표 이희선)가 2월 25일 재조명 세미나를 연 것이다. 세미나에서 쏟아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편집자주〉

"부족했지만 획기적 발상"



법안 스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비상종단에서는 재가그룹이 대등하게 결합했다면 94년 개혁종단에서는 출가대중이 주도를 했다는 평가를 한다. 하지만 94년 개혁종단에는 상대적으로 출가대중이 광범위하게 결합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결코 재가가 소수로 결합한 것은 아니다.

비상종단에서의 제도개혁은 그동안 쌓였던 적폐를 단시간에 해결하기에는 주체세력들의 경험이 부족했으며, 일부 중진스님들이 결합을 했지만 역량이 미치지 못한 측면이 크다.

결국 종단은 출가승들의 이해와 정서를 온존하게 반영해야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데 재가자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측면과 또한 일정한 개혁이 진척되고 난 다음에 전개되어야할 과제들을 섣불리 추진해 대중의 기대에 멀어진 측면이 크다.

그 이유는 아래로부터의 분출된 개혁이 아닌 소수 대중의 논의구조를 갖는 운영체계의 비상종단 성격이 갖는 한계이기도 하다. 다만 그 시기에 열정을 갖고 시도했던 신도포교와 종단 재정 등의 제도개혁에 대한 시도는 대단히 획기적 발상으로 뒤에 개혁종단의 주요 종책에 대폭 반영된 측면이 있다.

출재가 함께하는 새 비전 필요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

비상종단의 의미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사회사적 평가가 불교사적 평가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주로 종단사적 평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쉽다.

종단은 비상종단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비상종단에서 제기한 제도적 문제조차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개혁종단은 과거 국가권력이 만들어 준 정화불사의 종단이 아니다.

비상종단의 개혁안은 종권(宗權)의 외부 시각에서 정화불사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시로서는 그것만으로도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개혁안은 전통과 비구중심의 정화불사의 틀에 갇혀 새로운 불교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너무 제도적으로만 해결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어떻든 승가(僧家) 스스로가 개척한 자주적 종단으로서 불자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종단의 근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논평자는 그런 원인을 정화불사를 계속해서 자신의 개혁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中道 일신, 개혁정신 재약동"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개혁은 다수 대중의 기대를 충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기 위한 조처이지만, 기득층에게는 심각한 불안과 거부감을 촉발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또는 진보는 대체로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불교를 포함한 종교도 예외가 아니다. 인도에서 불교는 금욕주의와 구행주의에 치우친 기존의 수행 전통을 개혁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이 개혁을 불교에서는 '중도'라는 개념으로 표방하고 실천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중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표방한 개혁의 실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불교의 개혁이 성문화된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도상의 개혁은 성문법을 요구하지만 역사적 평가에서는 성문법이 개혁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반대세력에 의해 성문법이 파기되더라도 개혁의 정신은 파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비상종단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다고 확신한다.

社說

근대문화재 발굴에 범불교적 관심을

올해로 3.1운동은 97주년을 맞는다. 3년 후에는 100년을 앞두고 있지만, 불교계 항일 운동가 발굴은 매우 미약하다. 최근 경허·만공선양회가 구성돼 만공스님의 독립운동가 서훈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많은 스님들의 항일 활동과 유적들이 있지만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것은 근대 문화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근대문화재 등록 건수는 600여 건으로 이중 불교계 독립운동 관련 유물의 등록문화재 지정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총 30건의 불교 근대문화재 중 독립운동 관련 문화재는 8건으로, 이는 전체 근대문화재 중 2%에 불과한 수치다.

근대 문화재 발굴은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 올해 3.1절을 맞아 은평구가 백초월 스님의 진관사 태극기 1360여기를 통일로를 비롯해 은평로, 수색로, 연서로, 서오릉로 등 5개 도로에 게양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서울시는 동국대 도서관이 소장한 백용성 스님 〈조선글화엄경〉, 〈조선어능엄경〉을 문화재 등록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우리말과 글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던 일제강점기에 민족 독립의식의 고취와 불교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3.1운동이 100년을 맞기 전, 불교계는 근대 문화재 발굴·연구를 통해 항일 인사 조명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교단적 관심이 필요하다. "여러 종파, 사찰, 스님들과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근대 불교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불교계 항일 인사 발굴은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범교단적 역량 집중이 이뤄지길 바란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0주년에 부쳐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자승, 이하 KCRP)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KCRP는 우리 사회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모여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취지로 1965년 출범했다. 현재 불교와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유교 등 한국 7대 종단이 소속돼 있으며, 산하단체 ICRP 및 지역KCRP 등을 운영하고 있다.

KCRP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 △세미나 △30년사 발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KCRP의 30년사 발간은 연중기획으로 이뤄진다.

KCRP의 가장 큰 성과는 '이웃종교' 개념을 한국사회에 확산시킨 것이다. 이웃종교라는 개념의 확산은 역사적으로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변선환 목사 등 이웃종교와 화합을 강조한 종교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 했다.

그럼에도 안타까움은 적지 않다.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은 하지만 어디까지나 표피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매년 많은 훼불 사건과 이웃종교에 대한 혐오 사건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범종교적 참회와 반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교계 등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각 종교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위치를 달리한다.

KCRP 30주년은 축하할만 한 일이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종교간 협력이 '공공선'을 위해 실효성 있게 이뤄졌으면 한다. 이제부터라도 참회와 성찰이 이뤄지는 대화모임이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남범음범패 제5기
학 인 모 집
● 초 급 : 목탁기본습의,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향수해례, 삼보통청, 지장청, 관음청, 신중청
● 중 급 : 사물다루는법, 요잡, 시다림, 점안식, 일백사위, 삼십구위의식, 관음시식, 전시식, 상용영반
● 고 급 : 천도의식, 49재의식, 구병시식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5시(일년과정)
● 모집대상 : 승려, 법사
● 강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고왕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463번기 17-27
(강주 : 상일스님)
수강비와 강의책은 무료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부처님법 바르게 전하시길 빕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번지
☎ 052-262-6857 / 010-9709-8850

건강에 좋은 신비의 효능
마가목(원탕)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24일 일요일 - 오전7시20분 MBC TV "고향이 좋다" 「마가목」 효능방영
■ 2014년 7월31일 목요일 - 오후7시30분 KBS-1 TV '한국인의 밥상' 경남 밀양 얼음골 「마가목」 건강식 방영
■ 2014년 10월6일 일요일 - KBS-1 TV 오전5시10분 '내고향 스페셜' 설악산 백담사마을 「마가목」 방영
한방무한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상담문의 031-773-7838, 011-9049-2848 야간전화 사절
※ 제방선원이나 수행스님께 대중공양 올릴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 제조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현대불교신문
구 독 문 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법사 방필석

방필석 대내외활동

前 대통령 영식(아들) 아호 찬명(받아감)
前 대통령 손녀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공식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잘될 사람이 받는 아호



아호증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호 설명서 첨부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아호 ★

★ 잘될 사람이 받는 아호 ★

훌륭한 분 공통점이 본 이름을 그냥두고 존엄한 아호를 받아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아호
峨山 鄭周永 前 현대그룹 총수
湖巖 李秉喆 前 삼성그룹 총수
巨山 金泳三 前 대통령

아호는 人生의 바른길로 인도하는 스승과도 같고 곧 황금열쇠와 같느니라.
아호는 신생아때부터 받아도 좋다. 아호는 인연이 닫아야 받습니다.
아호는 잘된사람이 받아 잘된것 아니요, 아호를 받아 잘된것이요.
내가 앞으로 잘되기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잘될짓을 행하라.

♥ 남편에게 주는 아호 ♥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부부는 이성지합이라 백성을 낳게하는 시초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천생 인연으로 맺어진 조강지처를 사랑하고 소중히 섬겨라 아버지가 어머님을 그리해야 했듯이 아내를 그와같이 해야하느니라 그리할때 천신이 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재물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해도 조강지처를 잘 섬기지 못하면 어디서 무엇을 잘될것을 얻으려 하십니까?

신생아 작명

弟子 入門 歡迎



작명증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작명 설명서 첨부

★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본연구소에서 작명 아호를 받은 인연으로 동자 신준원을 스리랑카 대통령님이 안아 주시는 영광.
사진 왼쪽부터 동자 어머니, 대사관직원, 법사 방필석.

신생아는 춥다, 덥다 표현이 어려우니 환경이 안 맞으면 우는 것이 곧 언어이다.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맞는 환경은 부모는 좋지만 부모와 체질이 다른 아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자녀들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귀(貴)하고 소중한 자녀의 이름과 아호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한 장소에 27년 경영 국가 공인 한자 1급 12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국내외 우편발송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견지동) 등용문빌딩 201호(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 필 석